



국제자격검정원

International License Institute

색채심리상담사

교 안



국제자격검정원

International License Institute

색채심리상담사 강의교안

목 차

1차시	색과 색채치료
2차시	색채의 분류와 체계
3차시	색채치료의 역사와 론(論)
4차시	색채 지각
5차시	색채치료의 종류와 특징
6차시	색채와 차크라
7차시	색채와 오행
8차시	색채와 풍수(환경과 인테리어)
9차시	색채의 상징(빨강)
10차시	색채의 상징(파랑)
11차시	색채의 상징(노랑)
12차시	색채의 상징(초록)
13차시	색채의 상징(분홍, 보라)
14차시	색채의 상징(주황, 갈색)
15차시	색책의 상징(하양)
16차시	색채의 상징(검정)
17차시	색채심리 상담의 실제(만다라)
18차시	색채심리 상담의 실제(아동)
19차시	색채심리 상담의 실제(청소년, 노인)
20차시	색채심리 상담의 실제(작품 분석)

제 1차시. 색과 색채치료

I . 색의 개념

1. 색

1) 정의



- 색이란: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눈에서 보내는 신호를 뇌가 해석한 것.
-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색: 1,700만개(빨강, 파랑, 초록 → 빛만 감지 가능)
- 여성의 경우는 가까운 곳의 미묘한 것까지 색을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노랑과 초록의 비슷한 계열의 색도 다양성을 구분 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는 멀리 떨어진 형상으로 구분하며, 노랑과 초록을 동일한 색으로 인식한다.

2) 사전적 의미

- 색채는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과 사회적 약속이다.

* 색(色): 사람 人 + 병부 亾(사람의 얼굴표정과 마음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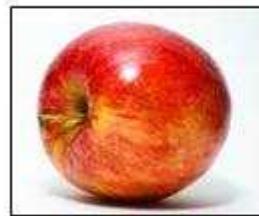
* Color: ‘cel(cover)’ 이 ‘col(cover)’로 모음을 변했으나, cover라는 개념에서 ‘or(하는 것)’을 합쳐서 color는 ‘덮은 것’이라는 뜻이며, 옛말은 ‘colos’ 물체에 숨어 있는 그 무엇’, “빛이 있기 전까지 숨겨져 있다가 빛이 나타남으로 드러내다”라는 뜻이다.

3) 우리말 색 이름 (2005. 12 개정)

- 흰색은 하양으로, 녹색은 초록으로 개정되었으며, 분홍과 갈색이 추가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색 이름과 색상 분류에 기본이 되는 기본색 이름을 기준의 유채색 10색과 무채색 3색 등 13색에서 분홍과 갈색을 포함 15색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본색 이름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회색, 검정, 으로 표현된다.

4) 기억색 (memory color)

- 대상의 표면색에 대한 무의식적 추론에 의해 결정되는 색이며,
기억색은 실제의 색상과 다르다(예: 사과의 색).



5) 현상색 (appearance color)

-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상, 또는 지각에 앞서 빛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시공간에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의 색을 현상색이라 한다.

6) 색의 항상성 (color constancy)

- 빛 자극의 물리적 특성이 변하더라도 물체의 색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
ex) 백열등과 태양광선 아래에서 측정한 사과 빛의 스펙트럼이 각각 달라도, 빨간색이라는 사과의 정체성은 다르게 지각되지 않는 것.

7) 색채의 접근

① 합목적 방식: 색채를 사용하는 방식과 목적이 사용자의 주관적인 분석(인문 사회학적 관점)

② 합법칙적 방식: 색채 자극의 분광 분포에 따라 분석 색채가 갖는 성질과 기능을 분석.(과학적 관점)

II . 색채치료의 개념

1. 색채치료의 개념

1) 개념

- 컬러의 치유적 효과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영적 불균형을 치료하는 방법. 인간의 신체 역시 입자와 파동의 에너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컬러가 지닌 에너지가 인체로 유입될 경우 어떤 현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치료법이다.

* 색: 사물을 판단하는 물리적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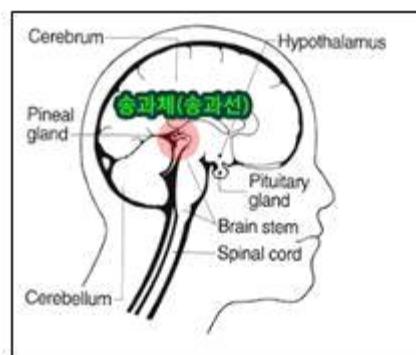
* 색채: 지각된 색이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경험의 효과

2) 쾌감원칙

일본의 색채심리학자 스에가나 타미오에 따르면 생명력의 기본은 ‘쾌감원칙’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감을 추구하며 눈도 그 원칙을 따른다. 어떤 색이 시상하부에 전해지면 쾌감의 전달통로인 A10신경을 통해 뇌의 편도핵에 도달해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의학보다 먼저 이 과정에 주목한 것은 광고 마케팅의 영역인데, 컬러테라피는 그것을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얹힌 상태를 푸는 수단으로 삼는다.

3)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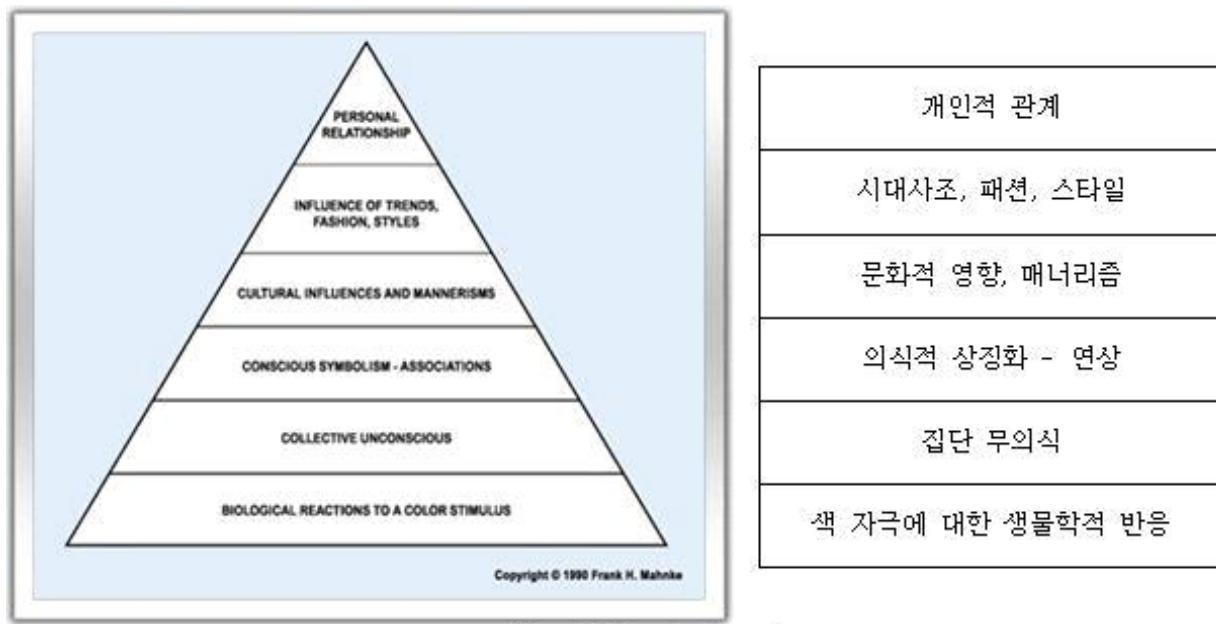
- 시각을 통하여 들어온 빛은 신경전달 통로를 거쳐서 송파선(松果腺, pineal gland)에 도달.
- 송파선(송파체)의 역할: 일상의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
 - ➔ 뇌에서 받아들이는 오감(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 83% 이상이 시각
 - ➔ 컬러만 보더라도 90초 안에 잠재의식적 판단을 내림



<송파체 위치>

4) 색경험 피라미드

프랭크 만케(Frank H. Manke)는 색경험의 과정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색채 해석이 사회적인 소통의 도구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색 경험의 피라미드〉

① 생물학적 반응: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이 단계의 색경험은 생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색 자극을 사용하는 것. 종의 생존과 유지, 번식에 필수적인 신호로서 색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을 뜻함

② 집단무의식: 색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조상들의 색채 환경에 대해 반응한 방식으로 색채에 반응하는 것. 심리학자 용(Jung)에 의한 개념. 사람의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것처럼 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생기거나 단순하게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이 기억들이 출생 이후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가지게 되는 것을 개인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반해서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집단무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성격이라고 파악하면 된다.

③ 의식의 상징화: 색채에 대한 어떤 연상을 가지는 것 (1차적 연상: 초록-자연, 2차적 연상: 빨강-정열)

④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 종교, 신화, 의식, 문학 등 다양한 문화.

⑤ 시대사조, 패션, 스타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색에 대한 선호도, 특정한 시기의 정신.

⑥ 개인적 관계: 피라미드의 가장 윗부분으로 어떤 색에 대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고 싫음에 대한 경험.

5) 심리적 이해

① 색채심리학자 Wiesel에 따르면 색채심리치료에서는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의 감정들을 인지적인 요소를 통해 통합하고,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색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본래적 자기 색(self color)을 찾도록 돕는다.

② 특정한 색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본래적인 자기 색을 찾는 과정은 자신의 본성을 대면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인의 실존적 자기의식이 확장된다.

③ 색채심리치료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인 색 이미지의 의미를 파악한다.

④ 색의 물리적 특성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⑤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색채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 반응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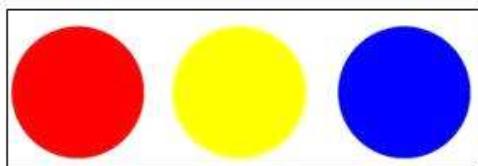
⑥ 색의 속성은 스스로의 모습에 의해서가 아닌 주변의 다른 색과 조화와 대비로 인해 또 다른 이미지를 창조한다.

제 2차시. 색채의 분류와 체계

I . 색채의 분류

1) 색의 분류

1) 원색, 순색(原色, primary color)



< 색의 3원색(순색) >

- 다른 색의 조합으로 만들 수 없는 색의 근원이 되는 으뜸이 되는 색을 뜻함. 원색들은 혼합해서 다른 색상을 만들 수는 있으나, 반대로 다른 색들을 혼합해서 원색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무채색(無彩色, Achromatic Color)

- 색감과 채도가 없이 오직 명도만을 가진 색깔의 총칭. 모노톤과도 연관된다.



-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군으로 나뉘는데 고명도군은 하얀색, 중명도군은 회색, 저명도군은 검은색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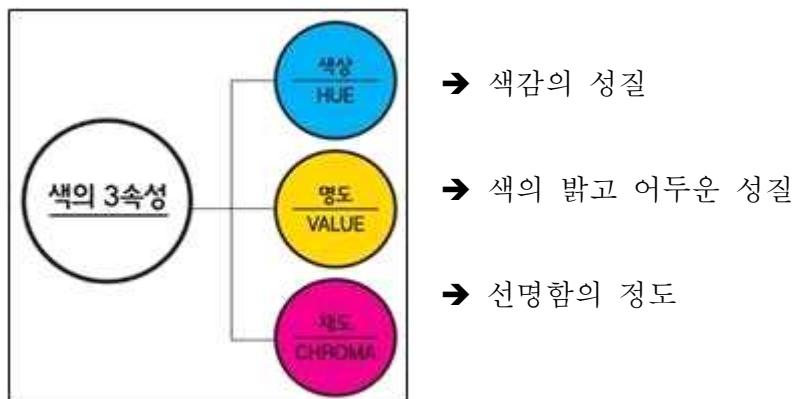
- 명도가 높을수록 밝고 진출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명도가 낮을수록 어둡고 후퇴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3) 유채색(有彩色, chromatic color)

- 물체의 색 중에서 색상이 있는 색으로 명도(明度) 차원만을 포함하는 무채색(白·灰·黑)을 제외한 모든 색을 유채색이라 한다. 유채색의 종류는 750만 종이나 되지만 실제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색은 300여 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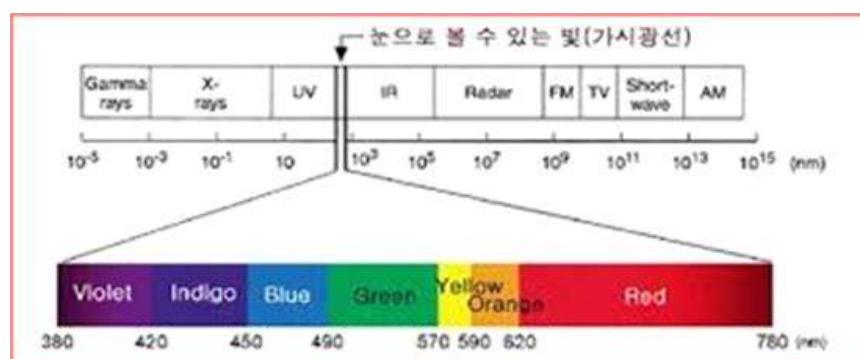


2. 색의 3속성



1) 색상 (H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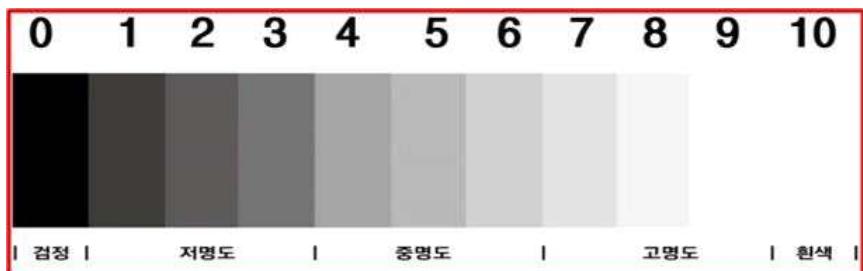
- ‘색의 종류’를 뜻함. 전자과 가운데 380~780nm의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 영역에서 색 구분 가능(파장의 길이에 따라 색이 달라짐).
-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색의 변화는 무지갯빛과 동일.



2) 명도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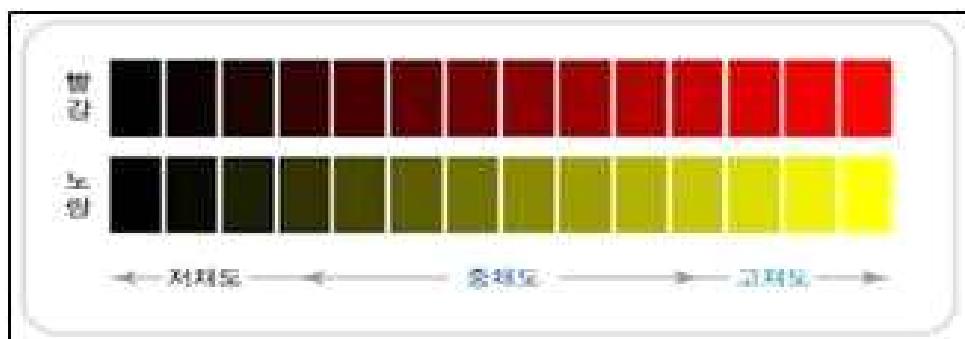
- 'V'로 표시하며, ‘색의 밝고 어두움’을 뜻하며, 무채색과 유채색 모두에 해당.
- 검정색은 0, 하얀색은 10으로 하여 11단계로 구분.

- 색의 밝기가 흰색에 가까울수록 “명도가 높다”라고 표현.



3) 채도 (彩度, Chroma)

- 'C'로 표시하며, ‘색의 맑고 탁함’을 뜻하며 무채색이란 채도가 없다는 뜻.
- 무채색이 많이 섞일수록 채도가 낮아짐.
- 어떤 색에 무채색을 아무리 많이 혼합해도 색상은 무변.
- 가장 낮은 채도 = 1도, 가장 높은 채도 = 14도 (14단계)



II. 색채의 체계

1. 먼셀의 색체계

- 먼셀(Albert Henry Munsell, 1858~1919): 미국의 화가.
색채연구가이며 색의 삼 속성을 척도로 체계화시킨 ‘먼셀 표색계’를 1905년에 발표하였다. 이어 1915년에는 색지각의 기초로 ‘The Atlas Munsell Color System’을 간행하였다.



1) 먼셀 표색계 (表色系)

- ① 1905년: 색상 배열의 체계를 바탕으로 색상 표시 방법을 창안.
- ② 1913년: 먼셀표색채도해서(Atlas of the Munsell Color System) 출간.
- ③ 1929년: 아들이 먼셀의 색상서 (Munsell book of color)를 완성.
- ④ 1940년: 미국 광학협회에서 수정한 먼셀표색계를 표준색표로 지정함.

2) 먼셀의 색상환

- 빨강(R), 노랑(Y), 초록(G), 파랑(B), 보라(P)의 5가지 기본색 주황(YR), 연두(GY), 청록(BG), 남보라(PB), 자주(RP) 중간색.
각 색상은 1번에서 10번까지 숫자를 붙여 표기(표준: 5).
 - 국내에서는 공업규격 KSA0062-71에서 채택.
 - 교육부 고시 312호로 지정해 사용.



3) 먼셀의 색기호 표시법

- 색상, 명도, 채도(HV/C)의 순서로 기록. 색상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 5번으로 나 타내는데 아래 예시의 5R 5/14는 최고 채도와 중간 명도를 지닌 5번 기본 빨간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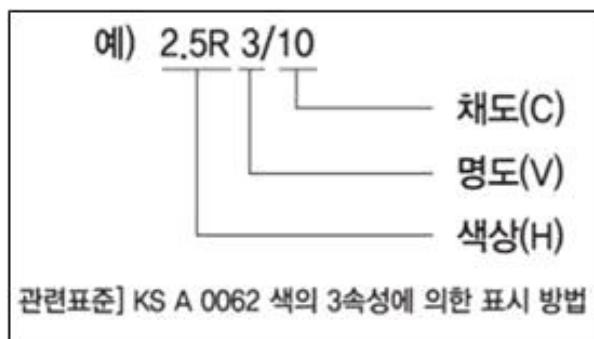
예시) 5R 5/14 (색상, 명도, 채도) →

읽기: 5R 5의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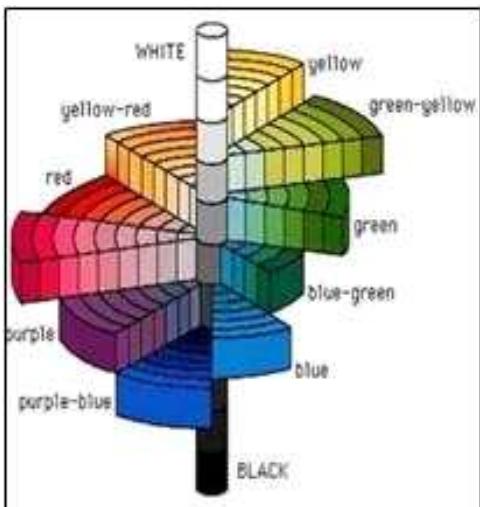
의미: 색상 5R, 명도 5, 채도 14라는 색



4) 먼셀기호와 대한민국 색채표준 가이드



5) 먼셀의 색입체



- 먼셀은 모든 색채를 색상, 명도, 채도의 종합이라고 정의하고,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일그러진 구의 형태로 색입체를 고안하였다.

색상은 색입체의 바깥 부분에 위치하고,
명도는 색입체의 중심축으로 무채색 11단계를 나타낸다.
채도는 색입체에서 수평으로 위치한다.

6) 먼셀 색체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① 삼속성에 의한 원통 좌표계로 표시하여 단순하고 알기 쉽다.
- ② 각 속성이 모두 십진수를 사용, 세계 각국의 산업기준으로 채용하는 예가 많다.
- ③ 가산혼합, 감산혼합 색채에 모두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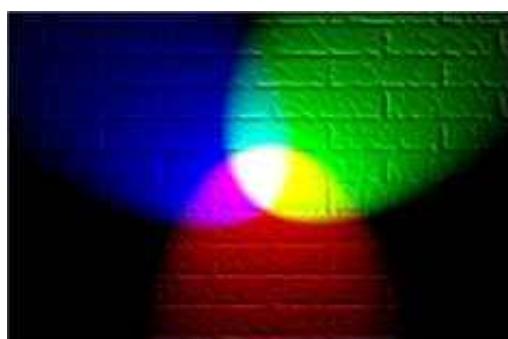
* 단점

- ① 색채의 번호는 색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② 채도가 같은 색끼리 등채도 색상환을 만들었을 때, 채도에 대한 느낌이 같지 않다.

7) 가산혼합 (RGB)

- RGB의 3원색을 혼합하게 되면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져 최종적으로 White(하얀색)가 되는 가산혼합의 원리에 의해 맑고 밝은 색을 얻을 수가 있는 원리.

- 일반적으로 RGB는 웹디자인과 화면용 이미지, CD-ROM, 모니터, 조명 등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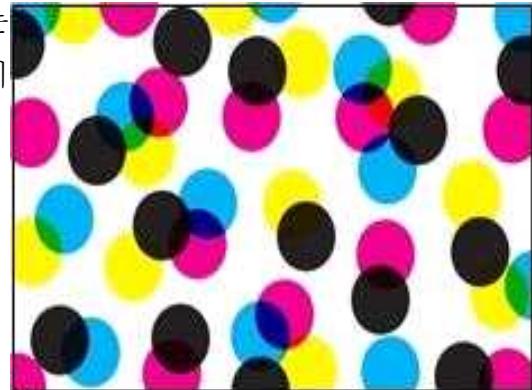


8) 감산혼합 (CMYK)

- 물감이나 잉크 같은 안료가 서로 섞일 때 일어나는 색의 혼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감산혼합'.

- CMYK는 잉크에 기초한 색상구현 원리로, RGB가 나타낼 수 있는 색상 수보다 CMYK가 나타낼 수 있는 색상 수는 적음. 색 표현 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RGB보다는 풍부한 색표현이 어려움.

- 모니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상이 인쇄물에서 똑같이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CMYK로 표현하기 위해 컬러차트를 사용하여 인쇄, 물감, 프린트 등 잉크를 이용한 제품들에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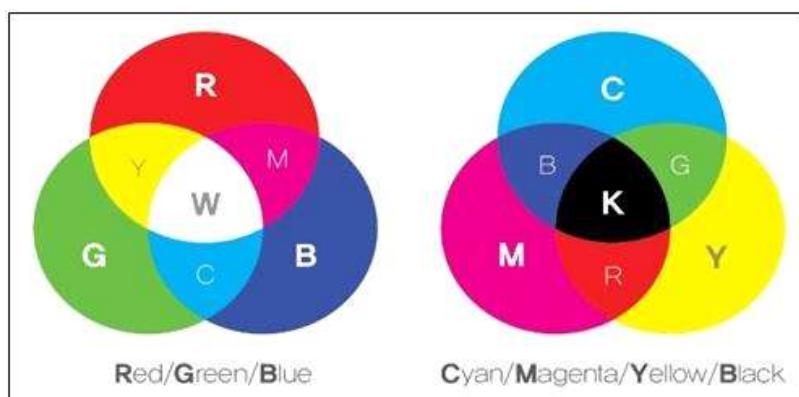


3. 오스트발트의 색체계

- 독일의 물리화학자, 노벨 화학상 수상(1909)
(Wilhelw Ostwald, 1853~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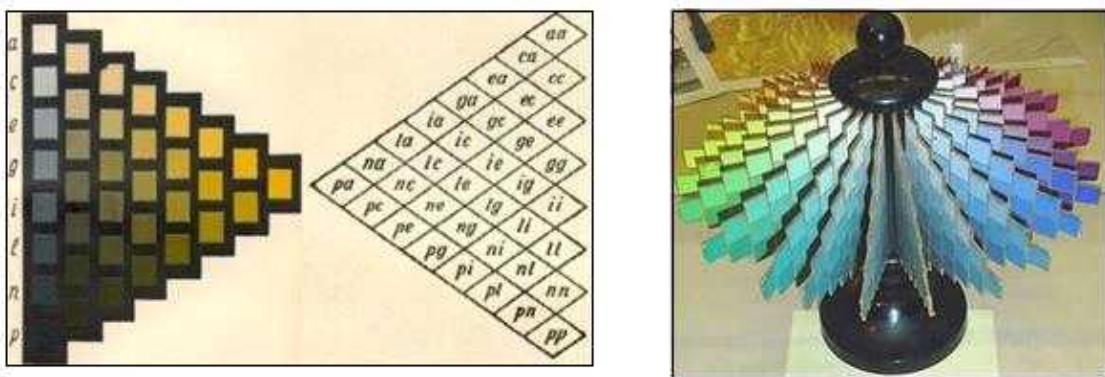
1) 오스트발트 표색계 (表色系)



- 백(W): 모든 빛을 완전하게 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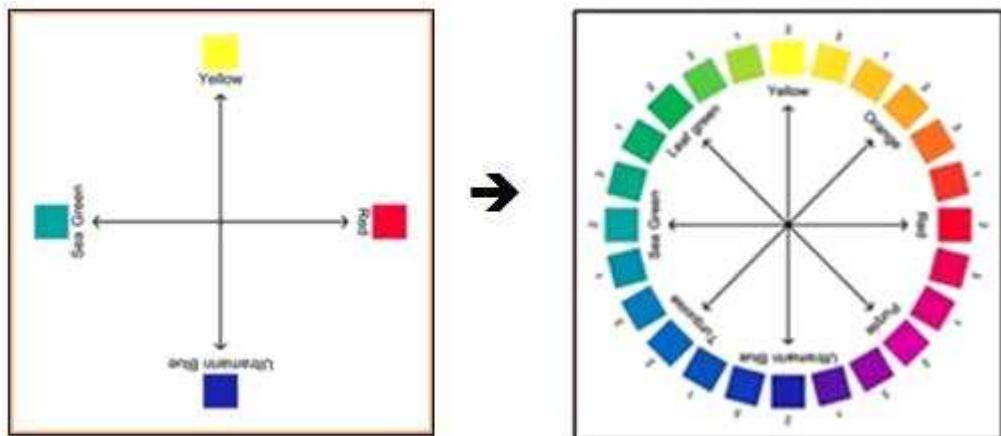
- 흑(B): 모든 빛을 완전하게 흡수
- 순색(C): 특정 파장 영역의 빛만을 완전히 반사하고 나머지 파장 영역을 완전하게 흡수
-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3가지 요소를 가정하여, 이 3가지 색의 혼색으로 물체의 색을 체계화하는 색 삼각좌표(色三角座標)를 고안.

2) 오스트발트의 색입체



3) 오스트발트 색상환($4 \rightarrow 8 \rightarrow 24$)

- 기준 색상: 빨(Red), 노(Yellow), 초(Sea Green), 파(Ultramarine Blue)
- 중간 색상: 주황(Orange), 보라(Purple), 청록(Turquoise), 연두(Leaf green)



4) 오스트발트의 색채표기법

- 무채색은 완전한 흰색과 완전한 검정색 사이에 a, c, e, g, i, l, n, p 의 8단계를 포함하여 10단계로 나눔. 그러나 완전한 흑과 백은 없으므로 안료로서 발색이 가능한 것은 8단계.

- a는 가장 밝은 색표의 흰색, p는 가장 어두운 색표의 검정.
- 이 표색에서 백을 표시할 때는 색상 번호로 백색량과 흑색량을 붙여 나타냄.

기호	a	c	e	g	i	l	n	p
백색량	89	56	35	22	14	8.9	5.6	3.5
흑색량	11	44	65	78	86	91.9	94.4	96.5

예시) 15nc로 기록되었다고 하면 색상은 15이고, 백색량 5.6% 흑색량은 44%가 되며 따라서 $100 - (5.6 + 44) = 50.4\%$ 의 색 함유량이 된다.

5) 오스트밸트 색체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① 동색조의 조화되는 색을 선택할 때 편리하다(디자인 색채 계획에 활용도가 높음).
- ② 모든 색상이 정삼각형의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어 안료 제조 시 정량 조제에 응용이 가능하다.

* 단점

- ① 기호화된 정량적 색 표시 방법은 직관적으로 색을 예측하기 어렵다.
- ② 인접색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녹색 계통의 색은 섬세하나, 빨강 계통의 색 단계는 섬세하지 못하다.

제 3차시. 색채치료의 역사와 론(論)

I . 색채치료의 역사

1. 색채치료의 역사

색채치료는 직접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색을 이용하여 신체의 자연적 치유능력을 강화시켜 신체적 · 정신적 · 영적 질병 등을 치료하는 것을 뜻한다. 동 · 서양을 막론하고 색채치료의 역사는 길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사장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이 사람의 신체적 · 정신적 · 영적 건강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색을 치료에 이용하였으며, 중국, 인도, 티베트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색을 이용한 치료가 실시되었다.

2. 국가별 색채치료

1) 고대 이집트

- 컬러를 이용한 의술은 다양한 신비술과 마술로 인정받은 헤르메스(Hermes)에 의해 시작되었다.
- 기원전 1500년경의 이집트 벽화에서 발견된 흔적

“눈에 멍이 들었을 때는 날달걀로 문지를 후
빨간 잉크에 염소기름과 꿀 섞은 것을 처방한다.”

- 에마랄드 서판(Emerald Tablet)의 기록
- 이집트 주술사: 붉은색으로 주문을 써야만 악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음.

2) 고대 그리스, 로마

- 히포크라테스: 색채에 관련된 미신을 거부하고 의학적으로 색을 연구. 체액론을 근거로 하여 4가지 원소인 불, 물, 공기, 흙은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아우렐리우스 켈수스: 로마의 의사. 기원전 1세기경 붉은색 반창고를 사용하였다.

3) 고대 바빌로니아 (기원전 612년)

-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햇볕을 쬐는 일광욕을 하고, 크리스탈과 보석의 빛의 의미를 알아 차리고 질병 치료를 위한 매개체로 사용.

4) 고대 중국 (西周時代: 기원전 8~11세기)

- 문현(天宮)에 사람의 생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오색(五色)을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음.

5) 인도

- 인도의 힌두교: 赤, 黃, 靑, 綠색의 용기에 물을 담아 햇빛에 노출시킨 다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을 사용.
- 색에 따라 활동적으로 되거나 온순해지기도 하고, 아픈 사람의 통증과 고통을 달래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음.
- 육체의 에너지를 7개의 차크라로 나누어 각각의 차크라가 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에너지를 조정하며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밝혀짐.

3. 19세기 색채치료

1) 아우구스투스 플리슨턴(Augustus Pleasanton)

- 1876년. 『청색과 태양광(Blue and Sun-light)』 저술. 청색광이 지닌 치료적 효과에 주목
- 사람, 동물, 식물 도움. 청색광이 신경계를 자극하여 질병 치료, 성장 촉진, 다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2) 에드윈 베빗 (Edwin Bebbitt)

- 1878년. 『빛과 색의 원리』, 『베빗박사의 색채치료』 저술. 전세계 7개 국어로 번역. 태양광의 에너지는 모든 동식물의 근원적 활력을 유지. 뺨강, 파랑, 노랑을 중요시하여 치료에 적용.

4. 20세기 색채치료

1)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

- 괴테 사후에 전집을 정리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아 색채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색채세계의 고찰」을 1907년에 발표하였다.



- 슈타이너는 색에는 각각 상(像)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은 생명의 죽어가는 영상, 살구색은 혼의 살아있는 영상, 백색은 영의 혼적인 영상, 검은색은 죽음의 영상으로 나눔. 색채 속에는 항상 영상이 존재하고, 색채는 어떤 경우에도 현실적인 것이 아닌 영상이며, 그것은 때로 생명, 혼, 영 또는 죽음의 영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여기에는 네 가지 색의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 그는 색채 원근법에서 멀고 가까움은 선 원근법이나 단축법과는 달라서 물질 공간 내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히 평면상에 머물면서, 그 평면성에 의식을 집중하여 그 속에 몰입함으로써 그 평면 속에 3차원 공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멀고 가깝다는 것은 물질계와 영계간의 거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II. 색채론의 역사

1. 뉴턴의 색채론

- 아이작 뉴턴 경(Sir Isaac Newton, 1643~1727)
잉글랜드의 물리학자, 수학자



1) 뉴턴의 분광실험

- 햇빛은 무색인데 무지개는 왜 여러 색인가? 아リスト텔레스를 비롯해 고대 그리스 학자들

은 색을 물체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빨간 것은 사과가 고유한 성질인 빨간색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은 17세기 중반까지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공기 중의 물방울과 무지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무지개 색은 빛과 물방울의 그림자가 적당한 비율로 섞여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처음으로 빛을 나눠 무지개 색을 보여주는 실험을 기록한 사람은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였다. 그는 무지개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실험을 그림으로 남겼는데, 이 실험에서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구멍을 지나 벽에 비치도록 했다. 데카르트는 붉은색과 보라색이 항상 같은 위치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프리즘에 비친 햇빛과 프리즘을 통해 여러 색깔을 띤 광선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 뉴턴은 데카르트, 후크, 보일 등 유명한 저작들을 섭렵했지만 이들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스스로 기구를 만들어 실험에 착수했다. 뉴턴이 색에 관한 실험을 시작할 당시의 통념은 햇빛 같은 백색광은 단색이고, 노랑과 파랑 등 여러 가지 색은 이런 백색광이 변형돼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뉴턴은 우선 기본적인 실험을 했다. 검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이 구멍을 통과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얻은 단색광을 다시 검은 종이 위의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켰다. 그렇게 얻은 단색광을 또 다른 검은 종이 위의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켜 두 번째 프리즘을 지나게 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한 빛이 보라색이면 붉은색보다 더 많이 꺾여 마지막에 놓아둔 스크린에 색이 나타났다. 뉴턴은 이 실험으로부터 프리즘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결정적 실험’은 이 실험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결정적 실험에서 뉴턴은 첫 번째 프리즘으로 나눈 빛을 볼록렌즈를 이용해 다시 합쳤다. 합쳐진 빛이 두 번째 프리즘을 거쳐 세 번째 프리즘을 지나면서 무지개 색들로 나뉘는데 첫 번째 프리즘에서 나온 색들과 세 번째 프리즘에서 나온 색들이 차이가 없었다.



뉴턴이 〈광학〉에서 소개한 ‘결정적 실험’ 상상화

출처: 위키백과 공용이미지

- 마지막으로 뉴턴은 여러 가지 물체에 단색광을 비춰 봤다. 종이, 재, 납, 구리, 금, 은, 동, 유리, 파란색 꽃, 물방울, 공작새의 깃털 등 다양한 물체들에 단색광을 비춰 본 뉴턴은 붉은 빛을 비추면 물체들이 붉은색으로 보이고 파란 빛을 비추면 파란색으로, 초록빛을 비추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 색이 물체에 고유한 성질이라기보다는 빛에 의해 보여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뉴턴 자신은 이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접하는 햇빛이 여러 가지 단색광들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밝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뉴턴은 빛이 입자로 이뤄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2) 뉴턴의 빛과 색에 관한 이론

- 프리즘을 통과한 단색광은 더 이상 다른 색으로 나뉘지 않음.
- 색깔에 따라 굴절률이 다름(빨간색은 적고, 보라색은 많음).
- 뉴턴의 반사 망원경: 1671년 색수차를 없앤 망원경 제작 후 왕립학회 보고.

2. 괴테의 색채론

- 존 볼프강 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독일의 작가, 철학자, 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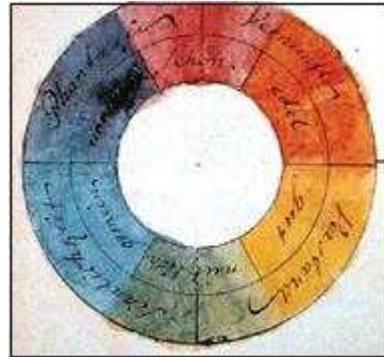
- 41살이 되던 해, 프리즘으로 실험을 하던 중, 흰 벽은 여전히 흰 벽이며, 검은색 그림이 그려진 흰 벽을 바라봤을 때 흰색과 검정색의 경계에서 노랑, 파랑, 빨강이 나타난 것을 관찰.
뉴턴의 백색광에 다양한 색이 혼합돼 있다는 이론이 흰색과 검은색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괴테의 해석.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모든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창하였다. 이를 1810년 ‘색채론’으로 출판하게 된다.

1) 괴테 『색채론』의 구성 원리: 양극성, 상승, 총체성

- ① 양극성: 색채는 인간의 눈에 들어온 감각적인 현상이며, 색채는 밝음과 어둠의 양극적 대립 현상이 있다.

+	-
밝음, 빛, 강함, 열기, 가까운, 작용, 황색, 산성과 인척관계	어둠, 그림자, 약함, 냉기, 면, 탈취, 청색, 알칼리성과 인척관계

② 상승: 프리즘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들여다보면, 황색은 주황색을 거쳐 적색으로 상승(짙어지는 대신 어두워 짐)하고, 청색은 청자색으로 상승한다. 상승된 대립색들인 적색과 청자색이 결합하면 자색이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색채를 간의 대립 쌍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색채환(色彩環, Farbenkreis)이 완성되었다.



〈괴테의 색채환〉

③ 총체성: 총체성의 원리는 앞의 두 원리에 의해 생겨난 색들이 그 대립과 조화된 모습을 색채환의 원주 상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눈은 색채환 상에 있어서 정반대 편에 있는 색을 생성시킨다. 이처럼 각각의 유도색은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피유도색을 생성시키며, 그러한 대립색들로써 색채환 전체가 메워지게 된다. 이처럼 결합된 구성요소들이 총체성 속에서 그 조화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화로운 대립들에서 생겨난 이러한 총체성의 심미적 효과에 대해 괴테는 "자연은 총체성을 통해서 자유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로써 정리하였다. 색채 현상의 총체성은 시각(視覺)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자연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2) 괴테 『색채론』에서 색의 분류: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

① 생리색: 생리색은 색채를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색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괴테의 색채론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을 이룬다.

예시) 선명한 유색의 종이를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판지 앞으로 갖다 댄 후, 그 조그마한 유색의 표면을 어느 정도 응시한 후에 눈을 움직이지 말고 그 조각을 치우면, 바로 그 자리에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이 생겨나는 현상.

② 물리색: 생리색과 인접해 있으면서, 미미한 정도로 보면 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물리색이라 한다. 물리색은 그것이 생겨나는데 특정한 매질이 필요한 색을 말하며, 그 대

표적인 것이 굴절색이다. 이것은 빛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흐릿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예시) 태양 그 자체는 무색이지만, 흐린 매질을 통과하면서 황색으로 나타남. 또 암흑은 흐린 매질을 통과하면 청색으로 보임. 일출과 일몰시에 하늘이 불그스레하게 보인다든지, 멀리 있는 풍경이 푸르스름한 색으로 보이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

③ 화학색: 가장 객관적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정한 물체들에서 유발되고, 다소간 고정되고, 상승되고, 다시 그 물체들에서 떼어내어 다른 물체들에 전이하는 내재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화학색이다. 이를테면, 강철은 불에 달구면 황색에서 적색을 거쳐 청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색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색채환이라고 하며, 화학색은 주로 산과 알칼리의 대립에 의해 생겨난다. 즉 황색은 산의 속성, 청색은 알칼리의 속성을 가진 것이다.

예시) 윤을 낸 은쟁반 같은 것에 생채기를 내고 빛에 비추어 보면 다채로운 색(특히 녹색과 자색)이 나타남.

3) 뉴턴과 괴테의 색채론 비교

- 뉴턴은 프리즘으로 분리되는 무지개 색들을 주체와 무관하게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던 반면, 괴테는 색이란 주체와 대상이 만나 어우러지는 것이며 빛과 어둠의 상호 작용이라고 보았다.

- 뉴턴의 색채론: 물리적 질서 ↔ 괴테의 색채론: 정신적인 질서

- 하이젠베르크는 이 두 색채 이론 중 어느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상보적인 두 접근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제 4차시. 색채 지각

I. 색채의 지각현상

1. 색채지각의 구성

1) 정의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등의 물리적 현상이 눈을 통해 인식되는 현상.

2) 색채지각의 3요소

빛(광원) / 물체 / 관찰자(눈)

3) 눈의 구조

눈은 빛의 자극을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여 색을 구분하는 신체기관.

4) 빛의 전달과정

빛 → 각막 → 홍채 → 수정체 → 망막 → 시신경 → 뇌



카메라	인간
렌즈뚜껑	→ 눈꺼풀
렌즈	→ 각막
렌즈	→ 수정체
조리개	→ 홍채
필름	→ 망막

2. 시세포의 구성

- 시세포란?: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세포, 망막에 존재 (망막에는 추상체와 간상체라는 광수 용기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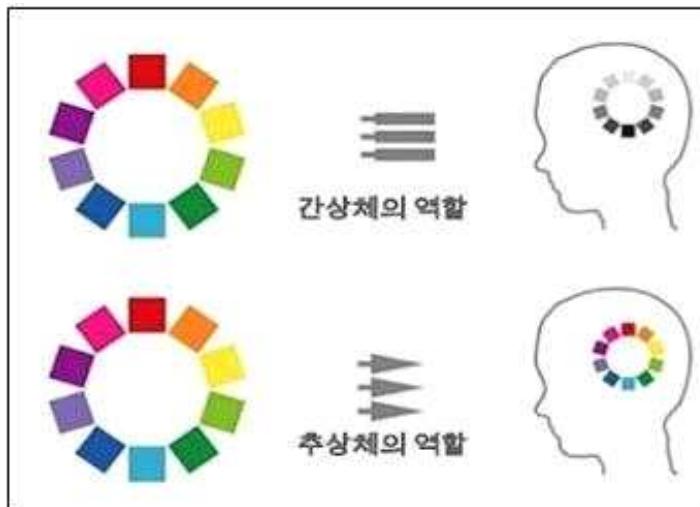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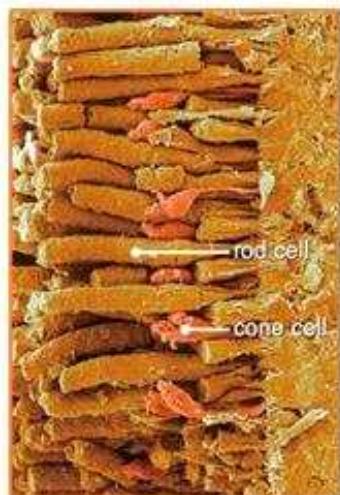
1) 추상체 (CONE) - 원뿔세포

- 밝은 곳에서 작용(명소시). 색을 판단하며 망막중심에 약 600만개 분포.
-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 감지세포 3가지로 이루어짐.

2) 간상체 (ROD) - 막대세포

- 어두운 곳에서 작용(암소시). 명암 판단.
- 망막 주변부에 약 1억 2천만 개 분포
- 포유류: 간상체 발달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유)

3) 눈의 시세포와 역할



3. 색각 이상

1) 색의 인식

- 원뿔세포(Cone cell)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색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색각 이상 현상 발현.

2) 색각이상자의 비율

- 세계 인구 중 남자의 8%, 여자의 0.5%에서 색각 이상 국내 인구 중 남자의 5.9%, 여자의 0.4%(약 150만 명)이 색각 이상자로 조사되었다(2014년).

3) 색각이상의 유형

① 적록색맹: 적색과 녹색의 구분을 못함.

② 청록색맹: 청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함



정상인



적녹색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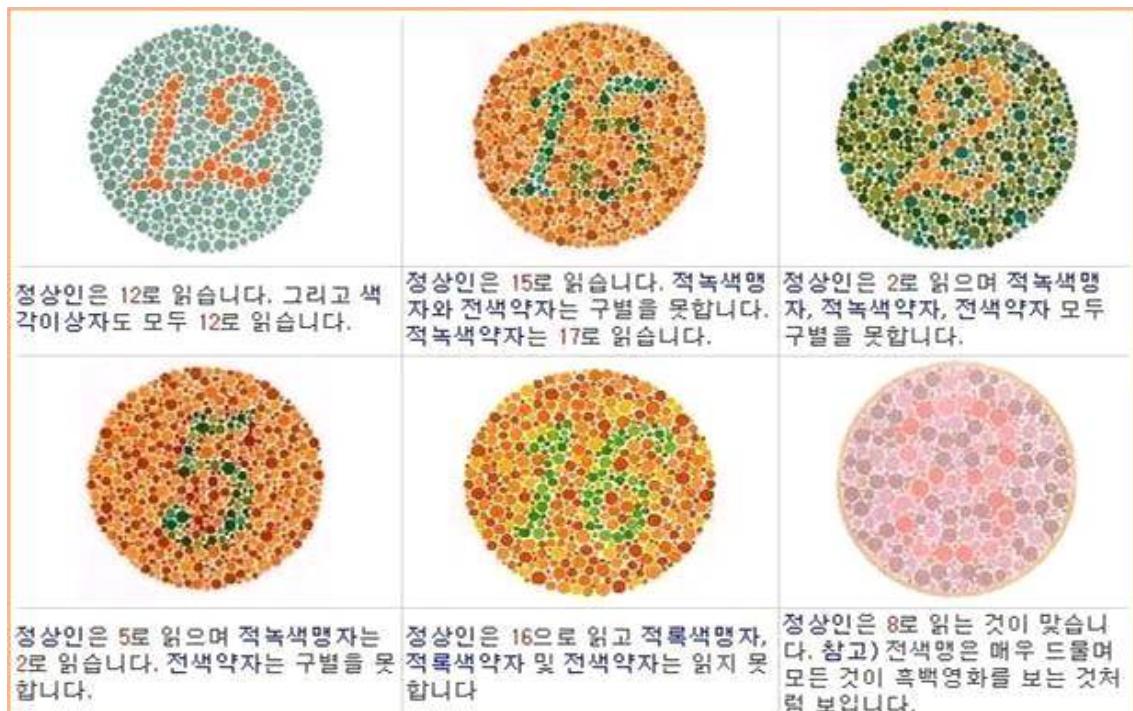
정상인



청록색맹

③ 전색맹 - 색을 전혀 구분 못함. 명암 대비로만 시각정보를 인식함(흑백영화).

4) 색맹, 색약 검사



출처: Google 이미지

II. 색채지각의 특성

1. 색의 무게

1) 중량감

- 색의 중량감이란 색의 밝기와 어두움에 따라 무거움과 가벼움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명도에 의하여 결정됨)
- 낮은 명도 → 무거움: 무쇠
- 높은 명도 → 가벼움: 알루미늄



2) 경연감

- 경연감은 색의 채도와 명도에 따라 결정된다.

- 높은 명도 & 낮은 채도 → 난색계통 → 부드러움
- 낮은 명도 & 높은 채도 → 한색계통 → 단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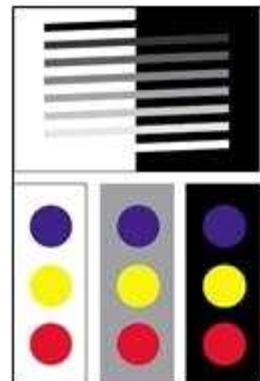


2. 색의 대비

1) 명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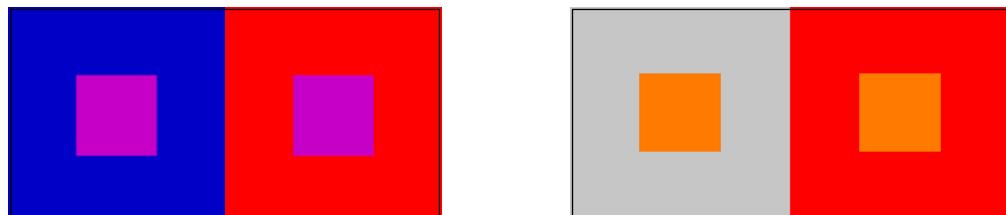
- 명도가 서로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 색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다.

→ 이러한 현상은 명도 차가 클수록 더 강하게 보인다.



2) 색상 대비

-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색이 서로 대비되었을 때 원래의 색보다 색상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한다.



3) 보색 대비

- 보색끼리 대비되었을 때 서로 채도가 높아 보이며 색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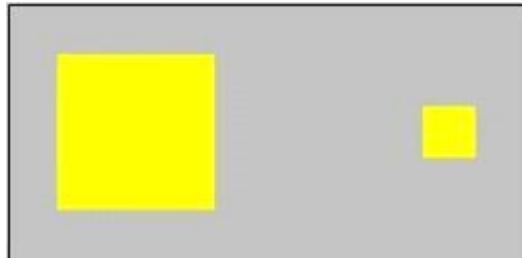
→ 이유는 각각의 보색 잔상이 상대색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4) 면적 대비

- 동일한 색이라도 면적이 커지게 되면 명도와 채도가 증가되어 더욱 밝고 채도가 높아져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 채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색상이 뚜렷해지는 현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색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2. 색채지각의 속성

1) 유목성(誘目性)

- 유목성이란: 어떠한 색이 사람의 주의를 얼마나 끄는가를 말하는 색채지각의 속성이다.

빨강, 주황 노랑 > 초록, 파랑, 보라
(인간의 눈은 난색계열에 빠른 주의력을 보이는 속성이 있다.)

- 스테폴즈(R.Staples)는 생후 2개월의 유아가 유채색과 무채색을 구별하는지 실험으로 알게 되었으며 만 2세 이후부터는 적, 황, 녹, 청 등의 차이도 알고 특히 적과 황에 대해선 손을 뻗치고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생활 속의 유목성을 이용한 예시: 광고판 또는 경고판〉

2) 명시성

-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어 주목하게끔 하는 성질이며, 유목성과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명시성(쉽게 읽히느냐)은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가독성과 판독성 즉, 얼마나 잘 눈에 띠는가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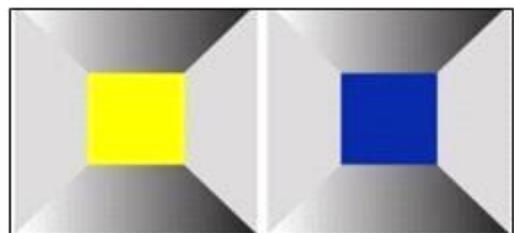
- 흰색에서 명시성이 좋은 색상은 초록, 빨강, 파랑이다.



<생활 속의 명시성을 이용한 예시: 도로 및 교통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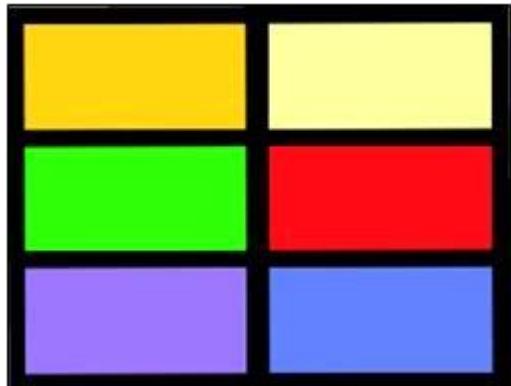
3) 진출과 후퇴 / 수축과 팽창

- 따뜻한 색이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앞으로 나와 보이며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진출되는 느낌을 준다.



-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거나 크게 느껴
지며,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이 외부로 확산되어
보인다.

- 수축이나 팽창은 절대적이 아니라 심리적 차이
라는 사실을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은
공간 효과 실험을 통해 밝혔다. →



〈정물화에서 볼 수 있는 진출과 후퇴: 어두운 뒷 배경보다 앞의 천이 더 진출해 보인다.〉

제 5차시. 색채치료의 특징과 종류

I . 색채치료의 특징

1. 보완 의학으로써의 색채 치료 (색채요법)

1) 정의

- 각각의 색에는 고유진동과 주파수가 있으며 이렇게 각기 다른 성질이 있는 색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색채요법이라 한다.

- 인체의 100조개 세포들은 각각 생체광자(biophoton, 生體光子)라고 하는 극히 미약한 빛을 발하고 있으며, 이 생체광자도 빛이므로 스펙트럼이 있어 색을 발생하는데 이 색에는 저마다의 온도(溫度)와 파장(波長)이 있다.

- 병인론(病因論): 세포에서 발하는 전자파의 파장이 어떤 이상이 생겼을 경우 각각 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생체광자(生體光子)가 발하는 색의 온도나 파장이 질병으로 이상이 생긴 세포의 광 에너지에 바로 반응하는 색과 색온도나 파장과 일치했을 때 이상세포가 즉시 정복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2) 특징

① 증거에 기초한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다.

→ 색채에 의한 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른 치료과정 그리고 그 결과와 치료효과 또는 평가를 그 자리에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다.

② 양자색역학에 근거한다.

→ 전자파에 의한 것이므로 시술의 과정은 빛의 속도로 작용하며 실제 시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3-5초 정도에 불과하다.

③ 부작용이 전혀 없다.

④ 치료과정에서 불편과 고통이 없다.

⑤ 치료과정의 장기성, 경제성 및 편의성이 좋다.

2. 심리상담으로써의 색채 치료

1) 목적

-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의 감정들을 인지적인 요소를 통해 통합하고,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색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본래적 자기 색(self color)을 찾도록 돕는다.
- 색채치료는 기억의 경험을 통한 상상력을 고취시켜 우울정서경험이나 행복의 경험을 창조적인 과정으로 통찰하여 생명 에너지와 리듬을 시지각의 특성인 내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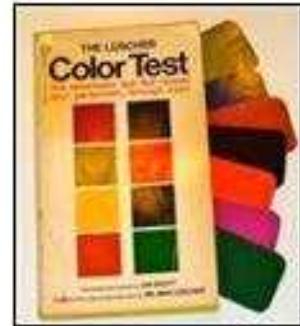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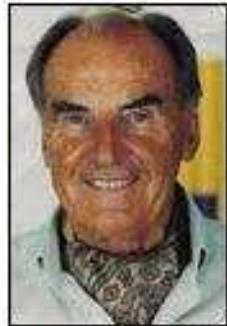
2) 특징

- ① 색채치료는 기억의 경험을 통한 상상력을 고취시켜 우울정서 경험이나 행복의 경험을 통찰하여 생명 에너지와 리듬을 시지각의 특성인 내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야 함.
- ② 생명 에너지로써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의지 표현인 역동성과 창조성을 갖는 것.
- ③ 색채는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잡다한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감각적 요소들을 지각하는 데 과정을 의미 있게 조직하는 심리적 과정을 빛과 색채를 활용한 치료를 통해 뇌 의식구조의 역동성이 일어남.
- ④ 색채치료에서는 창조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동적 사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결과정에서 감각, 지각의 경험과 창조적인 사고와 동일시되어야 함

II . 색채치료의 종류

1. 막스 뤼셔의 컬러테스트

- Max Lüscher (1923 - 2017). 스위스. 심리치료사, 철학 및 심리학 박사.
- 1947년 자신의 색 선호도에 따라 개인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인 ‘뤼셔컬러 테스트 (Luscher Color Test)’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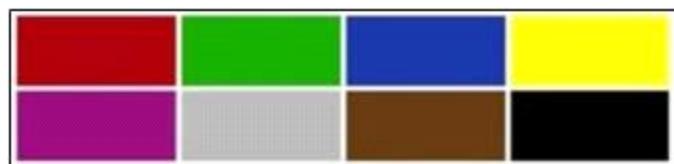


1) 뤼셔의 자기조절 심리학

- 막스 뤼셔는 사람은 누구나 4색(청: 만족 녹: 자존 적:자신 황: 내면의 자유)에 해당하는 네 가지의 자기감정을 소유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상적인 경우 이 네 가지 자기감정은 의식되지 않으며 균형을 이룸 → 마음의 균형을 잃을 때 이 중 한 가지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수학적인 관계에 비례될 만큼 법칙적
- 정신의 이러한 조절 체계는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서가 아니라 정신 내부에서 찾는 것을 가능케 한다.

2) 뤼셔의 컬러 테스트

- ① 내담자에게 8개의 컬러 카드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빨강, 초록, 파랑, 노랑, 보라, 회색, 갈색, 검정)



“ 8개의 컬러 카드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

- ② 내담자가 고른 카드를 2개씩 묶어서 해석해준다.(예시 ↓)



A, B - 삶의 목표를 위해서 당신이 선택하는 본질적인 방법.

C, D -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현실, 또는 상황.

E, F - 억압받고 있는 잠재적 성향.

G, H - 완전히 거부되거나 또는 당신이 외면하는 감정.

③ 막스 뤼셔의 컬러 심리

Blue: 만족감, 조화, 소통(자기표현), 평화

Green: 자존심, 고집, 관찰력

Red: 자신감, 적극성

Yellow: 좌뇌 활성화, 내면의 자유, 낙관주의, 진취적

Grey: 중립, 절충, 통제, 보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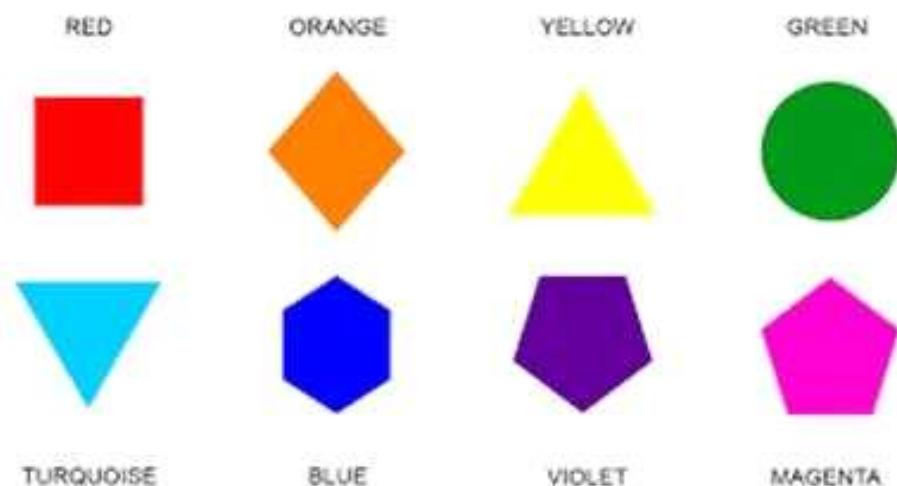
Brown: 육체적 욕구, 감각적인, 게으른

Black: 공격성, 부정

Violet: 창조적 상상, 허영심, 초월성, 자기중심적

2. CRR 분석법(Color Reflection Reading)

- 하워드 선과 도로시 선 부부(Howard and DorothySun)가 1986년에 개발한 색채 심리 검사이며, 그들은 막스 뤼셔의 컬러카드의 색채가 어둡고 우울한 색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밝고, 생동감 있는 색채와 도형의 모양을 이용하여 새로운 컬러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법도 왜 도형의 모양을 각기 다르게 제시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1) 테스트 순서

①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8가지 도형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도형이 아닌 색깔)을 고르게 한다.

② 상담사는 내담자가 선택한 색깔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늘어놓고 다음의 의미에 따라 분석과 해석을 해 준다.

〈순서가 가지는 의미〉

① 첫 번째: 첫 번째로 고른 색은 개인의 본질, 즉,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한다. 솔직한 자기 자신의 표현이자, 기본 성격과 상황에 따른 반응 및 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

② 두 번째: 두 번째로 고른 색은 내담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의미한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금 어떤지 무의식의 욕구를 반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③ 세 번째: 세 번째로 고른 색이 갖는 의미는 바로 내면적 비전으로, 자신의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이다. 내담자의 소망과 비전, 꿈을 반영한다.

〈순서에 따른 색상의 의미〉

① 첫 번째 색상의 의미

- 레드: 남을 따르기보다 먼저 앞서 이끄는 성격으로 사교적이며 지도력이 있다. 경쟁심이 강하고 정열적이다. 목표 달성, 성공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며, 계획이나 전략보다 결단력을 믿고 목표를 향해 행동한다. 끊임없이 에너지가 솟구치는 당신, 논리와 감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자.

- 오렌지: 경쾌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인생을 즐기면서 어느 곳이든지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지나친 활동은 피로를 부를 수 있다. 균형

있게 일의 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려고 노력하자.

- 엘로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지적이고 분석적이다. 지배하기보다 우월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한다. 말솜씨가 뛰어나 말이나 숫자 관련 일에 참여하며, 책임감과 권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울린다.

- 그린: 언제나 균형을 추구해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며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능률적이고 성실하며, 깔끔하고 단정하다. 자연에 탄복하며 탁 트인 공간과 자연 소재 제품에 매력을 느낀다.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지나친 조심성을 가진 당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 터키: 겉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빠른 결단과 행동으로 장애물에 대처하는 모습과 편안한 대화 방식은 인기 요인이 되며,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목적이나 방향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반영시킬 수 있다. 너무 영적인 면에 치중하기보다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자.

- 블루: 부드럽고 온화하며 쉽게 흥분하지 않는 성격은 다른 이들에게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해 진실함을 자산으로 여기며, 믿음직하고 충실하다. 안정된 에너지를 발산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고립과 자신감 결여로 이어지니 주의하자.

- 바이올렛: 신비함과 정신적 세계에 관심이 많아 영적인 면을 활용하지만 현실에는 잘 적응한다. 의미가 있는 봉사를 원하며, 고상하고 예술적 표현력이 뛰어나 예술, 종교 등의 활동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다. 설정한 비전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 부족을 이겨내자.

- 마젠타: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낼 줄 아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 인생에 대한 성숙한 이해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려 노력한다. 타인과의 협응력이 뛰어나 상담이나 간호사, 사회사업가 같이 타인을 보살피는 분야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② 두 번째 색상의 의미

- 레드: 나를 자극하고 분발시켜야 할 때. 몸이 지치지 않도록 신체적 힘을 기르고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며 인내심을 가지려 노력하자.

- 오렌지: 내적으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강압적 태도가 자주 보일 수 있으니 느긋하고 편안하게 나에게 시간을 주자.

- 엘로우: 현재에 맞는 에너지를 표현할 때. 너무 앞선 아이디어는 불만족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니 현실을 인지하자.

- 그린: 내면의 상처를 돌봐야 할 때. 감정을 억누르고 솔직한 표현을 어려워해 위축감을 느낄 수 있으니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아보자.
- 터키: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할 때. 당신의 에너지에 이끌린 사람들의 요구로 자신만의 공간을 침범당한 지금, 심신의 정화가 필요하다.
- 블루: 침묵을 깨야 할 때. 고요함과 평화로운 외면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우울과 의기소침에 빠질 수 있으니 자기 표현력과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바이올렛: 자신을 믿고 성숙해져야 할 때. 뛰어난 능력에 비해 자긍심이 부족한 당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찾기보다 성실하고 끈기 있는 상황 극복을 통해 성장해보자.
- 마젠타: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할 때. 타인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협조는 나의 욕구에 대한 가치를 잊게 만들 수 있으니 의무적 보답은 자제하자.

③ 세 번째 색상 의미

- 레드: 생각해 둔 새로운 일에 대한 행동을 미루지 말고 현실에 집중해 기회를 잡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재충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 파란색은 에너지 보충을 도울 수 있다.
- 오렌지: 순간적 충동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건설적으로 행동하자. 내적 위축으로 인한 선택이라면 용감한 행동력과 인생을 즐기려는 의지를 찾아야 한다.
- 옐로우: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행동하자. 휴식의 필요성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데, 이때 충분한 태양빛을 받아보자. 또한 나의 지식을 유익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일 때 타고난 직감과 지혜를 활용하면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다.
- 그린: 편안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나의 가치를 찾아보자. 인생을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통해 상실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 터키: 변화와 도전을 통해 인생의 성장을 도모하자. 인생의 시련과 장애물을 반기고 도전 정신으로 이겨나가면 활력과 강인함으로 보상된다.
- 블루: 삶의 순리를 깨닫고 매일 매일의 현실에 평범함을 중요시하자. 생각이나 명상만이 전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순조롭게 적응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 바이올렛: 타고난 능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 특별한 치유력을 타인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을 믿고 그 능력을 같고 닦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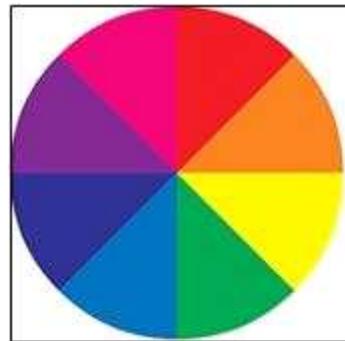
- 마젠타: 이미 목표를 향해 노력 중이거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상태. 이럴 때 일수록 자만과 우월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보색과 의미

- 내담자가 선택한 3가지 색 가운데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보색에 들어있는 경우, 조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 두 색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내담자의 인생에 균형감각과 매끄러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한다.

-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 해서 결과가 부정적은 아니다. 따뜻한 색이 많은지, 차가운 색이 많은지 판단한다.



3. 오라소마(Aura Soma) 테라피

1) 의미와 기원

- Aura는 모든 사람을 둘러싼 전자기장을 말하며, Soma는 신체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 1983년 영국의 맹인 약제사인 빅키 월(Vicky Wall)에 의해 창안되었다.

- 실명에 대한 반대급부로 빅키 월은 내면에너지를 느끼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였다.

→ 명상을 하던 중 실험실로 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는 것처럼” 식물과 허브의 색, 기름, 물을 결합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2) 테스트 순서

① 내담자가 마음에 드는 색깔의 병을 4개 선택하도록 한다.(예시 ↓)



- 첫 번째 병: 내담자의 건강상태와 영혼의 상태.
- 두 번째 병: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 세 번째 병: "지금 여기" 와 첫 두 병에 설명된 가능성 및 도전과 관련하여 내담자를 나타내는 것.
- 네 번째 병: 당신이 가고 있는 곳, 자신을 향한 에너지, 그리고 창조하려는 미래.

② 치료사는 내담자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빛깔 오일 병들을 분석할 것이다.



③ 오일 병들은 치료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조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때로는 피부에 직접 바르기도 한다.

3) 오라소마 색상의 의미

빨간색: 에너지, 접지, 생존 문제 및 물질적 측면

산호: 짹사랑

주황색: 독립/의존성, 충격, 외상, 깊은 통찰

금: 지혜와 강렬한 두려움

노란색: 지식 습득

올리브: 명확성과 지혜를 위한 공간 만들기

녹색: 우주, 진실을 찾으십시오, 파노라마 의식

청록색: 대중 매체/그룹 커뮤니케이션, 창조적인 의사소통(예술)

파랑: 평화와 의사소통

감청색: 왜 여기 있는지 아는 것

바이올렛: 영성, 치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마젠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사랑

핑크: 무조건적인 사랑, 돌보는

투명(흰색): 고통과 고통에 대한 이해

4) 오일 바틀(Oil bottle)

- 각 병에는 식물 추출물, 에센셜 오일 및 결정의 치유
에너지가 주입된 두 개의 다른 층이 존재. 바닥은
수성, 최상층은 유성으로 분리되어 병에 아름다운
투톤 모양을 제공.

- 미국 아리조나주의 Mil-Amo 에 ‘오라소마 협회’ 가
있으며 전 세계 치료사들에게 정기적 교육 실시.



제 6차시. 색채와 차크라

I . 차크라(Chakra)개론

1. 차크라(Chakra)개론

1) 정의



- 차크라: 산스크리트어로 “돌아가는 바퀴”라는 뜻이다.

- 우리 몸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몸 전체에 잘 흘러야 생존할 수 있다.

→ 고대 인도에서는 이러한 생명 에너지(프라나, Prana)가 우리 몸 속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존재한다고 믿음.

- 요가에서는 차크라에 에너지와 생각(감정), 육체가 하나로 모인다고 가르침. 차크라에는 우리의 의식(마음)이 투영되며, 이것이 곧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인간이 외부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까지)을 결정한다고 주장함.

2) 이해

- 차크라가 불균형 상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며,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명상은 내면의 자아와 연결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차크라는 개인적인 성장과 깊은 관계를 통해 정신적 조화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준다. 자신의 차크라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균형 잡힌 에너지를 발견함으로써 자기 자신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캐롤라인 미스(Caroline Myss)가 말했듯 “신체의 치유는 영혼의 치유에서 온다.”

3) 아우라(Aura)

- Aura: 라틴어로 인체에서 방사되는 영혼의 에너지(전자기장, 에너지장)로 차크라에 의해 형성되며 우리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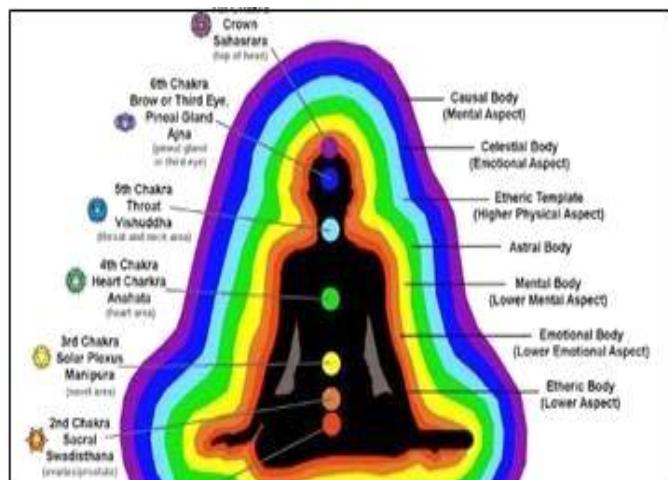
4) 차크라와 아우라(Aura)

- 차크라가 제대로 열려 있지 않거나 손상된 상태에서는 Aura도 미약한 빛깔을 띤다.

-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차크라도 활성화되고 Aura가 밝고 강한 빛을 띠며 복원력도 뛰어남.

- Aura가 위축된 사람은 불안, 초조, 두려움 등의 감정 상태를 가지게 되며 반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Aura는 위축되고 약해짐.

- Aura를 Chakra 색 에너지라고도 하며, 현대 과학은 이 Aura를 촬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



II. 차크라(Chakras)의 종류

1. 차크라의 종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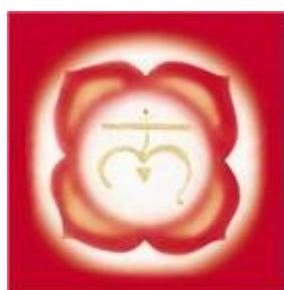
- 우리 인체안의 생명 에너지 집결소 Chakra는 약 8만 8천개의 차크라가 존재.
- 가장 중요한 7개의 차크라 중 6개는 척수를 따라 위치해 있고, 다른 하나는 두개골 최상부에 위치.



1) 물라다라 차크라(mūlādhāra chakra)

- 물라다라 차크라는 척추 기저부에 위치하는 '골반 신경총'으로 동물적, 원초적 본능의 영역'회음(會陰) 혈'에 해당.

- 영어: 루트 차크라(Root Chakra).
- 한국어: 근본 차크라.
- 위치: 척추 맨 아래 미저골(尾底骨)의 바로 밑에 위치,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이자 생명력의 근원인 쿠나다리(Kundalini)가 내재.
- 1~8살에 걸쳐서 발달. 동물적인 느낌의 차크라.
- 제1차크라가 막혀 있으면: 낮은 자존감, 생존의 위험, 스트레스에 취약.
- 제1차크라가 지나치게 열려 있으면: 약자를 괴롭힘, 자기중심적 성향, 물질에 대한 탐욕.



산스크리트 어이름	색	지배 감각	상징/원소	위치	신체 제어	병
muladhara	빨강	미각	정사각형 지구, 흙	골반 신경총 회음부	본능	치질, 난소염, 자궁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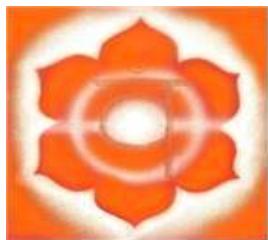
2) 스와디스타나 차크라(svādhiṣṭhana chakra)

- 산스크리트어로 ‘스와(sva)’는 ‘자기 자신’ , ‘아디스타(adhistha)’는 거주처란 뜻으로 자기 자신의 자리라는 의미.
- 전생의 기억이 내장되어 있는 곳이며 육체적인



추구, 욕구와 갈망의 영역.

- 육체적 생식기관과 배뇨기관에 해당되는데 생리적으로 남성의 전립 신경총과 여성의 자궁, 비뇨 신경총과 연관되어 있고 위치는 척추 끝, 미저골 부분(항문 바로 위에 감지되는 동그란 작은 뼈).
- ‘물 흐르는 듯한’ 의 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차크라.
- 제2차크라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같은 여성호르몬과 밀접한 관계.



산스크리트 이름	색	지배 감각	상징/원소	위치	신체 제어	병
svadhisthana	주황	미각	초승달, 물	하복부 신경총	성욕	당뇨, 암, 불임, 요통

3) 마니푸라 차크라(manipura chakra)

- 마니푸라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보석을 뜻하는 ‘마니(mani)’ 와 도시를 뜻하는 ‘푸라(pura)’로 이루어져 ‘보석으로 된 연꽃’이라는 뜻.
- 마니푸라는 육체적 건강을 완성시키는 신체 내에 있는 모든 중요한 생리 기관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 에너지(氣, 프라나)를 합성해내며 에너지 통로 내의 프라나의 순환을 돋거나 촉진.
- 제3차크라가 막혀 있으면: 일에 대한 의욕상실, 불안, 초조, 인슐린 저하.
- 제3차크라가 지나치게 열려 있으면: 급한 결정, 비판정신, 과다한 개인의 명예욕.



산스크리트어 이름	색	지배 감각	상징/원소	위치	신체 제어	병
manipura	노랑	시각	삼각형, 불	태양신경총, 배꼽	힘	위궤양, 담석증

4) 아나하타 차크라(Anahata Chakra)

- 아나하타(Anahata)란 ‘끊어지지 않는 상태’ 를 의미
- '심장 신경총'이 있는 '중단전'으로 임맥(任脈) - 옥당(玉堂)혈 사이에 위치, 신체 뒷면은 독맥(督脈) - 신주(神柱)혈
- 현대인들 대부분은 이곳이 막혀 있음. 이곳이 막히면 심장을 싸고 있는 연골이 굳어서 호흡하는 데도 심대한 영향을 줌.
- ‘끊임없이 일정하게’라는 의미로 계속되는 리듬으로 고동치는 심장과 연관.
- 아나하타 차크라는 축적된 에너지를 외부로 투사하는 첫 단계로,

심령과학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초능력은 제4차크라를 통해서 나타남. 약하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낀다.



산스크리트 어이름	색	지배 감각	상징/원 소	위치	신체 제어	병
Anahata	초록	촉각	헥사그램 (다윗의 별), 공기	심장 신경총중 단전	감각	심장병 출도 인후총 피부염

5) 비슈다 차크라(Vishuddha Chakra)

- 비슈다(Vishuddha)는 열린 마음을 나타내며 삶을 보다 큰 이해로 인도하는 경험의 제공자. 열린 사람은 삶 속에 불쾌한 일들을 피하고 기쁜 것만 추구하려는 노력을 멈춤.
- 비슈다차크라(Vishuddha Chakra)의 위치는 임맥(任脈)의 염천(廉泉)혈에 해당하는 인후이고, '경동맥 신경총'이 있음.
- 비슈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상념 파동을 받아들이는 센터. 식욕의 조절.
- 정신적, 정서적 문제: 선택과 의지력, 개인적인 표현, 꿈의 성취, 창조를 위한 힘의 사용, 탐닉, 판결과 비판, 신뢰와 지식, 결정하는 능력, 하위의 정신 능력 또는 현실 마음 센터.



산스크리트 어이름	색	지배 감각	상징 원소	위치	신체 제어	병
Vishuddha	파랑	청각	잔 spirit	경동맥 신경총	갑상선	갑상선 기관지염

6) 아즈나 차크라(Ajna Chakra)

- 권위, 명령, 무한한 힘, 동양의 상단전(上丹田)으로 신령(神靈)한 우주의식(宇宙意識)이며 무의식(無意識)인 창조적(創造的)인 신(神)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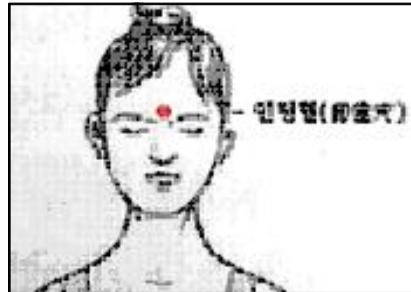
- 아즈나 차크라의 위치는 인체 전면 정중선 기혈(奇穴)인 인당(印堂)혈로 '송파선 신경총'이 위치하는 부위.

- 직관의 눈이 떠지고 진리를 터득하게 되며 지혜의 눈이 떠져 경전에 통달, 변덕이 사라지고 정묘한 지성을 습득.

- 이 에너지는 모든 가능성을 구체화시키고 현실에서 이루어 냄.

- 초인적인 힘, 흔히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영안의 차크라: 타인의 에너지를 읽거나 투시하고, 미래를 보는 예지능력.

- 인당에 의식을 집중하면 제6차크라를 각성시킬 수 있음.



산스크리트어이름	색	지배감각	상징/원소	위치	신체제어	병
Ajuna	인디고	초감각	날개달린 구, 빛, 마음	골수 신경총, 양미간	뇌하수체	뇌종양, 뇌출혈, 신경교란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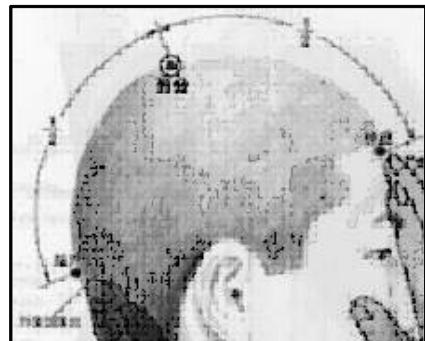
7) 사하스라라 차크라(Sahasrara Chakra)

- 사하스라라 차크라(Sahasrara Chakra)는 산스크리트어, 범어로 영광, 승리, 완성 등을 의미.

- 6개의 차크라들이 잘 운행되고 조절되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데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머리 주위의 빛(후광, 원광)은 '사하스라라 차크라'의 빛이며 일부의 심령과학자들은 이 차크라의 빛을 오라 (aura)라고 부름.

- 보통 사람도 수행을 통해 차크라들이 완전히 개발되면 누구나 머리에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전함.

- 해탈: 6개의 차크라들이 잘 운행되고 조절되면 스스로 빛을 발함. 요가를 행하는 이들이 이르고자하는 최고의 자리이며, 쿤달리니가 백회를 뚫고 나가 우주에너지와 일치되는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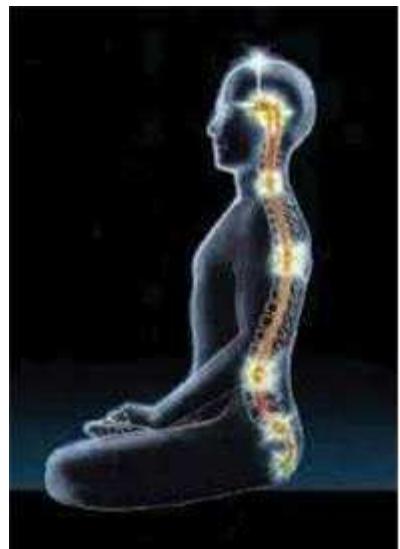


산스크리트 어이름	색	지배 감각	상징/원 소	위치	신체 제어	병
sahasrara	보라	영적 깨달음	연꽃 지복 기쁨	머리의 중앙 백회	송파선	정신병

〈쿤달리니(산스크리트어: Kundalini)〉

- 인간 안에 잠재된 우주 에너지. 이것은 생명과 영혼의 근원이며, 이것이 있으므로 살고 없어지면 죽는다. 이것을 잠에서 깨우는 자는 초인이 될 수 있고 못 깨우는 자는 속인으로 머문다. 산스크리트어인 쿤달리니는 '똘똘 감겨진 것'을 의미한다. 감겨있는 쿤달리니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에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다.

- 각 개인의 쿤달리니 에너지는 일생 동안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다.



제 7차시. 색채와 오행(五行)

I. 동양의 사상

1. 음양오행

1) 음양설

- 음양은 동양의 철학적 사고의 틀로써, 고대 중국인들은 모든 환경을 음양으로 해석하였다.
 - 우주나 인간의 모든 나눠진 현상은 음(陰)과 양(陽)의 쌍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예: 남과 여, 밤과 낮 등)
 - 세상을 음과 양, 2가지로 보는 이원론(二元論)은 중국 문명에서는 음과 양의 대립이 아니라 **음과 양의 균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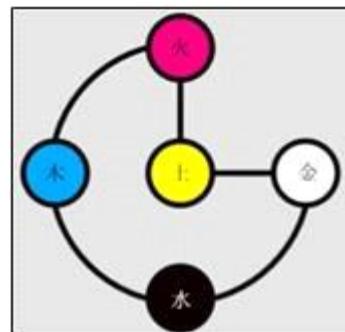


2) 음양사상

- 우주나 인간 사회의 현상은 하늘에 대해서는 땅이 있고, 해에 대해서는 달, 男에 대해서는 女, 강(姜)에 대해서는 유(柔)가 있는 것과 같이 서로 상대적인 성질이 존재. 이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환원시켜 플러스와 마이너스 교체 또는 소장(消長)의 변화에 의하여 우주 현상 및 인간 사회의 현상을 해석하려는 것이 음양사상의 배경이다.
- 음양사상은 상대적으로 사물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과학사상으로서도 우수하고, 철학적. 음양 사상을 근간으로 인간 사회의 현상을 예측하고 판단하려고 한 것이 '역(易)'의 생각하는 방법과 같다.

3) 오행설

- 오행(五行)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섯 가지 재료로서, 음양과 함께 우주의 질서를 해석하기 위한 중심개념이다.
-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 오행이 최초로 언급된 곳은 중국 고서인 상서(尚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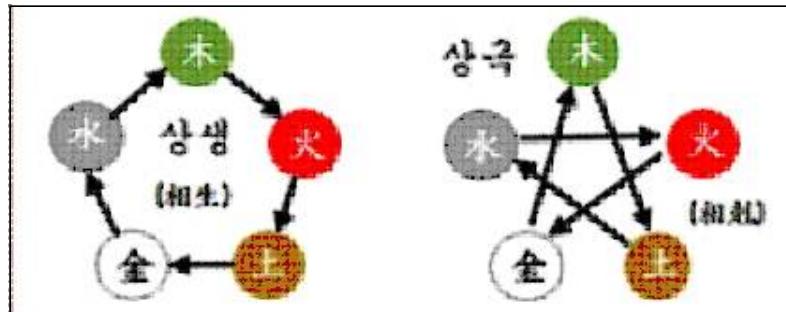


감서(甘誓) 등이다.

- 오행의 운행: 오행은 머물지 않는 순환 운동을 하는 성질을 가진다. 서로의 조화로움과 상대와 부딪혀 일이 생기는 것. 상대에게 영향을 끼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며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것을 오행의 운행이라 한다.

4)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

- 상생(相生) - 목, 화, 토, 금, 수의 오기(五氣)가 상대를 서로 살리는 관계.
- 상극(相剋) - 목, 화, 토, 금, 수의 오기(五氣)가 상대를 방해하는 관계.
- 음양오행의 가르침에서는 상생과 상극이 잘 밸런스(balance)를 유지하면서 존재해야 한다.
“상생 속에 상극이 있고, 상극 속에 상생이 있다.”



II. 오방색(五方色)

1. 오방색의 기원

- 오방색은 동양의 우주철학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 사상을 근간으로 오색인 靑(靑), 赤(赤), 黃(黃)과 白(白), 黑(黑)에서 나온 것이다.

- 음양오행설의 운행(운명)을 바탕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조화된 삶이 오방색의 근원. 이러한 음양오행설에서 추출한 다섯 가지 기본색을 오방 정색이라고 하며, 오색, 오방색, 오채라고도 함. → 우리의 고유사상을 담아내어 전통과 풍습을 내다보는 상징적인 색이라 할 수 있다.

- 전통 오방색은 상징성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삶에서 주관하는 모든 원리에 활용

되어 생각으로 발휘된 색으로 인간의 심성을 표현한 것이다.

2. 오방색의 특성

1) 상징과 의미

-**木**: 해가 솟고 나무가 푸르기 때문에 동쪽과 동시에 봄을 상징.

-**火**: 태양과 불, 피를 상징하며, 재앙과 악귀를 물리치는 색으로 사용.

-**水**: 세종실록에서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에 구름 빛이 검으면 물난리가 난다고 보았던 기록.

- **金**: 서방에 속하며 가을에 해당, 색채의 시작인 백색.

- **土**: 중립적이며 간절기에 속함. 흙과 대지를 상징.



2) 오방색과 음양오행의 색깔별 특징

	赤	青	黃	白	黑
방위	남	동	중앙	서	북
계절	여름	봄	간절기	가을	겨울
원소	火	木	土	金	水
천체	화성	목성	태양	금성	달
신체기관	심장	간	비장	허파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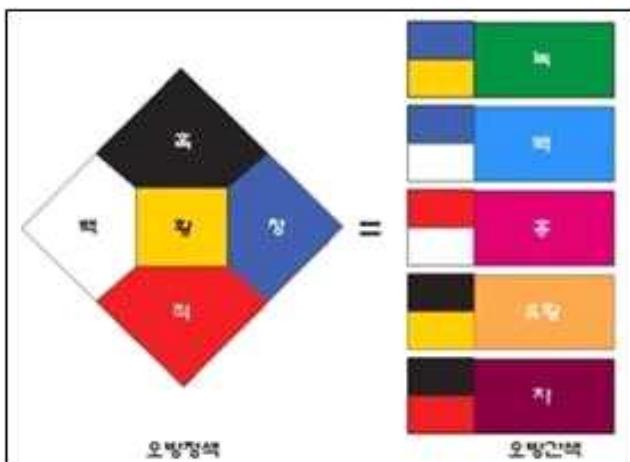
3. 오방정색과 오방간색

- 오방색의 색채는 사상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오행사상체계는 전통색채에도 강력한 영양을 미치고 있음.

- 음양오행 사상에서 다섯 가지 색채(오방정색: 적, 청, 황, 백, 흑)는 각 방위를 나타내는 색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음양(陰陽)중 양(陽)에 해당한다고 보면,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음에 해당하는 색을 오방간색이라 하고, 이는 녹, 벽, 홍, 유황, 자의 다섯 가지 색을 말함.

- 녹: 동방의 청색과 중앙의 황색의 간색
- 벽: 동방의 청색과 서방의 백색의 간색
- 홍: 남방의 적색과 서방의 백색의 간색
- 유황: 북방의 흑색과 중앙의 황색의 간색
- 자: 북방의 흑색과 남방의 적색의 간색

오방정색			오방간색		
색명	기호(HV/C)	색표본	색명	기호(HV/C)	색표본
적	7.5R 4.8/12.8	[Red]	홍	0.2R 5.2/15.0	[Red]
청	6.8PB 3.3/9.2	[Blue]	백	2.7P 5.7/10.7	[Blue]
황	6.4Y 8.4/10.3	[Yellow]	녹	0.1G 5.2/6.2	[Green]
흑	N	[Black]	유황	1.2Y 7.7/7.3	[Yellow]
백	N	[White]	자	6.7RP 3.3/8.2	[Red]



4. 오방색과 의식주

1) 의(衣)



〈무명폐개〉



〈천연염색 모시〉

→ 조선 시대 곤룡포의 색 변화



〈태조〉

〈영조〉

〈고종〉

- 조선건국 태조: 청

(새로운 왕조의 시작, 동쪽을 의미)

- 조선중기 영조: 홍

(명나라 홍무제)

- 조선말기 고종: 황

(황제의 색인 노란색을 사용하기 시작)

→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



〈현대식 색동저고리〉

- ‘색동’의 ‘색’은 색깔을 나타내며, ‘동’은 저고리 소매에 이어대는 동강의 조각을 의미. 색동저고리란 이런 색동을 사용하여 소매를 만든 저고리를 뜻함. 색동에 주로 쓴 색은 적·청·황·백의 네 가지 정색(正色)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간색(間色)이 추가.



〈조선시대 평상복 색동저고리〉



〈오방장 두루마기〉

소재: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 돌이나 명절에 색동저고리를 어린아이에게 입히는 것은 오행을 갖추어 나쁜 기운을 막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

2) 식(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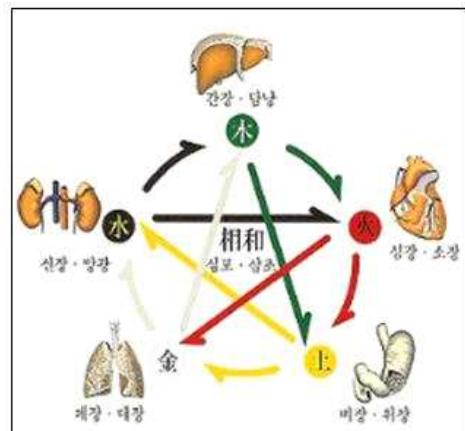
"한 그릇의 소박한 먹거리에, 민족의 삶에 스며든 다섯 빛깔 전통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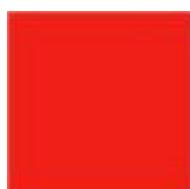
① 청색: 靑색은 생명, 신생, 소원, 창조를 상징.



- 엽록소가 많이 들어 있는 푸른 잎채소는 우리 신체 중 간, 장 그리고 눈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세포재생을 도와 노화 예방.



② 적색: 赤색은 태양, 탄생, 정열, 애정을 상징.



- 붉은색 색소 리코펜이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토마토와 홍고추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줌. 또한 빨간 빛깔은 마귀나 나쁜 재앙을 강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 동짓날에 붉은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이 생김.



③ 백색: 白색은 진실, 순결, 자연을 상징.

- 플라보노이드 색소가 함유된 대표적인 식재료 양파, 무, 도라지 등은 체내 저항력을 높여 주며, 폐와 기관지에 좋음. 예로부터 흰색은 나쁜 기운을 막고 몸에 활력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흰옷을 입혔고, 백일상에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백설기를 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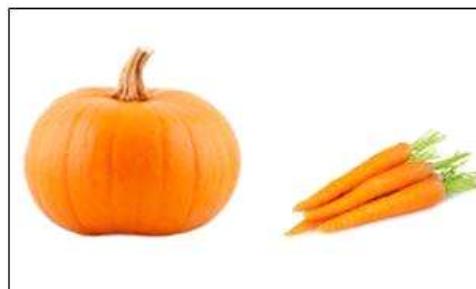
④ 흑색: 黑색은 지혜, 죽음(소생)을 상징.

-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검정콩, 흑미, 미역은 체내 독소를 제거해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피로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줌.



⑤ 황색: 黃색은 모든 사계절을 상징하고, 중앙을 나타내는 색.

-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함유된 호박, 당근, 오렌지는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과 위 기능에 도움을 줌. 노란색은 우주의 중심이라고도 하여 예로부터 왕의 옷을 만드는 고귀한 색으로 취급.



3) 주(住)

- 단청에 쓰이는 문양과 오방색의 의미하는 것은 벽사, 즉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고, 사찰에 그리는 넝쿨 식물의 단청이나 동물모양 벽화는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기원한다.



〈조계사 대웅전〉



〈모로 단청〉

- 단청은 크게 궁정계통과 사찰계통으로 나뉘는데, 처마 아래에 있는 서까래 하나하나를 빼곡하게 문양을 채워놓는 것을 비단 금(錦)다리를 쓴 금단청이라 함. 금단청은 사찰에서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 대웅전에만 쓰이고 왕이 있는 궁궐에서도 쓰지 못하는 단청이었다. 궁궐에서는 서까래 끝부분까지만 문양을 수놓는 모로단청을 했고, 이러한 단청의 문양은 대감집에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제 8차시. 색채와 풍수(風水)

I . 풍수(風水)

1. 풍수의 의미

- 풍수학이란 하늘과 땅의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인간생활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바지하는 학문이다.

- 풍수는 인간의 삶과 운명이 자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자연현상. 즉, 태풍과 천둥, 번개 그리고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인들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바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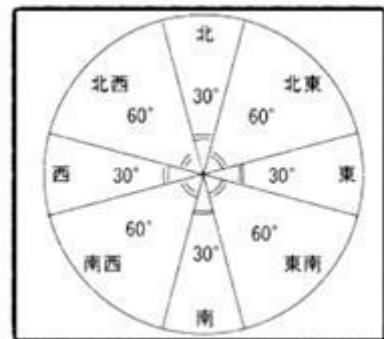
원래 풍수란 용어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줄임말이다. 그 뜻은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풍수의 목적인 생기를 타려면 바람을 감추고 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기는 형체도 없고 보이거나 잡히지도 않으며 오직 직감으로만 느낄 수 있다. 풍수원전『葬書』에서는 생기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승풍즉산 계수즉지(氣乘風則散 界水則止)”라 하여 생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기 가득한 곳이란 결과적으로 바람을 감추어 주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즉 ‘장풍득수지(藏風得水地)’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혈장의 주위에는 바람을 가두어줄 사신사(四神砂: 현무, 주작, 청룡, 백호)가 필요하고 땅속을 흐르는 地氣를 멈추게 하기 위해선 혈장주위에 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氣가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 곳과 기가 행하다가 멈춘 곳을 생기 가득한 명당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명당길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혈장의 전후좌우에 바람을 가두어 줄 적당한 높이의 산(山)이 필요하고 땅속을 흐르는 지기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혈장 앞에는 물이 감싸주어야 한다. 그래서 풍수학문의 대부분은 혈장에 바람을 잘 가두어줄 사신사(북현무, 남주작, 좌청룡, 우백호)의 모양과 거리, 크기 그리고 땅속을 흐르는 생기를 멈추게 하는 물의 형태와 양, 흐르는 방향, 속도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팔방위(八方位)

- 오행을 팔방위(八方位)에 대입시켜 길흉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 팔방위에도 서로 잘 어울리는 쪽과 서로 부딪히는 쪽이 생기게 된다.

- 팔방위에는 오행 외에도 십간십이지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되어 길흉화복을 가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3. 팔방위(八方位)의 특징

1) 동쪽

- 해가 솟는 방위이므로 아침이며, 계절로 치면 봄이고 오행으로는 나무(木)에 속함. 주역 팔괘(周易八卦)로 보면 동쪽은 진방(震方)이다.
- 진방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운기(運氣) → 가상(家相)의 동쪽이 길하면 사업이나 장사에서 일찍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2) 서쪽

- 해가 지는 방향으로 오행으로 보면 쇠(金)에 속하고 주역으로 치면 태방(兌方). 태괘(兌卦)는 입, 금전, 기쁨, 수학, 막내딸의 뜻으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운기가 있다. → 가상의 서쪽이 길하면 남녀의 즐거움이나 연애에 좋은 운이 있고 상업이나 금전운이 따른다.

3) 남쪽

- 남쪽은 주역으로 보면 이괘(離卦)로 하루 중에 한낮에 해당하므로 양(陽)의 세력이 최고에 도달하는 방위로서 오행의 불(火)에 속한다.
- 주로 두뇌 활동, 영감(靈感)을 통한 예술, 정치적인 역량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운기(運氣) → 가상의 남쪽이 길하면 사교성이나 교육, 소송 등에 유리하다.

4) 북쪽

- 북쪽은 동지섣달 한겨울이고,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한시가 되는 이른바 극음(極陰)에 해당된다. 주역에서는 북쪽을坎(坎)이라 해서 둘째, 셋째 아들, 화합, 남녀 간의 사랑, 비밀을 조절하는 힘이며, 오행상으로 물(水)에 해당하는 북쪽은 환경에 적응하는 순응성이나 유연성, 협조성을 상징한다.

5) 동남쪽

- 계절로는 환절기인 4~5월에 해당하고, 바람을 뜻하며 먼 거리 출장을 통한 상담, 거래에 영향력을 나타낸다. 결혼, 남녀교제 같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은 방위로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6) 서북쪽

- 주역에서는 서북쪽을 건(乾)이라 하여 하늘, 아버지를 뜻한다.
- 서북방의 구실은 활동력, 출세, 승부 따위에 영향을 주며 규모가 큰 기획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서북쪽이 가상이 길한 집에 사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와 재산을 쌓을 수 있다.

7) 북동쪽

- 오행상으로 흙(土)에 속하며, 의미는 소년, 상속, 변화, 저축, 이사, 전근과 관련이 있다.

8) 남서쪽

- 모성, 대지, 현모양처, 근면, 유순함, 노력, 충실 같은 뜻도 포함되어 있다.
- 남서쪽도 동북쪽과 짹이 되는 귀문(鬼門). 이 방향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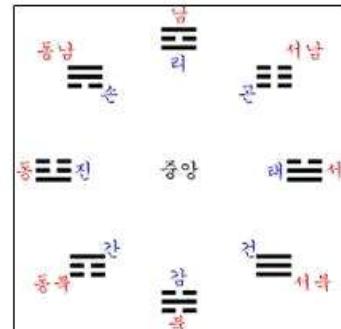
II . 오행과 인테리어

1. 팔괘의 응용

1) 팔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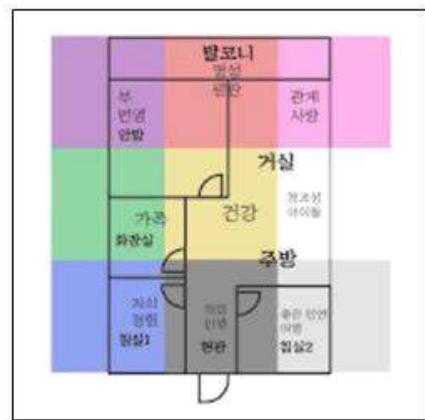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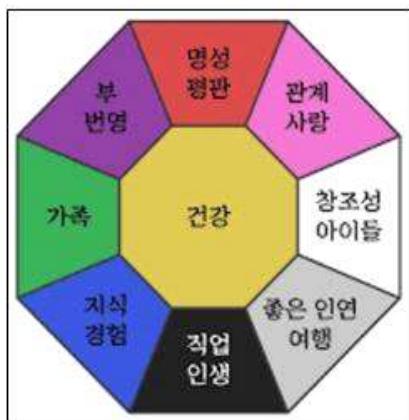
- 팔괘(八卦)는 중국에서 유래한 동아시아의 역(易)과 관련된 기호 체계. 사괘는 태극기에 도 사용된다.

양 (+)			여음		
巳 (+) 4월	午 (+) 5월	未 (+) 6월	申 (+) 7월		
동남 本 (+) 비탕 장녀	남 火 (-) 불 증녀	서남 土 (-) 양 여머니	우 (왕승의) 7월		
동 (토양) 2월	화 本 (+) 우회 장남	호양 土 (-) 연못 박내방법	서 (금) 연 8월	가을 기운	
화 (호양의) 1월	동북 本 (+) 산 막내아들	북 水 (-) 물 증남	서북 水 (-) 금 (-) 하늘 어버지	오 (금) 9월	
	묘 土 (-) 12월	우 (화사) 11월	호 火 (-) 화재 10월		
		거울			
		임 (-)			



2) 풍수 회로도

- 풍수 회로도는 풍수의 기본이 되는 일종의 지도. 집안에서 현관을 아래쪽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각 영역이 가진 기운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오행과 인테리어

1) 木: 목의 기운은 오방색에서는 청색으로 분류되나, 현대 생활에서 목은 초록과 파랑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함. 나무는 봄의 새로운 기운을 상징.

- 온화한 청색은 음에 가까운 색으로 휴식을 위한 방에 잘 어울림.
- 동쪽은 팔괘에서 ‘가족의 건강’ 영역과 우호적인 관계에 해당.
- 녹색은 대립이나 갈등을 막아주는 색.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 꾸밈.

- 건강하게 자란 활엽식물은 목의 기운을 강화하고 공기를 정화.
- 목과 상충되는 색: 녹색과 함께 하얀색 가구, 은색 등을 사용하면 오행상극에 의해 그 기운이 감소되거나 파괴됨.
 - 청색의 에너지 짜장은 공부하는 학생 방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연구실 등에 더욱 필요.



2) 火: 예로부터 火는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타오르는 불꽃으로 각인되어 침실을 붉은색으로 인테리어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 빨간색은 남쪽 방위를 밝히는 역할을 하며, 팔괘에서는 ‘명성’에 해당.
- 화의 기운에 해당하는 방이나 공간에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초록색(활엽식물)을 놓으면 좋음.
 - 반대로 남쪽을 향해 있으나, 편안한 휴식을 요구하는 방이라면 노랑색(베이지 계열)으로 꾸미도록 함.
 - 화와 상충되는 색: 빨간색과 함께 검정색 가구를 사용하면 오행상극에 의해 그 기운이 감소되거나 파괴됨.



3) 土: 토는 오행에서 중앙의 방위를 차지하고, 팔괘에서는 남서쪽을 의미함.

- 흙은 곧 건강을 상징하며, 풍수 회로도에 의하면 대부분 거실.
- 노랑이나 베이지색을 통해 토에 해당하는 공간의 기운을 강화하면, 건강과 활기를 복돋음.
- 소품: 토기로 만든 화분에 흙을 담은 화분.



4) 金: 금은 서쪽이며, 흰색, 은색으로 표현되고, 자녀들을 의미함.

- 흰색은 미래의 희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공간.
- 흰색은 공간이 확대되어 보이는 느낌을 주어 좁은 복도에 적당.
- 흰색에 상충되는 색은 火에 해당하는 빨간색.
- 금기운을 필요로 한다면, 책상과 침대 머리를 모두 서쪽으로 둠.



5) 水: 수는 휴식과 응집의 성질로, 방위는 북쪽이며, 해당하는 계절은 겨울.

- 지적인 능력, 직업과 관련.
- 북향의 방, 거실, 현관, 공부방 등에 좋은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수족관에 금붕어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 (9마리).
- 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북쪽의 방을 침실로 정할 것.



3. 풍수 인테리어의 3단계

1) 비우기

-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고, 남아 있는 물건들은 보기 좋고 찾기 쉽게 정리하도록 한다. 간혹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 필요할 거야’ 라며 베란다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풍수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다.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사용 시기가 정해진 물건이 아니라면 더 큰 행운을 위해 버리도록 한다.

2) 가려주기

- 가려주는 수납은 사람과 공간의 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인테리어 방법이다. 따라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렸음에도 집안에 쌓여 있는 물건이 많다면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물건은 문이 있는 수납장에 넣어 숨기고, 수납장이 없다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가려주도록 한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스켓을 활용해 찾기 쉽고 보기 좋게 정리해둔다.

3) 맞추기

-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무조건 큰 게 좋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는 공간의 크기다. 가구가 공간의 크기에 비해 사이즈가 크면 비우고 가린다고 해서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공간에 비해 가구의 크기가 크면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풍수에 좋지 않다.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가구와 생활가전 등 부피 있는 것들은 공간에 맞춰 선택하도록 한다.

4. 풍수인테리어의 3가지 보조물

1) 거울

- 큰 거울이 현관에 있을 경우 좋은 기운을 흘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현관과 거울이 마주 보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 따라서 큰 거울은 욕실이나 드레스룸에만 놓고, 이미 설치된 거울은 가려두는 것이 좋다. 반면 현관 왼쪽의 작은 거울은 금전운을 올려주고 오른쪽의 작은 거울은 출세운을 올려준다고 하니, 현관에는 작은 거울을 양쪽에 걸어둔다.



2) 화분

- 큰 화분을 여러 곳에 둘 경우 운이 여러 곳으로 분산될 수 있으므로 화분이나 꽃병은 공간에 포인트로 한두 개만 놓는 것이 좋다. 또한, 키가 큰 식물은 사람의 기를 탁하게 하니 낮은 키의 나무를 선택할 것. 선인장처럼 잎 끝이 뾰족한 식물은 현관에 두지 않아야 하며 생기를 잃어 죽었거나 떨어진 잎은 바로 치우도록 한다. 조화는 집 안에 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액자

- 풍경화나 가족사진 등 컬러감이 들어간 사진은 음습해질 수 있는 공간에 양기를 주어 기운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럼 중에서도 꽃 그림이 가장 좋으며,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소파 맞은편 또는 현관에서 들어올 때 보이는 위치에 걸어두는 것이 좋다.



제 9차시. 색채의 상징(빨강)

I. 빨강의 상징

1) 정서적 연상

- 새빨간 거짓말, 진홍빛 사랑 따위의 표현에서 명백(明白)함이나 광기(狂氣) 따위를 연상 시킨다.

- 자극이 강렬하여 심리적으로 정열, 흥분, 적극성, 광기 등을 표현하는데 사용.
- 뇌척수를 자극하여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킴.
- 구체적 연상: 태양, 불, 피, 장미, 사과, 입술
- 추상적 연상: 정열, 사랑, 혁명, 위험, 분노, 폭발

2) 슈테파네스쿠 고안가 (Stefanescu-Goanga: 1881~1958)

- 1912년 색 실험을 실시하여 인간에게 색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학계에 보고하였는데,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눈을 가리고 빨강색으로 뒤덮인 방에 들어가 벽을 마주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대부분 뒤로 물러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반면 파랑색 벽을 대했을 때는 홀린 것처럼 대상자들이 벽으로 다가가는 결과가 나왔다.

→ “빨간색 방에서는 마치 억압받는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꼈다.”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빨간색의 색 실험: ‘피’ 와 ‘불’
- 피: 신체와 관련된 빨간 머리, 립스틱, 사창가, 상처, 고통, 전쟁, 도살
- 불: 방화, 따뜻함, 빨간 벽돌, 빨간 지붕, 일몰, 저녁노을, 열대

3)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피, 생명, 열정, 정열, 활력,	증오, 분노, 고통, 상처,

힘, 에너지, 운동, 짙음, 정력, 적극성, 능동적, 회복, 기쁨, 환희, 사랑, 에로스, 태양, 불, 열, 유혹, 욕망, 권력, 권위, 진취적, 애국적	위험, 금지, 경고홍분, 충동성, 공격성, 소음, 광란, 혁명, 전쟁, 공산당, 사회주의, 노동운동
--	---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 소심증이나 우울증 치료에 이용하며, 무감각하고 냉정하며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 권한다(내면적인 주의 집중을 분산시켜 밖으로 쏠리게 함).
- 성적 관계 조절: 만족스럽고 열정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돋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
 - 정서 불안, 흥분성 발열, 고혈압, 염증, 정신이상자에게 부적합하다.
 - 뺨간색에 노출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 빈혈, 혈액 관련 질환,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 무기력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2) 성향

- 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 외향적, 충동적인 성향이 강함. 성격이 급하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짐. 삶을 즐기는 낙천적 성격, 항상 즐거운 기분을 가지고 싶어 하며, 신체적 활동, 운동경기 등 외적인 활동을 즐긴다.

→ 아동의 경우

- 자유롭게 느낀 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아이이며, 신체기능이 매우 왕성하다고 볼 수 있다.
- 색을 넓은 필치로 수직이나 수평으로 다른 색 위에 이중으로 덧칠하는 것은 적대감, 자기주장의 표현이라 볼 수 있고, 뺨간색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칠해졌을 때는 애정의 표현이며 거칠게 칠해졌을 때는 적대감과 공격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①



②



③

- ① 연평도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연평초등학생의 그림. 온통 빨강색으로 뒤덮인 불타는 집은 그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줌.
- ② 백혈병으로 혈액 투석을 받은 해외 아동의 그림. 얼굴을 제외한 자신의 온 몸을 붉은 색으로 채색하고, 꽃도 빨강이며, 꽃에 뿌려주고 있는 물도 빨간색으로 표현.
- ③ 수채물감에 재미를 붙인 초등학생의 평거 페인팅.

3. 상징성

1) 역사

- 그리스도교 문화권: 요한계시록에 “창녀들의 바빌론”으로 타락시킨 사랑의 여신을 상징하는 육감적이고 마귀 들린 색으로 취급하였다. 빨강을 공격의 색,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색으로 간주되었고, 여자의 머리가 빨갛다는 이유만으로 마녀라고 멸시했던 예가 종종 있다.

- 세월을 거친 후 20세기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의해 롱상(Ronchamp)의 예배당 제단을 둘러싼 한 공간을 모두 빨간색으로 채색하였다.



(롱상의 예배당 제단)

2) 국가

→ 중국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이유 3가지〉



〈한나라 개국 황제 유방(劉邦)〉



〈자금성(紫禁城)〉

- ① 유방은 '페이(沛. 패)'라는 곳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인이 되어도 가업을 돌볼 생각은 않고 동네 건달패와 어울려 다니며 불량한 청년시절을 보낸 과거가 있는 유방으로서는 황제가 된 후 자신의 내력을 포장해야만 했다. 유방은 스스로를 '적제지자(赤帝之子)'라 칭하고 치우의 후손임을 만방에 고했다. 적제지자는 직역하면 '적색 황제의 아들'이며 이는 곧 '치우천황(蚩尤天皇)'을 뜻한다. 당시 전설적인 황제인 치우천황을 자신의 선조로 삼고 붉은색을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중국에서 빨강은 왕을 상징하며 고귀하고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 ② 중국에서의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기쁨, 축하, 즐거움, 경사 등의 의미가 있고, 현대에는 인기, 유행, 혁명, 혼인, 돈, 행운 등의 의미 또한 가진다. 아예 紅(붉을 홍, 간화자로 红)이란 단어를 '번창하다', '인기 있다', '잘 팔리다'란 뜻으로 쓸 정도이다.
- ③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금성 역시 이름에서부터 '붉은 것이 아니면 입궁을 금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만큼 귀한 건축물과 궁에 붉은색을 가장 많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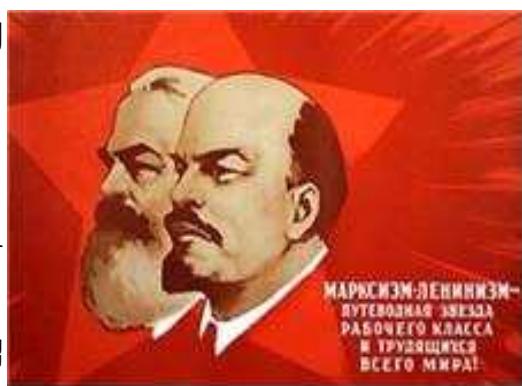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인도에서도 빨간색은 매우 의미가 깊다. 결혼할 때 일반적으로 빨간색 옷을 입고, 결혼 이후에는 손에 빨간 헤나를 칠한다. 인도에서의 빨간색은 '순수함, 비옥함, 유혹, 아름다움'을 상징함.

→ 러시아

러시아의 한대지방에서 빨강은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에서 빨강(krasnij)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홀륭한, 멋진, 좋은,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1917년 러시아 왕실을 무너뜨린 혁명가들은 붉은색을 공산당의 표지색으로 사용하였다. 언제나 붉은색을 국기의 상징색으로 사용한 공산당은 전통질서를 뒤집



기 위해서 피의 희생이 필요하며,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피를 보면 도전적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빨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며, 빨간 군대는 ‘영광스러운 군대’를 의미한다.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 과거와 현재의 공산국가 국기에는 빨간색이 있다. 예로부터 빨강은 도전, 용기, 용맹, 공격의 색이었다.

노동자운동의 붉은 깃발은 1907년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깃발이 되었다. 빨강은 마르크스 레닌(Lenin,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하여 혁명을 지도했고, 소련 최초 국가원수가 됨)주의의 정치적인 색이다. 러시아어로 빨간색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가 있다.

→ 붉은색 여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를 잘 나타나는 색은 빨강이다. 중국, 러시아, 루마니아 등과 같이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인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붉은색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



<좌로부터 중국, 폴란드,
루마니아의 여권>

4. 예술과 빨강

1) 회화

-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Le studio Rou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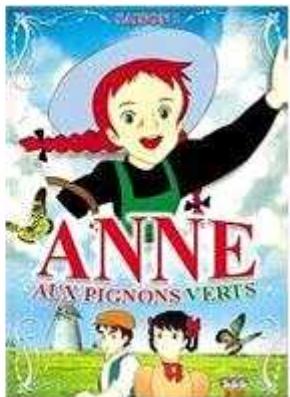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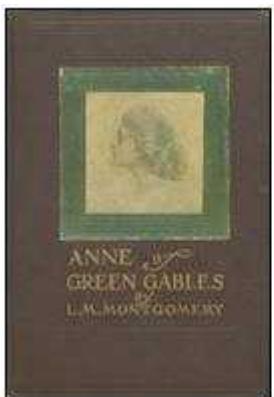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와 같이 사물의 모습을 무늬처럼 남겨 놓은 채 나머지 실내의 공간을 붉은 색으로 채워 놓음으로써 공간이 마치 평면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붉은 방> 1911년 . 219x181cm .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

2) 문학

- 빨강 머리 앤



고아원에 살던 어린 소녀 앤이 독신 남매인 매튜와 마릴라의 집에 입양되어 오면서 스토리가 전개된다. 명랑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앤은 매튜와 마릴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다.

〈원제: Anne of Green Gables, 캐나다의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1908년작 소설〉

5. 사례

1) 50세 남성의 그림(해외)

- 병마로 인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50세 남성이
임종하기 얼마 전에 그린 그림으로 구심형의
삼각형으로 된 흰색 뜻은 그림의 모든 색들을
부드러운 색조로 다시 한 번 수용하여, 거세게
요동하는 빨간 배경 앞에서 밝고 청명하게 서 있다.
그림을 그린 이 남성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마가
진행되는 와중에 동요된 감정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침착함을 찾게 되었을 때
이 그림을 그렸다.



II. 생활 속의 빨강

1. 컬러마케팅

→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빨간색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효과적으로 사용해 사람들 머릿속에 브랜드와 컬러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빨간색은 가장 강하고 격렬한 색으로, 강렬한 이미지로 시선을 끌고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색이다. 또, 신선한 이미지로, 입맛을 돋우고 식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코카콜라는 컬러마케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브랜드로서, 컬러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코카콜라가 세계 최고의 음료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모션에도 빨간색을 적극 활용해 크리스마스와 베란타인데이 시즌에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코카콜라의 일관된 컬러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콜라-빨간색-코카콜라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100년이 넘는 기업역사동안 한 번도 브랜드 컬러를 바꾼 적이 없다.

2. CI(Corporate Identity)

- 빨강과 주황은 식욕과 관련이 있으며, 회사의 정열, 에너지 등을 상징한다.



제 10차시. 색채의 상징(파랑)

I . 파랑의 상징

1) 연상

1) 정서적 연상

“하늘은 왜 파란가?”

- 태양의 빛이 지구의 대기층을 지날 때 대기층의 질소와 산소 원자에 부딪혀 충돌하는데 그 중 더 많이 흘어지는 것은 빛의 파장이 짧은 색이므로 하늘은 파랗게 보인다.

- 파랑 (Blue) 의 파장: 450 ~ 495nm

- 어원: ‘파(波)’ 와 ‘랑(浪)’ 둘 다 물결을 의미한다.

<교학사, 대한한사전>에서 浪

浪 ① 물결 랑 ② 물결일 랑 ③ 방탕할 랑 ④ 움직일 랑 ⑤ 경솔할 랑

- 구체적 연상: 하늘, 바다, 여름

- 추상적 연상: 우울, 청춘, 희망, 신뢰, 냉정함

2) 파랑의 선호도

- 일반적으로 파랑은 가장 조용하고 후퇴되어, 자기의 감성을 드러내지 않는 색이다.

- 파랑은 특정 집단이나 연령의 구분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색이며, 색의 선호도에서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가장 높고, 연상되는 이미지 또한 대부분 긍정적이다.

- 한국인의 남성 36.3%, 여성 20.0%이 가장 선호하는 색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갤럽조사>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입니까 응답자수 355명



3)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희망, 청춘, 절음, 행복 이성, 스마트, 청결, 정의 전진, 동경, 용기, 상쾌함, 자유 깊음, 안정, 도전, 성실, 믿음 신용, 신앙, 책임, 위엄, 숙연함	슬픔, 우울함, 쓸쓸함 고독, 침묵, 적막 공포, 불안 차가운, 냉정함 어두움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 진정 효과, 신뢰감을 주는 색(수면제와 안정제는 파란색 포장)이며, 감정을 조절하고 순응시키는 작용을 한다. 특히 피로하고 병이 있을 때 과랑에 대한 욕구가 커지며, 신경계에 안정 효과, 불면증, 경련, 피로감을 회복시켜 준다.
- 어려운 상황에 인내심을 가지게 하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맥박을 느리게 하여 호흡을 깊게 할 수 있도록 돋는다. 치톨, 케양, 인후염 등에 효과가 있으나, 저혈압, 감기 치료, 수줍거나 느린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색이다.

2) 성향

- 고집이 세고 다소 독선적이며, 신중하고 내성적이다. 보수적인 신념이 강하고 자제심이 있으며 논리적이고 자기변호가 뛰어난 성격의 사람이 많다.
- 특히 남자는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어 착수한 일을 성사시키고, 여성은 냉정하며 현신적이고 생각이 깊다고 한다.

→ 아동의 경우

- 항상 자기 일에 전념하거나 성실한 성격의 아동이 많고, 비교적 명랑한 성격의 남아들이 많다.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당하거나, 부모로부터 성실함을 강요당하는 아동의 그림에서 파란색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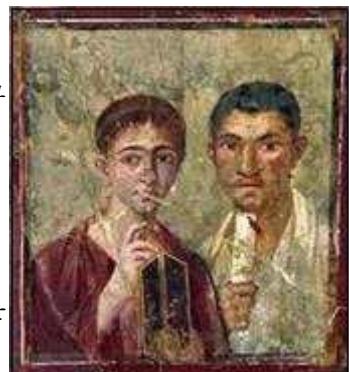
→ 왜 남자아이는 파랑, 여자아이는 핑크인가?

-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세까지 뚜렷한 성차가 없다가, 자신이 어느 한쪽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성 입장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색의 기호는 생물학적(선천성), 문화적(후천성)의 요소가 모두 얹혀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상징성

1) 역사

- BC 5000년경까지 파랑은 검정색의 일부라고 여겼으며, 히브리인들은 파랑과 보라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당시 파랑은 자연에서 구현하기에 드문 색이었으며, Blue 를 만들지 못하여 하늘이나 바다를 흰색, 회색 등으로 칠하였고, 정상적으로 색을 만들 수 없어서 이단의 색, 불완전한색으로 평가절하 하였다.



- 기원후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매몰된 품페이 벽화에서는 붉은색이 눈에 띠는 반면, 파란색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 13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법전은 가톨릭 전례복의 색을 표준화하는데 성모상에 파란색을 칠하도록 규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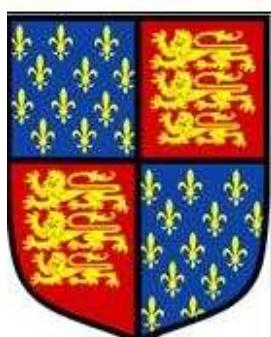


좌: <수태고지> 프라 안젤리코, 15세기.

우: <수태고지> Jan van Eyck 1434.

- 천대와 무관심 속에 있던 파란색의 운명이 일대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은 중세의 성모 마리아가 파란색으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 프랑스 왕실이 성모마리아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청색방패 위에 순결한 성모를 상징하는 백합꽃 문양으로 변형, 이를 시작으로 영국 및 유럽왕실은 파란색 문양을 사용하게 된다. 왕들이 청색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왕자와 제후들이, 나중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했다.



〈사울 4세와 르상부르그의 마리의 결혼식〉, 장포케, 1460

- 청색 염색업자들은 붉은색 염색업자들을 제치고 당시 염색업계의 선두에 섰으며, 사회의 모든 질서가 파란색 위주로 서서히 재편되고 있었다.

- 이후 괴테의 베르테르가 하늘색 연미복을 입고 권총자살을 함으로써 파란색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색이 되었고,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는 진보의 색으로, 자유주의를 맞이하면서는 중립과 합의의 색으로 변화를 거듭했다. 지금은 반항과 자유의 상징인 청바지의 푸른색도 당시에는 신교도들의 금욕과 절제에 가장 잘 부합한 색이었다고 한다.

-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를 필두로 파란색이 19세기 자본가들의 가장 인기 있는 색으로 군림하면서 반전과 변화를 거듭한 파란색의 역사는 파란 만장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가

→ 프랑스

- 파랑은 프랑스 왕국의 상징색으로, 왕조의 확장과 함께 점차 세력을 넓혔다. 프랑스 정부는 1930년대 주요 유니폼 색을 검정에서 블루 마린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프랑스 해군, 경찰, 소방과, 우체부는 푸른 계열의 정복을 입게 됐다. 흰색의 왕당파, 검은색의 카톨릭 파에 맞서 일어난 공화당파의 색이며 합법과 정직을 뜻하는 상징이 된다.

공화당파의 파란색 ↔ 공산주의의 붉은색



〈세계 1차 대전 당시 프랑스군〉



〈프랑스국기 (자유, 평등, 박애)〉

3) 언어

→ 긍정적 상징

- Cordon Bleu: 파란 리본(뛰어난 요리를 의미 / 프랑스어로 파랑: bleu)
- 파란 성격: 러시아에서 부드러운 사람
- Blue Blooded: 귀족

→ 부정적 상징

- I'm Blue: 우울하다는 뜻
- The Blues: 템포가 느리고 슬픈 흑인 음악
- 파란 편지: 진급하지 못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 파란 연필: 영국에서 검열을 상징
- Blue Monday: 사순절 전의 슬픈 월요일. 또는 월요병

4. 예술과 파랑

1)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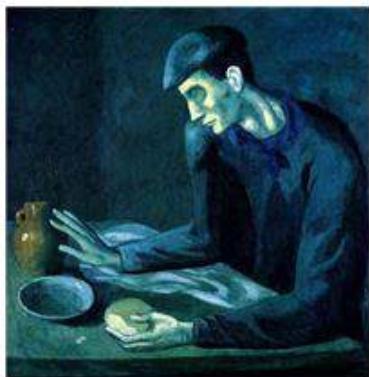
-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 청색시대 (The Blue Period, 1901-1904)

- 19세 때 바르셀로나를 떠나 낮선 파리에서 생활하며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며, 질병과 성병이 가득한 도시의 가난을 두려워하며, 가장 절친한 친구 카를로스 카사헤마스가 자살하게 되면서 고통은 가중된다. 방황을 하던 피카소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였으며, 파리의 구석진 다락방에서 추위와 가난을 겪는 시기를 보내게 된다. 이 시절에 그는 하층계급에 속하

는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과 고독감을 청색 계열의 물감으로 표현한다.



〈장님의 식사〉 1903.



〈안생〉 1903.



〈기타 치는 노인〉 1904.

2) 문학

- 요한 볼프강 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1774)

-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1774년에 쓴 서간체 형식의 소설로, 괴테가 그의 천재적 열정을 잘 발휘했던 질풍노도기의 대표작이다. 불과 14일 만에 끝낸 이 작품으로 괴테는 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된다. 당시 소설을 읽고 감동한 젊은이들은 베르테르가 입었던 파란색 연미복을 즐겨 입고 다녔으며, 실연이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베르테르 신드롬’을 만들기도 하였다.



II. 생활 속의 파랑

1. 컬러마케팅

→ 티파니 앤코(Tiffany Blue)

- 보석상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만한 티파니(Tiffany & co.)는 회사가 처음 생겨났을 때

부터 티파니 블루를 통해 컬러 마케팅을 펼쳤다. 티파니의 블루 마케팅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컬러마케팅의 사례이다.

티파니 블루의 연한 파란색은 원래 ‘율새의 알(ROBIN EGG BLUE)’이라는 색이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서는 터키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다. 덩달아서 연한 파란색의 인기도 높아졌다. 특히 빅토리아 시대의 신부들은 결혼을 기념하여 파란 율새 알의 색을 칠한 비둘기 모양 장식이나 브로치를 하객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



‘율새 알의 색’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인식이 좋은 색상이었던 것이다. 티파니는 이 색을 자사의 신규 주얼리 카탈로그인 ‘블루 북’의 커버색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렇게 이 색은 티파니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본사는 티파니 블루를 팬톤사와 협업을 통해 ‘컬러 상표’로 등록한다.

티파니 블루의 팬톤 넘버는 1837인데 바로 티파니의 창립 연도이다.



2. CI(Corporate Identity)

- 가장 많은 기업의 CI로 사용되는 파랑. 특히 은행 및 신용금고는 CI로 파란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파란색이 상징하는 신용과 신뢰의 의미 때문이다.



제 11차시. 색채의 상징(노랑)

I . 노랑의 상징

1) 정서적 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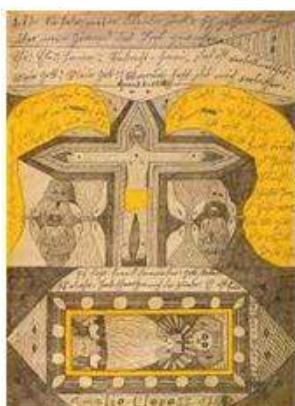
- 기본적으로 태양빛에 기인하므로 따뜻함에서 파생된 의미를 가진다. <국어사전>
- 노랑: 개나리꽃이나 달걀노른자와 같은 색.
- 색상의 의미: 독창적인 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이다.
- 정신적인 측면: 창의적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 노랑색을 추구하는 사람은 몽상가가 아닌 실용적인 사상가들이 많다.
- 구체적 연상: 태양빛, 개나리, 병아리, 바나나
- 추상적 연상: 햇살, 희망, 명랑함, 거짓말, 겁쟁이

2) 아돌프 뷔플리(Adolf Wölfli, 1864~1930)

: 스위스 태생의 광인 천재 화가.



- 스위스 베른 근교에서 태어나 외롭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범법행위와 정신장애로 정신 병원에 수용된다. 35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생애에 걸쳐 2만 5,000점의 작품을 작업하였다. 그림의 특징은 여백 없이 그림과 문자와 음표로 가득 차 있다. 기존의 예술교육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만들어진 표현력이 돋보인다. 치밀하고, 광적이며, 환상적인 작품으로 20세기 최고의 광인 천재화가로 불린다.



출처 : Basel museum

3)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빛, 희망, 긍정적임 유쾌함, 즐거움, 행복 깨달음, 낙관주의 친절, 황제, 부귀영화, 귀여운	질투, 시기 천박함, 불안정, 분노, 거짓 구두쇠 보순, 경고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 막스 루션의 컬러테스트에서 노란색을 첫 순위에 둔 경우, 자유에 대한 소망과 행복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 참가자의 요구수준에 따라 에로틱한 모험이나 인생의 최종적 이상향과 관련. 새로운 것, 현대적인 것, 미래에 대한 희망, 확장과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제일 마지막이나 끝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한 경우, 희망에 대해 일시적으로 실망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일상에서 허무감과 소외감이 우세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노랑을 거부함으로써 손실된 것에 대한 보상을 메우고 싶어 하는 내담자의 심리를 알 수 있다.

2) 성향

- 노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낙천주의자이며, 꿈을 꾸기보다는 실제적 가능성 을 염두에 두는 Practical thinker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인 도전을 좋아하고, 네트워크 를 중요시하며, 정신적인 의사소통을 즐긴다.

➔ 아동의 경우

- 과잉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이 즐겨 쓰며, 아기 때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경향

을 표현하기도 한다. 대부분 긍정적이며 행복감을 느끼는 아동이 많고, 친구 관계가 좋은 편이며, 어리광부리는 것을 좋아한다.

→ 주말에 한 일 (남, 9세)

- 9세 남자 어린이가 그린 아동화이다. 평소 산만하고 그림 그리는 동안 집중력이 낮은 어린이가 이 그림을 그렸을 시기에는 축구에 열광하던 시기로, 몇 달 간 축구에 관한 것만 그리기도 하였다. 대체로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축구를 할 때 가장 즐겁다고 말하였다. 밝은 노랑 색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랑과 대비된 골대안의 파랑색은 자신이 축구를 더 잘했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다.



3. 상징성

1) 역사

- 중세 유럽에서 노란색은 혐오의 대상이었다. 예수를 배반한 제자 유다가 입고 있던 옷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현대 유럽에서도 노랑을 천박함이나 거짓, 질투의 색으로 여기며, 비겁함과 편견을 상징하기도 한다.

〈유다의 입맞춤 (The Kiss of Judas) Giotto di Bondone. 1356〉



- 노란별: 반유대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색이다. 〈다윗의 별〉이란 ‘다윗 왕의 방패’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Magen David에서 비롯되었으며,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합한 후 다윗의 별을 유대 왕의 문장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유대인 전쟁포로, 1941.



나치치하에서 유대인주감자들이 달았던 노란색 '다윗의 별'

-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1867년 캔자스에서 처음으로 노란색을 항의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노란색은 캔자스 주의 꽃, 야생 해바라기의 색이다. 이 때부터 노랑은 여성 참정권 운동 단체의 공식 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67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 작곡한 'A Yellow Ribbon'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운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노란 리본

2) 국가

→ 중국

중국은 노랑을 밝고 궁정적이며 빛나는 색으로 인식하며. 황제는 누를 '黃' 자를 써서 황제라고 한다. 왕족을 언급하는 단어 황제, 황궁, 황후와 같이 황자를 쓰는 왕족은 금색이 황제의 색이기 때문에, 당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황제 외에는 노랑 및 금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법령도 공포되었다. 황하 역시 비옥한 농토를 만드는 거대한 젖줄기가 되어 주는 강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노랑의 의미는 꼭 필요한 존재이며 귀하고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청 세조-준치제》



《당태종》



《황제를 기리는 행사》

→ 태국

태국인들은 본래 색깔에 민감하여 요일마다 모두 고유색이 정해져 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다른 의견도 있지만 어떤 요일에도 장례식이 아니면 검은색은 기피색이다 푸미폰 전 국왕은 1946년에 즉위해 2016년까지 70년간 왕위를 유지하면서 태국 국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생존 당시 기준 세계의 군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국왕이었다. 일촉즉발의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아 태국 국민으로부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푸미폰 전 국왕이 태어난 요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을 노란색으로 정하고 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색이 되었다.



푸미폰 아둔야뎃

(1927-2016)

→ 미국

흔히 '옐로우 캡'이라고도 불리는 뉴욕 택시의 역사 는 100년 전에 시작된다. 1907년 존 D. 허츠가 택시 차량을 전문으로 만드는 '옐로우 캡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길에서 눈에 잘 띠기 위해 시카고 대학교에 눈에 가장 눈에 띠는 색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의뢰 하였다. 결과는 노란색. 1914년 시카고에서 노란 택시 회사(Yellow cab Company)를 차리고 회사 택시를 모두 노란색으로 칠하였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루마니아, 우루과이 등 많은 나라에서도 택시를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있다.



→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대형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노란리본의 의미는 '무사귀환을 기다림'이다. 노란리본의 유래는 17세기 쓰여진 시 "She wore a yellow ribbon"로부터 시작한다. 이 시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변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성의 마음을 담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노란리본은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관습으로 추정된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영국의 청교도 군대가 노란리본을 전장에 뿜어두곤 했다. 현재 미군 장갑부대의 공식 색상은 노란색이다.

3) 언어

→ 영어로 yellow는 ‘비겁하다’ , ‘겁이 많다’ 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Chicken: 노란색 닭이 쉽게 놀라는 것에서 비롯하여 겁쟁이를 치킨이라고 놀린다.
- yellow card: 운동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 yellow journalism: 신문 등의 언론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싣는 것.
 - rire jaune: 불안한 쓴 웃음.
 - 하늘이 노랗다: 지나친 과로나 상심으로 기력이 쇠한 상태.
(예: 이틀을 짚었더니 하늘이 노랗고 현기증이 난다.)

4. 예술과 노랑

1)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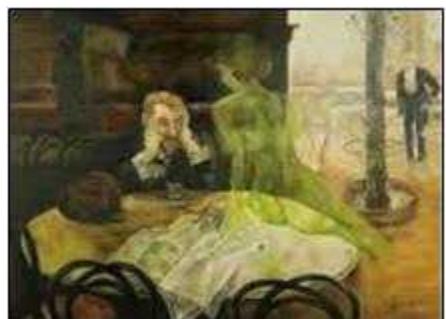
-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 산토닌

- 반 고흐는 “노란 높은 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좀 속일 필요가 있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노란색에 폭 빠진 화가였다.



- 반 고흐가 파리로 상경할 당시 파리는 술 압생트 소비량이 폭주했던 시기였으며 반 고흐 또한 압생트에 중독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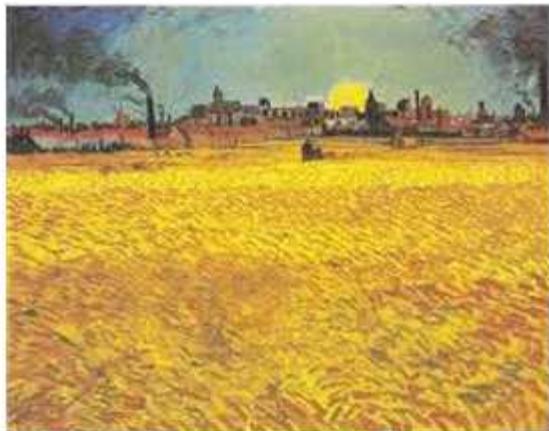


- 파리 생활의 2년 뒤 고흐는 도시생활에 싫증이 나고 육체적으로도 기진맥진하여, 1888년 2

월 파리를 떠나 아를로 갔다.

- 파리 시절 그는 고갱과 틀루즈 로트렉을 비롯하여 자신과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여러 화가들과 함께 독자적인 인상파 집단을 구성하고 싶어 했다.

그들이 아를에 와서 그와 함께 '남부 인상파 화가들'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란 집' 1채를 빌려 아름답게 장식했다.



〈일몰속의 밀밭〉 1888.



〈해바라기〉 1887.

II. 생활 속의 노랑

1. 컬러 마케팅

→ 카카오



- 노란색은 초콜릿 원료의 이름을 딴 '카카오'란 사명처럼 즐거움이 잘 어우러지며, 감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이유에서 선택되었다. 또한, 노란색은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눈에 잘 띄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오뚜기

- 오뚜기는 노란색 제품 포장으로 유명하다. 노란색이 식용을 돋운다는 점과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 때 반드시 달걀을 쓰기 때문에 특히 노른자 색을 연상시킨다.
- 오뚜기의 주 제품인 오뚜기 카레는 황산화 능력이 뛰어난 강황(Turmeric) 때문에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식욕을 자극할 만큼 샷노랗다.



2. CI(Corporate Identity)

- 노란색은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는 유쾌함, 독창성 및 따뜻함과 관련이 있다. 이는 즐겁고 빠르게 접근하기 쉬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브랜딩에 노란색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12차시. 색채의 상징(초록)

I . 초록의 상징

1) 정서적 연상

- 엄밀하게 이차색이지만 ‘심리적’으로 1차색에 속하는 초록색은 그 만큼 자체 색으로의 정체성이 강한 색이다.
- 한국의 고유 색채 개념 중에 ‘초록/녹색’의 개념은 없었으므로 한자어로 표현하였다. (현재 녹색이라 지칭하는 범주는 예전 ‘파랑’ 색의 범주에 속한다.)
- 구체적 연상: 나무, 자연, 신호등, 괴물
- 추상적 연상: 봄, 희망, 생명력, 희망, 환경 운동

2) 근원적 경험

- 중부 유럽인: 혹독한 겨울을 지난 후에 보게 될 녹색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민요가 전해져 내려온다.
- 로이너(Hanscarl Leuner)의 상징적 이미지 체험 방법: 이완을 주는 심상을 통하여 백일몽에 빠져들게 하기 위한 도입부의 주제로서 “초원”을 선택하기도 한다.
- 피테의 색채론: “더 이상 갈 수 없고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쓰면서 녹색이 지니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녹색을 색 체계의 중심으로 여겼다.

3)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자연, 생명, 건강, 성장, 생산, 신선함, 깊음, 자연주의, 환경운동, 평화, 치유, 부활, 일치, 안전, 중립, 조화, 관용, 인내심, 균형, 행운	독, 독성이 있는, 쓴, 미성숙, 무료함, 떳떳하지 못함, 단조로운, 의심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 초록색은 시각적으로 가장 편안하며,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색이다.
- 신경이 예민하고 조율증이 있는 내담자에게 유용하며, 자기 힘으로 독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 황녹  색: 겁이 많은 사람, 억압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하다.

- 청록  색: 진지함과 신뢰성 및 언행일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2) 성향

- 자기주장이 강하고, 남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
- 엄격함, 명예 등을 추구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다.

→ 아동의 경우

-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내향적인 아동이 많으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향의 아동이 많다.
 - 자제력이 많고,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있으며, 가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초록색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경우는 몸이 허약한 아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본다.

→ 보호 군인과 탱크 (남, 8세)

-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입원하여 수막염을 앓고 있는 아동의 그림. 아동은 입원해있는 동안 초록색의 탱크나 군인 등을 여러 장 그렸다.



→ 왜 비상구는 초록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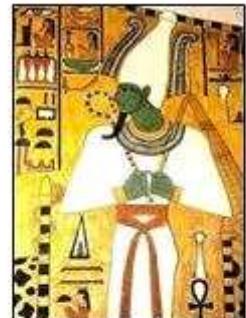
인간의 눈에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는데, 이 간상세포에는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어둠 속에서 녹색 광을 가장 잘 흡수한다. 이는 유목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비상구를 초록으로 한다.



3. 상징성

1) 역사

- 고대 이집트: "Osiris"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자(死者)와 부활의 신.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왕으로 군림하다가, 이를 시기한 동생으로부터 13토막으로 살해당하게 된다. 부인인 이시스에 의해 부활하여, 죽은 자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벽화에 그려진 그의 얼굴은 모두 초록색으로 이미 죽은 자임을 상징한다.



- Michael Pacher (1435~1498) 서구에서는 대부분 악마는 초록색으로 묘사된다. 성 오거스틴의 붉은색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악마의 피부색을 볼 수 있다. 전래동화부터 내려오는 서구의 숲 속은 마녀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에 초록색은 위험하고 악한 것이라는 연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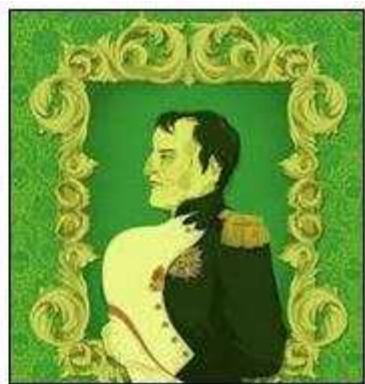


〈St. Augustine and the Devil〉

- 1775년 스웨덴의 화학자 칼 윌헬름 셰일(Carl Wilhelm Scheele)은 '셀레(Scheele)의 녹색'이라는 색을 처음 개발하였지만, 독성 비소와 구리가 다량 포함된 이 염료는 가루 형태로만 생산이 가능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었다. 이 시절 대중은 비소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셀레그린을 토대로 파리그린, 에메랄드그린 등 다양한 초록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던 색이며, 녹색은 동시에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증거가 나폴레옹의 머리카락과 손톱 등에서 다량의 비소가 배출되면서 드러났다.



2) 국가

→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파키스탄



요르단

→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AD 571~632)



마디나(아랍어: المدينة المنورة):

사우디아라비아의 헤자즈
지방에 있는 도시 →



- 무슬림들은 특히 초록색을 선호한다. 그 이유로 첫째, 무함마드의 깃발과 네 번째 칼리프 '알리'와 그의 둘째 아들 후세인의 로브(길고 헐거운 걸옷)의 색이었다. 특히 시아파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 그들은 초록색 터번을 두르거나 초록색의 외투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무함마드의 자손들은 초록색을 그들의 통치의 표식이라고 생각했다.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서는 돔이 초록색 모스크나 초록색 터번을 두른 무슬림 남성들은 볼 수 있다. 둘째, 사막과 암석이 대부분인 중동의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무슬림들이 선호한다. 셋째, 초록색은 기쁨, 성공,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스크, 집안 내부, 왕실, 부족 및 가족의 상징으로 종종 초록색으로 칠한다. 넷째, 꾸란(76:21)에서

는 전통적으로 이슬람을 초록색으로 표현하며 낙원의 사람들이 초록색 실크로 만든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수피는 이슬람의 신비주의적 분파로써 색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 아일랜드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

- 기독교의 축일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전도한 성 파트리치오 (386~461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행사는 매년 3월 17일에 이루어지는데, 이 날은 성 파트리치오가 선종한 날로써 성 파트리치오를 잊지 말고 기념하고자 이 날을 정하였다. 이 날은 강물에 초록색 물감을 타고, 이 날 아이들은 온통 초록색의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긴다.



- 세일 클로버를 쓰는 이유는 패트릭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성부(聖父) · 성자(聖子) · 성령(聖靈)을 토끼풀로 비유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성 패트릭 데이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다.

4. 예술과 초록

1)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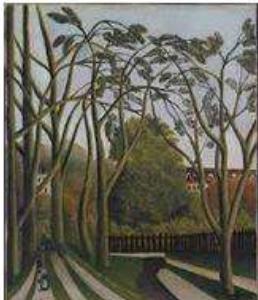
- 앙리 루소 (Henri Rousseau, 1844-1910)

앙리 루소는 그림을 전공하지 않고 40세 가까이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49세 때 정식으로 화가로써 몰두를 하게 되지만, 당시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화가들에 비해 조롱거리가 됐다. 그랬던 그가 이름을 알리게 되고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만년의 정글 시리즈부터인데 실제 정글이라기보다는 상상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가 정글을 그리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녹색은 어둡고 깊으면서 다양한 색채를 보여준다. 특정 화단에 몸담지 않았던 루소는 어쩌면 자신의 입지와 비슷한 녹색에 더 끌렸는지도 모른다.





〈꿈〉 (1910)



〈Monkeys in the jungle〉 (1909)

-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44-1910)

반 고흐가 룰랭 부인을 처음 그린 것은 발작으로 귀를 절단하기 며칠 전이었다. 이 사건 이후 룰랭 부인을 그리는 것은 반 고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근원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초록색으로 찾게 된 것이다. 하지만 룰랭 가족이 마르세유로 떠나게 되면서 반 고흐는 이 그림 연작을 룰랭 부인 없이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그려진 <자장가> 연작은 모두 여섯 점으로 이뤄져 있다. 반 고흐는 룰랭 부인에게 이 연작 가운데 한 점을 주었고, 그가 그린 룰랭 부인의 초상은 모두 여덟 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룰랭부인의 초상화〉



〈요람을 흔들어 주는 룰랭부인〉

II. 생활 속의 초록

1. 컬러 마케팅

→ 스타벅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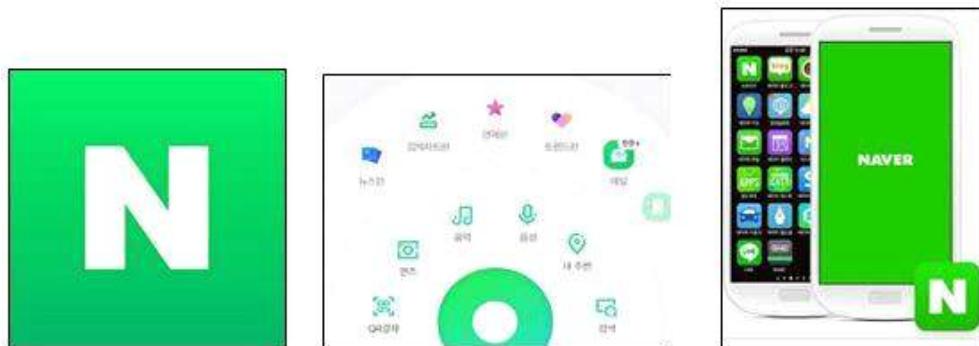
- 신선함, 건강함을 상징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초록색을 기업 컬러로 선정하였다. 스타벅

스는 초록색의 로고를 씀으로써 자신의 커피가 건강하고 신선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 네이버

- 자사의 성장성을 기본적으로 확장성과 다양화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즉,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이트들로 뻗어나가고 다양한 사이트를 소개해주는 한 그루의 나무를 상징하는 초록색을 선택하였다.



2. CI(Corporate Identity)



제 13차시. 색채의 상징(분홍, 보라)

I . 분홍의 상징

1) 정서적 연상

- 빨간색과 흰색을 섞은 2차 색상이다.
- 중세는 왕자의 색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현대사회에서 분홍은 여성의 색깔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분홍은 사회적 편견이나 성별로 판에 박힌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만 아니라면, 남녀 구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색이다.
- 구체적 연상: 꽃, 신데렐라, 소녀, 사탕, 립스틱, 딸기
- 추상적 연상: 귀여운, 사랑, 달콤함, 부드러움, 순진함

2) PINK 라는 단어의 등장

- 17세기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옅은 빨간색’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최초로 쓰였다.

- 핑크 안료는 갈매나무 열매나 양골담초 추출액 같은 유기질 색료를 무기질 재료에 더해서 만들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잘려지는

‘핑킹가위pinking shears’는 핑크색 패랭이꽃 잎의 끝 모양과 닮아서 그 꽃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패랭이 꽃 (Chinese pink)

3)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달콤함, 애로틱함, 로맨틱함, 기적, 귀여운, 애교, 섬세함	경박함, 믿음직스럽지 못함, 예민함, 유치함

2. 심리적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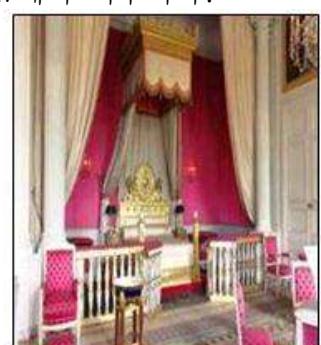
1) 치료적 접근

- 내면에 **분홍색이 부족할 때**의 반응: 인내력이 부족하다, 자제력이 약하다, 어린아이 같다.
- 내면에 **분홍색이 과할 때**의 반응: 성에 집착한다,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며, 외롭고, 지쳐 있다.
- 분홍은 고독감, 의기소침, 신경과민과 마음의 상처를 완화시킨다.

3. 분홍의 역사

- 기원전 8세기에 쓰인 오디세이에서, 호메로스가 평크를 새벽의 장미 색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때, 아침의 아이인 장밋빛 새벽이 나타났다…”
- 로마 문화에서 라틴어 로제우스는 동명의 꽃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평크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후 평크라는 단어가 색상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 18세기: 루이 15세의 애첩 마담 퐁파두르는 평크 마니아로 알려져 있어, 베르사유 궁전에 파스텔 컬러 열풍을 몰고 왔다. ‘Rose Pompadour’는 지금도 사기그릇의 색깔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 ‘평크 = 여자의 색’이라는 인식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여자 신생아에게 평크 옷을 입히는 풍습이 존재했다. 당시 여자아이에게 입히는 옷은 ‘로즈 봉봉’, 남자아이에게 입히는 옷은 ‘블루 베베’라고 불렀다. ‘로즈’는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색인데, 이 시기 여성 중심의 문화가 꽃피었다. 장미꽃을 좋아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조세핀 왕비, 당시의 귀부인들은 드레스와 가구, 식기 등을 평크로 물들였다.

- 분홍색 역삼각형(pink inverted triangle)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동성애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분홍색 역삼각형의 표식을 만들어 달았다는 데서 유래했으며 나치에 희생당한 동성애자들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기리기 위해 1970년대



이후부터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사용하였다. 현재 무지개깃발과 함께 게이프라이드의 심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치 강제 수용소(Dachau)의 동성애자 인식표

- 1950년대 새로운 핑크 열풍을 이끈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 마리 아이젠하워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취임식 때 마리가 입은 핑크 드레스는 전쟁 중 흙투성이가 되도록 일했던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전승국 영부인은 과연 남편만큼이나 과감했다! 영부인 마리 아이젠하워(Marie Eisenhower)는 남편의 취임식 때 굉장히 인상적인 핑크 드레스를 입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에도 그녀는 수많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핑크를 입었으며, 많은 보도 자료들은 그녀의 수식어에 ‘핑크(pink)’를 넣었다. 그녀가 애용한 핑크는 ‘마리 핑크’로 불렸고, 주부들 사이에서는 부엌과 욕실을 마리 핑크로 칠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 1950~60년대는 영화배우 및 패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사랑하는 컬러로 유행되었다.

- **핑크머니(Pink money)**: 도로시 달러로도 알려진 핑크 달러와 핑크 파운드는 동성애자 사회의 시장구매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동성애자의 연간 구매력은 2012년 기준 미국에서만 2조 달러로 집계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 나이키는 2012년부터 LGB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에서 모티브를 딴 ‘비트루(Be True)’ 컬렉션을 출시하고 있다. 아디다스 역시 작년 LGBT 인권의 달인 6월에 아디다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3종의 LGBT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처럼 실제 LGBT 커뮤니티를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상품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II. 생활 속의 분홍

1. 컬러 마케팅

→ 예비앙(evian)

- '예비앙(evian)'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기발한 마케팅 덕분이다. 생수 용기는 물의 신선함과 시원함을 강조시키기 위해 푸른색 계통의 차가운 색을 넣어 디자인 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예비앙은 분홍색을 대표 컬러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비앙(evian)이 분홍색을 대표 컬러로 선정하여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300ml의 생수를 구매하는 주 소비자가 여성인 때문이다. 예비앙은 물의 신선함 표현보다는 주 고객의 선호색으로 디자인하여 타 동종업계 브랜드와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비앙은 생수 용기의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고자 표면에 요철을 넣어 포장 및 운송 편의를 도모하는 등 실용적인 부분에서의 기발한 차별성도 보여주었다.



2. CI(Corporate Identity)



III. 보라의 상징

1. 연상

1) 정서적 연상

-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Violet 이라고 지칭. 파장이 가장 짧은 색이다.
- Purple 과 violet 의 구분: 바이올렛은 푸른빛이 많이 감도는 보라색이고 퍼플은 붉은 빛이 많이 감도는 보라색이다. Purple은 무지개 색에 포함되지 않고 빨강과 파랑을 섞은 혼합색을 뜻한다. 보라색은 초록색과 달리 심리적으로도 2차색이다(빨강과 파랑을 떠올리게 함). 고차원적인 우주를 연상케 하고 영적 각성과 사색을 상징한다.
- 구체적 연상: 제비꽃, 라일락, 포도, 양배추, 자수정, 대림절
- 추상적 연상: 수난, 황혼, 불안정, 분열, 마법

2) 학자들의 해석

- 슈테파네스쿠 고안가: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색에 떠오르는 단어를 “황혼”이라고 언급하였다.
 - 피테: “세상 멸망의 끔찍함”을 표현하는 색이라고 색채론에 명시하였다.
 - 하이멘달: “가장 통일성이 없는, 분열이 심한 색”
 - 코스틀린: 파랑과 빨강이 합쳐지는 곳에서 “실제적인 배합이 아니라 합류를 보는데, 두 색의 에너지는 여기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려 한다.”
 - 칸딘스키: “보라는 육체적, 심리적 의미에서 가라앉은 빨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라는 어떤 병적인 것, 힘을 잃은 것, 슬픈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 심신이 피로할 때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색이며, 이성적 프로세스와 활동에 대한 욕구가 합쳐져 활발한 두뇌활동을 자극.
- 호텔 체인업체 트레블로지(Travelodge, 2013)의 영국 2,000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침실의 색상과 수면시간 관계연구: 파란색(평균 7시간 52분)에 비해 보라색(평균 5시간 56분)이 현저하게 숙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경우

- 지나치게 보라색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신체질병을 앓고 있거나,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반대로 훌륭한 리더형의 자질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3. 보라의 역사

- 보라색은 기원 전 1600년경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니키아는 ‘보라색의 땅’을 의미하며, 오늘날 레바논의 유서 깊은 도시인 티레에서 생산된 ‘티레산 자주색(Tyrian purple)’은 ‘왕실의 자주색(로얄 퍼플)’ 또는 ‘제국의 자주색(임페리얼 퍼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 지중해에 서식하는 ‘무렉스 브란다리스’ 와 ‘푸르푸라 하에마스 토마’ 등 여러 종의 고등에서 보라색 염료를 뽑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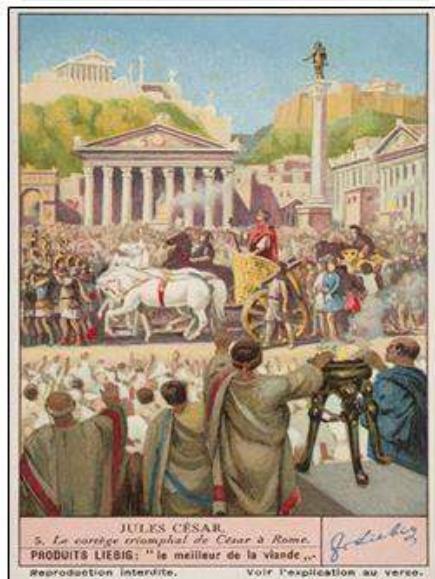
- 고등이 극소량으로 분비하는 무색의 점액을 장시간 달임.(노란색 염료 → (햇빛에 건조) → 초록색 → 빨간색으로 변색 → 보라)

- 보라색 1g = 고등 약 1만 마리

- 고대 로마: 황제의 포고령에 따라, 평민이 최고급 자주색 염료로 염색한 옷을 입으면 대역 죄인으로 간주하였다.

- 정복전쟁에 나섰던 장군은 로마로 돌아와 개선식을 할 때 꼭 자주색 망토를 걸쳤고, 정치인들도 포인트로 자주색 소품을 착용하였다.

- 로마 제국 후반기에는 황제와 교황만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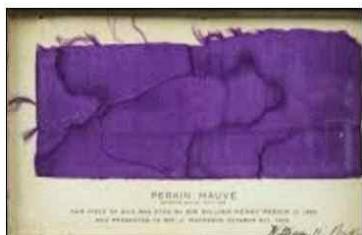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일행들



대학의 교수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 초기 기독교 시대를 거치면서 비잔틴 제국의 통치자들은 제국주의 색으로, 외교적으로 선물로, 황실 문서와 성경 페이지에도 보라색을 사용하였다.
- 페킨은 말라리아 특효약인 키니네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한 발견으로 우아한 보라색을 띠는 모브(Mauve)를 발견하였다.
- 1910년대: 여성 참정권 운동이었던 서프레제트(Suffragette)를 상징하는 색 → ‘혁명’과 ‘변화’, 여성 운동의 색으로 상징되고 있다.



인공염료 모브 (mauve) 샘플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1908-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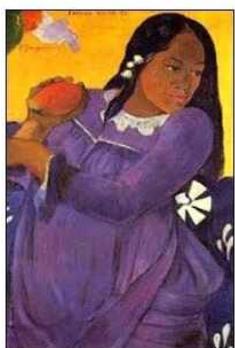
프랑스의 반(反)페미사이드 시위

- 1960~70년대: 대항문화 자체를 상징하는 색으로 발전하였다. 지미 헨드릭스, 딥 퍼플 등 히피문화를 대표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보라색을 자신의 상징색으로 활용. ‘변화를 상징하는 색’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4. 예술과 보라

1) 회화

-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



망고를 든 여인 (1892)



Sacred Mountain(1892) 필라델피아 미술관

IV. 생활 속의 보라

1. 컬러 마케팅

→ 마켓 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라색을 보면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켓 컬리가 보라색 컬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보라색을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먹거리라는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CI(Corporate Identity)



제 14차시. 색채의 상징(주황, 갈색)

I . 주황의 상징

1. 연상

1) 정서적 연상

- 가시광선의 색 중에서 빨강 다음으로 파장이 긴 색 (585~620nm)이며 에너지와 흥분에 관련된 빨강과 명랑하고 낙관적인 기원인 노랑의 결합이다.
- 친근하고 에너지와 재미가 있는 색이며, 악의 없는 장난기를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정한 대화를 촉진하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색이다.
- 구체적 연상: 불, 오렌지, 당근, 호박, 구리
- 추상적 연상: 식욕, 사교성, 축제, 뜨거움, 외향적

2) 식욕의 색

- 2015년 알칸사스 대학에서 112명의 남녀 참가자들을 밤새 금식하도록 한 후 흰색, 주황, 파랑색 방 중 한 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였더니, 주황색 방(노란색 조명)에 식사량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
연구: 일부 색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식욕을
자극하여 식사량을 더 많이 섭취하게 한다.
빨강, 주황, 노랑(난색계열)



→

3)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즐거움, 유쾌함, 따뜻함, 활동성, 사교성, 축제, 호기심, 충만한, 일몰, 가을, 용기	위험, 경계, 경고, 변덕스러운, 과시, 경솔함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 정신을 고양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소화기능에 도움을 준다.

(ex: 소화제 ‘베아제’의 제품색

변화. 2004. 초록색→주황색)

- 신경쇠약, 우울증, 슬픔,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이 된다.

- 식욕을 돋게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하다.

- 정서적 특징은 사교적인 빨강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건설적으로 행동하는 특징. 따뜻하고 명랑함을 나타내는 색이다.



3. 주황의 역사

- 고대 이집트 예술가들은 중세 예술가들이 주황색을 내기 위해 광물에서 안료를 생산했다. Orpiment는 로마제국에서 중요한 무역 물품 중의 하나이며, 비소 함유 및 독성이 강하여 독(Poison)화살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중국, 서양 모두 연금술사들에게 인기 있는 색이 되었다.



- 16세기: 스페인 통치하에 있던 네덜란드. 스페인은 절대주의와 카톨릭을 공고하고, 네덜란드의 개신교를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1만 8000여명이 처형되었다. →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발발.



- 오라녜 공국의 빌럼(Willem) I세: 네덜란드 초대 세습 총독이자 스페인과 가톨릭에 저항한 네덜란드 독립 전쟁의 지도자.

- 오라녜 가문의 대표색은 주황이며, 개신교의 상징색이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색이다.



- 18세기: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님프. 정원을 가꾸는 일과 과일 재배를 담당. 여러 신이 사랑을 구하였으나 포모나는 오직 정원 가꾸기와 탐스런 과일을 열리게 하는 일에만 열중하여 모두 거절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라틴어 pomum, "fruit", 과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 독일 전자제품 제조업체 블라우풀크트(Blaupunkt)의 '팝 70' 라디오는 1970년대 초엽 대중 소비자용 가전제품 디자인의 전형. 형태는 1960년대 말 미국 팝 아트 비주얼을 표현했고, 소재는 저렴하고 조형이 쉽고 매력적인 20세기 신소재의 대명사인 플라스틱을 사용하였다.



'오렌지 시대(The Orange Age)' 전시회 중 다이얼식 전화기 디자인과 올림피아 휴대용 타자기의 모습.

4. 국가

→ 태국

- 불교와 힌두교 문화에서는 주황을 신성한 색깔로 여기며, 주황은 깨달음을 상징하고, 최고의 완벽한 상태를 뜻함.



II. 생활 속의 주황

1. 컬러마케팅

→ SK 텔레콤

- 2005년. 글로벌 진출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설정하면서 차가운 이미지의 파란색 대신 창조·발전을 상징하는 주황색을 도입하였다. SK로고의 Orange는 행복, 친근감, 환영을 상징하고, CI는 흰 바탕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CI(Corporate Identity)



III. 갈색의 상징

1. 연상

1) 정서적 연상

- 갈색의 온극 : 황갈색, 붉은 갈색: 온기가 있는 대지의 색. 생명과 따뜻함을 나타내는 대지의 어머니의 상징성, 대지가 지니는 보호적 관점은 나무껍질의 따뜻한 갈색과 동물의 털, 요리된 음식을 연상케 한다.
- 갈색의 냉극 : 겨울의 단단하고 벌거벗은 대지를 연상하게 하는 모든 것. 퇴색된 나뭇잎, 결식을 하는 배고픔(중세시대의 죄인이 걸치는 갈색 포대), 경멸과 무시를 받는 느낌, 가혹한 교육의 강제성(갈색 유니폼, 갈색 부츠)을 연상케 한다.

2) 심리학적 연상

- 갈색은 심리학적으로 안정을 의미하며, 수용적이며 수동적인 느낌을 준다. 활력 있고 감각적인 느낌, 저항력과 가치 주장, 관찰력, 인내력, 지구력을 나타낸다.

- 갈색을 좋아하는 사람: 행동과 이해가 다소 느린 편이나 마지막에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충동성을 완화하며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수줍음이 많고 정이 많고, 사물을 바위처럼 들판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을 격려해 준다. 건실한 정신의 지침으로써 ‘내게 맡겨라’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하는 버릇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해치우는 능력자이다.

3)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부드러움, 자연스러움, 온화함, 안정적인, 소박함, 겸손함, 수수함, 고전적, 클래식, 맛있는, 향이 강한	낡은, 썩은, 늙음, 퇴락, 촌스러운, 보수적, 대변의 색, 결벽증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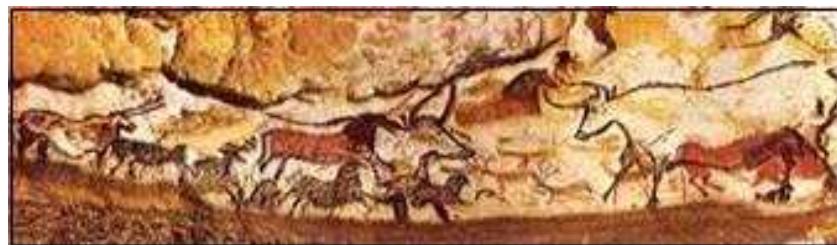
- 흙을 만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치료에 필수적인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점토는 치료의 중요한 매체로 사용(점토를 주무르고 만지며,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게 됨. 동시에 감정이 이완됨)된다.

- 신경과 감정이 양극화하는 경향의 사람, 우울함과 체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피상적인 사람에게 사용하면 좋다.

- Jung 학파의 야코비는 강박증 및 노이로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갈색과 우물을 많이 나타내는 그림시리즈를 그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3. 갈색의 역사

→ 라스코 동굴: 프랑스 남서쪽에 위치. 기원전 15000~13000년경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후기 구석기 시대 그림에서 갈색이 사용되었다. 1979년에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고대 로마: 일반 시민들은 갈색 혹은 미색의 토가(toga)를 착용하였다. 중세시대에는 프렌치스코의 수도복이 갈색이었다. 그들은 겸손과 빙곤의 표시로 착용하였으며 회색과 갈색은 가난한 사람들의 색으로 여겨졌다.



→ 상긴(Sanguine): 붉은 계열 브라운색 분필. 재료의 특성상 마른 피의 색깔을 띤다. 수세기에 걸쳐 드로잉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흰색 분필은 색지에만 사용함), 상긴으로 그린 드로잉도 ‘상긴’이라고 부름



프랑스에서 제작된 상긴 드로잉 (18세기 말)



〈sanguine dry〉

4. 예술과 갈색

1) 회화

→ 렘브란트 (Van Rijn Rembrandt, 1606-1669)

- 가난하고 궁핍했던 렘브란트는 쓸 수 있는 안료는 한계가 있어, 금이나 울트라마린(짙은 청색)등 비싼 색은 쓰지 못하고 값싼 갈색 종류의 재료만 사용. 렘브란트의 갈색은 화가의 정직성과 진지함까지 표현하는데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대 렘브란트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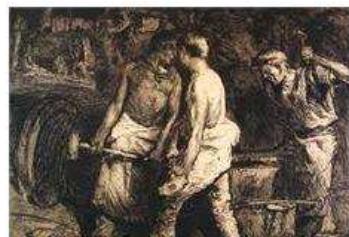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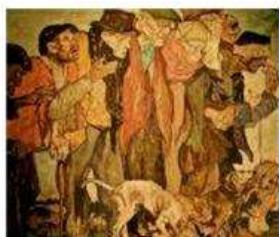
<20대 렘브란트 자화상>. 1629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1632

→ 프랭크 브랭гин(Frank Brangwyn, 1867-1956)

- 영국화가. 짚주림이 길었던 뼈가 앙상한 개들과 원시적인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군상을 보여준다.



좌: <괴로워하는 사람들>. 1932

우: <대장장이>. 1907

IV. 생활 속의 갈색



1. 컬러 마케팅

→ 루이비통

- 브라운 소재는 가죽 제품과 패키지에 사용되며, 매장의 브라운은 모노그램이 사용되는 곳에서 볼 수 있다. 성숙한 인간의 향기가 느끼게 하는 색이며, 성실함과 인내를 지닌 색이다.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훌륭한 가치를 보여준다.



2. CI(Corporate Identity)



제 15차시. 색채의 상징(하양)

I . 하양의 상징

1) 정서적 연상

- 고결하거나 순결, 순수, 신성, 깨끗함의 이미지를 준다.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빛과 소금 역시 흰색이다. 하양은 인간의 주식인 쌀이나, 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주식이 되는 우유를 연상케 한다.

“아무것도 없는 비워진 색이자 모든 것이 채워진 완성의 색이다.

하양은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이다.” - Wassily Kandinsky -

- 구체적 연상: 눈, 구름, 빛, 밀가루, 비둘기, 웨딩드레스

- 추상적 연상: 순수, 신성함, 성스러움, 항복, 공포의 존재

2) 선호와 기피의 성향

- 흰색을 너무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 동요가 숨겨져 있으며, 그러한 내면으로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종교적 집단에서 흰색을 선호하는 것은 순수함과 단순한 생활의 욕구와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종교적 관련 없이 항상 흰색만 입는 경우는 미성숙함을 보여주거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하양을 다른 색과 섞어 입으면 생동감이 있고 평형을 유지하는 성향이 있고, 아동들은 대부분 하얀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자연의 하양

- 눈: 높은 곳의 공기와 작은 얼음 결정이 섞인 것. 눈은 거의 모든 빛이 공기와 물 분자에 의해 반사되거나 흩어지므로 눈은 태양 빛의 흰색으로 보인다.

- 구름: 공기와 섞인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며 대부분의 빛이 산란되어 눈에는 하얗으로 보인다.

- 해변의 흰 모래: 석영과 침식된 석회석이 햇빛을 흡수하거나 흡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빛, 밝음, 순수, 순결, 투명, 완벽한, 깨끗함, 청결, 고결함, 성스러움, 숭고함, 공평성, 신뢰성, 정직성, 엄격함, 정확함, 지혜, 영적인, 정화	죽음, 무서움, 두려움, 차가움, 삭막함, 결벽증, 항복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 신경과민의 사람과 격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투쟁심을 억제시킨다.
- 하양을 좋아하는 사람 :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여 잃고 싶지 않는 소망이 있거나, 완전함을 목표로 하여 이상을 추구한다.
 - 개방과 자유의 잠재성이 있어 내적 정화의 작용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불안감이 있을 때 도움이 되고,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좋다.
 - 하양은 냉혹함이나 정서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고, 불안, 정신착란의 심리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색과 조화가 필요하다.

2) 언어적 접근

- 머릿속이 하얗게 되다: 텅 빈 상태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난다.
- 백기를 들다: 항복하다

- 백마 탄 왕자: 여성들이 바라는 완벽한 남자를 지칭하는 문구
- 백주대낮: 한참 밝은 대낮
- 백지수표: 서명은 되어 있으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
- 백악관(The White House):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
- 하얀 거짓말: 선의로 하는 거짓말.
- 화이트 칼라(White collar): 사무직 노동자를 지칭.

3. 상징성

1) 역사

- 고대 이집트에서 백색은 여신 ISIS의 사제들과 제사장들이 흰 모시 옷만 입고, 미라를 감싸는 데에도 역시 흰색 모시만을 사용하였다.
-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둠과 빛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고 흰색은 근본적인 색이라고 믿었다.
-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들은 그림에서 4가지색(흰, 노, 빨, 검)만 사용하였다.



- 15세기: 어린 양과 갓난아이를 안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여인. 성경 속 어린 양은 항상 순결한 번제 (Burnt offering)의 동물이면서 순수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하얀 털과 작은 아기 같은 크기가 성경 속 마리아와 어린양과 같은 느낌을 준다. 하얀 털의 어린 양은 나약하며 구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상징된다.

〈Innocence - William Adolphe Bouguereau〉



- 16세기: 애도의 색으로 사용된 하양. 프랑스 왕들의 과부들은 흰색 옷을 착용하였다.
- 하양 튜닉은 많은 기사들이 빨간 망토와 함께 착용하여, 기사들이 왕이나 교회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 18세기: 유럽 상류층들은 자신의 신분의 고결함을 표현하는 도구로 남성들은 흰색 가발과 흰 스타킹을 신었다.
그 당시에는 파스텔 톤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



- 20세기: 1921년 티타늄 광석에서 추출한 안료 티타늄 화이트. 한국에는 1960년 수입. 완벽한 불투명함으로 우수한 도포력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일과의 혼합에도 용이하여 화가들에게도 사랑 받고 있다.

2) 국가

→ 대한민국: 백의민족(白衣民族)

-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흰옷 입기를 좋아하였다는 기록은 중국의 역사책 「위지 동이전」에 “부여는 흰색을 숭상하여, 흰옷을 널리 입었다.” 는 기록이 있으며, “푸른 들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사람들의 옷이 모두 희었다.” 는 내용이 존재. 조선 시대 역시 태조 때부터 흰옷 착복을 금하는 금지령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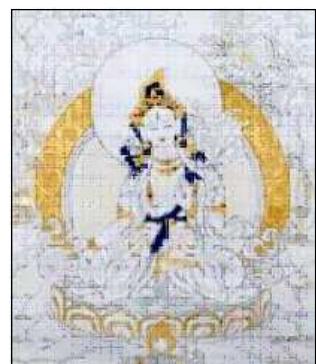
현종(1659~1674), 숙종(1674~1720) 때도 흰 옷을 입는 것을 금하는 어명(御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목화로 짠 하얀 무명이 많이 통용되고 있었고, 쟁물로 표백하는 기술이 성행하고 있었기에 백성들은 무명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 태국

티벳의 여신: Tara(관세음보살과 더불어 티베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보살). 달 모양의 부드러운 형상을 한 선(善)한 여신이다. 평상시에는 녹색으로 많이 나타나며 흰색의 타라 여신은 모든 색을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 빛의 굴절 앞에서는 각각의 색으로 나타나며. 왼쪽 눈물이 화현(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여 세상에 나타남)한 백색 타라 보살은 중생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보살이다.



4. 예술과 하양

1) 영화 속의 하양

- 장예모 감독의 영화 <영웅(2002)>



‘무명’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 등 3부분으로 나뉜다.

이를 이야기는 진실에 대한 접근을 각기 다른 색감으로 펼쳐낸 영화이다. 주인공 무명(이연결)이 입은 옷의 색으로 대표되는 겹정은 그의 이름처럼 본질이나 무(無)를 뜻하고 파랑과 초록은 슬픔과 희망을, 흰색은 진실과 죽음을 의미한다.

II. 생활 속의 하양

1. 컬러 마케팅

→ 캐릭터: 북극곰(코카콜라), 수호랑(평창올림픽)

- 성공한 브랜드에는 강력한 캐릭터가 존재. 소비자가 캐릭터를 접하는 순간 상업적 목적을 지닌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소비자와 소통하고 싶은 친근한 대상으로 동물들이 주로 사용된다. 특히 흰색은 성별, 국적, 정치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소비자가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 캐릭터: 비벤더(미쉐린 타이어)

- 캐릭터계의 시조새로 불리는 ‘비벤덤(Bibendum)’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세기의 아이콘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2. CI(Corporate Identity)



제 16차시. 색채의 상징(검정)

I . 검정의 상징

1) 연상

1) 정서적 연상

- 검정은 밤과 어둠을 상징하지만 새로운 시작과 임태를 위한 준비단계의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한다. 검정은 어둠의 힘,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 비탄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며, 남성의 경우 부족한 것이나 상실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자신이 소유하는 것(지위, 재물 등)을 암시하는 표시로도 사용.
- 구체적 연상: 밤, 동굴, 그림자, 지옥, 석탄, 숯, 까마귀
- 추상적 연상: 심연, 절망, 어두움, 죽음, 슬픔

2. 심리적 작용

1) 치료적 접근

- 미술치료나 색 명상에서 검정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억압된 감정, 억제된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검정은 치료과정에서 카타르시스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자궁 속의 어두운 색으로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보호받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상황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 미의식을 높여주고 자기내면을 통찰하게 하는 색이며,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색이다.

2) 선호와 기피의 성향

- 우리나라 사람 1507명을 대상으로 색 선호 조사에서 ‘검정’에 대한 답변 결과, 남성의 경우: 12.2%, 가장 좋아하는 색 3위 / 여성의 경우: 7.8%, 가장 좋아하는 색 7위 / 아동의 경우 10세 미만에서 선호도는 2%에 불과하다. 그러나 2~30 대의 여성들에게 선호도는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의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남녀 불문하고 가장

싫어하는 색으로 ‘검정’ 을 꼽았다.

3) 언어적 접근

- 블랙리스트(Blacklist): 요주의 인물들의 목록
- 블랙메일(Blackmail): 상대방을 협박, 공갈하다
-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 목요일에 발색하는 부정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용어. 1929년 10월 24일 뉴욕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던 데서 유래.
- 흑기사: 주군과 명확한 주종관계를 맺지 않은 기사
- 블랙아웃(Blackout): 정전, 소동. 띠어 쓰면 ‘정신을 잃다’

4)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고급스러운, 엄숙함, 절제, 힘, 권력, 세련된, 품위 있는, 정중한, 우아한, 관능적인	죽음, 어두움, 두려움, 공포, 죄, 악마, 절망, 침묵, 요주의, 시체, 반항

3. 상징성

1) 역사

- <창세기>에서 신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 깊은 심해 위에는 짙은 어둠만이 존재. 그 어떤 색깔도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였다. 원초적인 어둠은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등 많은 신화에서 묘사되고 있다.
- “태초의 텅 빈 어둠 속에 검은 새 Nyx만 존재했으며, 이 새가 낳은 황금알에서 최초의 신 Eros가 태어났다…….”

- 신화나 성서에 까마귀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까마귀의 지능이 높으며 특히 예언자의 모습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을 보필하고, 켈트 신화에서는 루구스를 보필하며,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을 보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피해 숨어 지낼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 고기와 빵을 물어다 주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 아랍세계에서 검은색은 애도를 나타내는 색이다. 이전 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복수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나갈 때 보여주는 색이기도 하다.

- 무함마드의 깃발은 자신에게 굴복하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14세기 중반에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1/3이 사망했고 그 여파로 속죄하는 심리, 절제라는 가치로 인해 검은색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 페스트가 만연한 뒤로 제정된 사치 금지법은 귀족이 아닌 사람은 특정 색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분명하게 구별하였다. 귀족들은 법을 피해 사회적으로 허용된 검은색을 사치스럽게 입고 즐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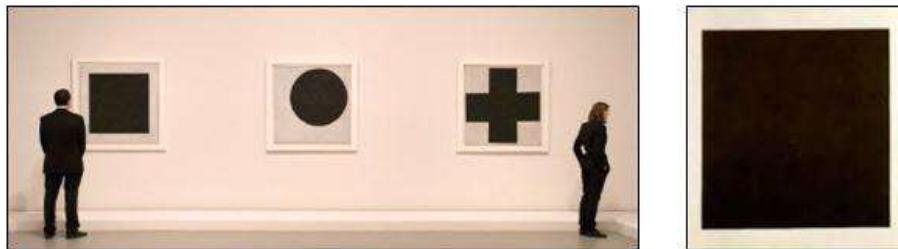
- 15세기에 강성했던 부르고뉴 공작의 영토에서는 세계 최고의 직물과 염료들을 접할 수 있었다. 공작은 검은색을 자신의 상징색으로 택하여 즐겨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스타일까지 결정하기도 하였다.

- 20세기: 검은색의 화려한 부활을 신고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을 비롯해 회화는 검은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회화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검은 사각형’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되짚어 보게 하는 작품이다.



〈불가리아의 엘리야 성화〉 1700.





카지미르 말레비치 'Black Square', 'Black Circle', 'Black Cross'

- 남성복에 뿌리내린 검은색의 시크함을 여성복에 담고자 했던 샤넬의 검정 원피스.
철저히 장식성이 배제된 옷은 여성 점원과 상류층 여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의복에서 성별 및 계급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전복 시킨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

2) 국가

➔ 범아프리카 색(Pan-african colours): 초록, 노랑, 빨강

1920년 세계흑인지위향상협회(Black Nationalism)에서는 노랑을 빼고, 검정을 넣어 초록, 검정, 빨강을 범아프리카색으로 지정하였으며, 범아프리카색 국기를 채택한 국가는 8개국에 달한다.



➔ 아나키즘 (anarchism): 사회를 아나키의 상태로 만들려는 정치적 철학적 사상이며, 사상가는 아나키스트라 한다.



- 검은 깃발은 1880년대부터 아나키즘과 보편적으로 관련되기 시작하였다.
1883년 3월 9일 프랑스 파리 실업자들의 시위에서 Louise Michel은 검은 깃발을 들고 등장. 당시 실업자들의 야외 시위는 500여명의 규모로 이루어졌다.

4. 예술과 검정

1) 회화

→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3-1610)

16세기 화가 카라바조는 검정색을 예술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인물의 탄탄한 육체를 묘사하면서 얼굴과 신체의 일부에만 빛을 비춰 밝게 묘사하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숨겨버리는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려 20대 초반부터 유명해졌다.



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1601.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1605~1606.

〈나르시스〉 1597-1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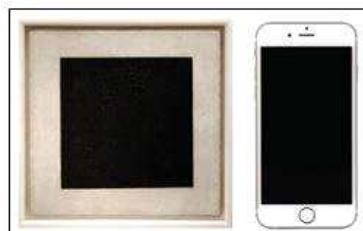
→ 카지미르 세베리노비치 말레비치(1879-1935)

“모든 대상을 불태워 검은 사각형 안에 매장시키고, 그 순수한 무(無) 위에서 출발해야만 진정한 창조가 가능하다. ‘검은 사각형’이야말로 세계 미술사 최초의 ‘순수한 창조’이다.”

- 말레비치 -

말레비치는 아름다운 풍경화나 인물화를 보며 그림의 본질보다 그 아름다움에만 심취하던 당시의 풍토에서, 한 인간의 중심에 자리 잡은 본성에 집중하는 ‘절대주의’를 창시하였다.

-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아이폰은 1915년에 시작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Suprematism)’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받음.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1915, 모스크바 트레이차코프 미술관)과 아이폰 6 골드

II. 생활 속의 검정

1. 컬러마케팅

→ 현대카드

- 서비스에 어울리는 키 컬러 설정을 통해 서비스와 컬러를 매치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카드와 서비스 내용을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연회비를 내야하는 Vip 소비자들을 위해 블랙 카드를 출시하였다.



2. CI(Corporate Identity)



제 17차시. 색채심리 상담의 실제(만다라)

I . 만다라의 의미와 상징

1. 만다라의 의미

1) 어원

- 만다라(滿茶邏, Mandala) 고대인도 범어(산스크리트어) / 뜻: 원(circle)
- 우주의 본질이 가득한 **원형의 바퀴**
- 만다(滿茶)는 중심 또는 본질을 뜻한 접두어 / 라(羅)는 소유 혹은 성취를 의미하는 접미사.
- 정의: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 마음속에 참됨을 갖추고 있거나 본질을 원만히 하는 것.
- 인도나 티베트, 네팔 근교에서 주로 활성화 되었으나 그 문양의 특징적 형태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총체적 의미

- 밀교에서는 만다라의 명상을 통하여 **중심과 본질을 얻는 깨달음의 길**을 안내한다.
- ① 개인적 삶의 영역: 만다라를 보며 깊이 묵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 있으며, 자신이 삼라만상의 존재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식한다.
- ② 우주적 영역: 자연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③ 신적 영역: 만다라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신성(神性)이며, 내적 관조와 명상을 투영하고 내면의 체험을 심화한다.

2. 만다라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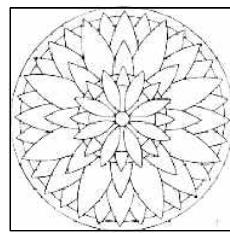
1) 형태

- 기본 형태인 원: 태양, 보름달, 꽃, 나무의 나이테, 거미줄, 새집, 달팽이, 조개, 소라, 과일의 단면, 사람의 눈 등. 만다라 형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세계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다.



2) 연꽃의 상징

- 서양을 상징하는 것이 장마라면 동양을 상징하는 것은 연꽃이다.
- 연꽃은 만다라에서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며 영원의 진리가 빛나는 자리이며 만개한 연꽃은 우주만물의 창조로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확산되는 에너지의 발현으로 본다.



3) 원의 상징

- 원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상징, 조화와 균형의 상징이다.
- C. G. Jung은 만다라는 그림, 춤, 조형물 뿐 아니라 둥근 보름달 아래서 원을 그리며 도는 강강술래 같은 행위에서도 문화, 역사, 종교를 초월해 인간정신의 통합과 내면의 질서, 화해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였다.
 -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그런 원 그림은 찌그러진다.’ 는 사실과 ‘계속해서 원을 그리게 하거나 모래 위에 원 모양을 만들게 하면 조금씩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정된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



- 집은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그의 자아를 상징, 집 가운데 동그랗게 뚫린 창문은 자아의 통합을 위한 상징물이다. <세한도>는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만다라이다. 원형의 그림 또는 형상으로 인간 내면의 모습을 의식체계로 표현하는 심리도구가 된다.

II. 심리치료로써의 만다라

1. Jung의 만다라치료

1) 용의 무의식

- 분석심리학자인 칼 용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용은 분석 심리학에서 무의식을 분석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었는데 분석 중에 만다라와 같은 문양들이 많이 나타나며, 그것이 조화되어 가면서 내담자의 상태도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만다라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을 연구하였다. 또한 용은 스스로 만다라를 그리기도 했는데, 일차 세계대전 중인 1916-1918년 영국 포로수용소에서 의사이자 지휘관으로 근무 중일 때 매일 아침 만다라를 그렸다. 그가 만다라를 그린 본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개성화(Individuation)의 추구였다. 그에게 있어서 만다라는 무의식의 심연에 담겨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과정으로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미술치료, 놀이, 수행 및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2. 대상

- Jung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신경증 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만다라를 그리게 함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얻었다.

1) 예방적 차원

- 특별한 정신증은 없으나, 일상에서 만다라가 필요한 사람.
① 해결하지 못한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 ②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에 시달린다.
- ③ 자신을 잘 통제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을 가진다.
- ④ 자주 우울한 상태에 있다.
- ⑤ 모든 일에 매우 과민하고 쉽게 감정이 폭발한다.
- ⑥ 자신의 문제를 다른 것(담배, 술, 폭식 등)으로 회피한다.

2) 치료적 차원

- 정신질환(강박증, 거식증, 폭식증, 성격장애, 조울증, 노이로제, 우울증, 자살충동 등)뿐 아니라 신체적 병도 포함된다.

① 성격장애: 그리기는 중심과 관련된 균형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분열된 인성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함.

② 조울증: 기분의 고저가 극심한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색하는 방법을 권함.

③ 죽음불안: 밖에서 안으로 채색하게 권하며, 인생의 종착역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여 우회도로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함.

④ 신체적인 병: 에이즈, 심장병, 치매, 암 등 만다라에 집중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집중하도록 도움.

3. 방법

1) 고요체험

- 학교에서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아이들에게 특히 좋다.
- 현대의 부모와 교사의 과제는 아동, 청소년에게 내적 고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 아동, 청소년에게 만다라를 그리게 하는 작업은 그들이 고요를 체험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홀륭한 길잡이가 된다.
- 장애, 문제 행동이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도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내적, 외적 균형을 느끼게 하며, 창의성에 대한 자신감을 준다.

2) 치료사의 지도방법

① 명상적 분위기

- 일상에서 물러날 수 있는 내적, 외적, 공간적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 주변 공간을 잘 정리하도록 하며,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치료사가 준비(미리 아로마 향을 피워 둠)한다.
- 책상, 명상을 위한 매트, 명상 음악, 초, 향, 연필, 지우개, 도화지, 각종 채색 도구를 준비한다.



② 호흡연습과 이완연습

- 명상 음악을 들려준 다음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잡지 말고 다시 호흡의 흐름을 관찰하며 그것에 집중한다.
- 두 손을 아랫배에 놓고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한다.
- 의자에 앉았으면 두 손을 펴서 무릎에 놓게 한다.
- 치료사는 차례로 몸의 부위를 말하며 들숨과 날숨, 긴장과 이완을 안내한다.

III. 만다라의 색채상징

1. 만다라의 색채 분석

- 만다라를 그릴 때 직관적으로 그 순간 자기가 쓰고 싶은 색을 사용하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 치료적 관점에서는 자신의 내적인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어 한다면, 현재의 기분을 나타내는 색을 즉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치료사의 역할이다.
 - 색 상징에 있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실수는 치료사가 가장 조심하여야 하는 태도이다.
 - 그림을 그리는 내담자의 느낌과 그의 말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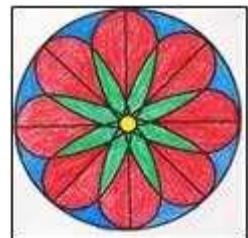
2. 만다라의 색채상징

1) 빨강

- 만다라에 빨강이 너무 많으면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 의심을 해보아야하며, 전혀 없으면 지나친 수동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2) 파랑

- 밝은 파랑: 사랑과 보살핌이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 어두운 파랑: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어머니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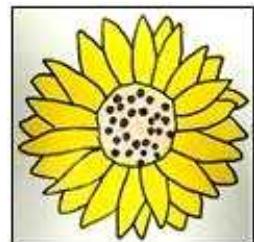


3) 남색

- 남색이 많은 만다라는 어머니와의 부정적 관계에 관련되어 깊은 불안과 갈등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어머니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무의식, 수면과 죽음에 관한 은유적 색채라고 볼 수 있다.

4) 노랑

- 노랑이 많이 보일 경우 갈등을 극복하는 시기이며, 내면화된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기이다. 강렬한 대비색을 이루었다면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내담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초록

-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강한 능력, 내면에 있는 치유의 힘과 창의적인 힘을 드러내며, 즐기는 것을 찾고자 하는 동경심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본다.

6) 주황

- 자의식과 자기회피를 동시에 표현하는 양면성. 방심과 부주의한 성향이나 에너지가 넘치는 목적지향성과 공명심을 나타낸다.



7) 분홍

- 분홍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섬세한 감정과 강한 보호욕구를 나타내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의 공격에 대한 불안 충동을 나타낸다.

8) 보라

- 강한 정서와 상승하는 창의력. 내적으로 긴장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특히 성(性)역할과 사회적 위치에서 갖게 되는 긴장과 관계된다.



9) 하양

- 하양이 우세하면 심오한 영적풍요를 나타내는 반면 심리적 압박감이 있다는 뜻이다. 내적 명료성, 영성적 민감성과 동시에 깊숙이 감추고 있는 감정을 나타낸다.

10) 검정

- 죽음이나 상실과 대결하는 무의식.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인성을 통합하고자하는 상태를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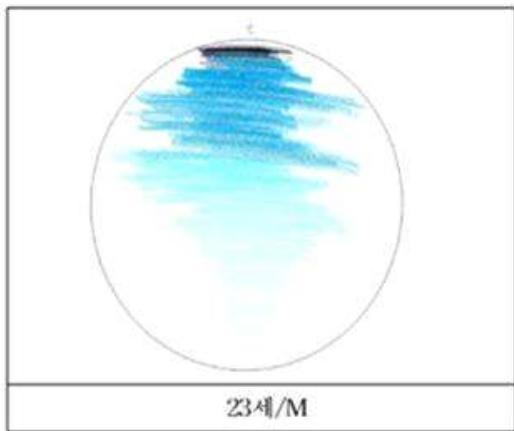
11) 회색

- 긍정적으로는 참회하며 삶의 지혜를 찾은 시점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는 우울증, 무기력, 무감각, 무관심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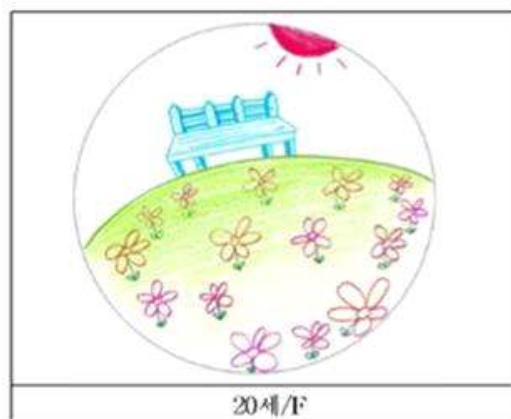
12) 갈색

- 갈색을 많이 쓴 사람은 자신감 부족이나 보호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추측. 또한 힘든 인생여정의 춤말을 상징.

3. 사례



- 진로고민으로 힘든 내담자의 만다라.



-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내담자의 만다라.

제 18차시. 색채심리 상담의 실제(아동)

I . 아동의 이해와 특성

1. 아동

1) 아동의 정의

- 법적 정의: 출생에서부터 만 18세 미만이 될 때까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인간.

- 사전적 정의: 보통 만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유아(만 4~6세)를 포함.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이 처음으로 제안·보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말로는 아이(줄여서 '애'), 아동(兒童)이라고 함.

2) 아동의 심리적 배경

- 가족의 구성이 점점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출산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소수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아동에 대한 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증가는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교육의 관심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다.

- 정서: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하여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을 뜻한다.

- 아동은 일종의 안정기로 정서면에 있어서도 혼란이나 흥분이 비교적 적은데, 이는 활동범위의 확대에 의해 많은 사람이나 사물과의 접촉 경험 풍부화가 안정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아동기에는 유아기의 감각적, 신체적, 물질적인 것에 벗어나 사회적, 도덕적인 것에 보다 강한 정서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3) 아동의 심리적 특징

① 공포감

- 아동기의 공포요인은 직접적인 자극에 대한 공포요인이 줄어들고, 상상력, 비현실적, 가상적,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공포심이 증가된다. (예: 어둠과 관련한 상상적인 사물이나 죽음, 귀신, 도깨비 등에 대한 공포, 실패와 비난에 대한 공포 등을 경험)

- 이 시기의 공포의 대상은 성인기에 와서도 그대로 공포감을 유발하고, 지적으로 발달할 수록 공포의 대상은 변화한다. (예: 질병, 물에 빠진 경험, 화재,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적 상해를 두려워하는 것이나, 특정 동물이나 곤충을 무서워하는 것,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공포 등이 성인기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

② 불안감

- 불안감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상할 때 생기는 약한 공포의 반응이며, 지속적인 기분과 감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압박감, 두통, 배탈 등의 신체적 반응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턱(tic)증상으로도 나타난다.

- 7~11세는 상상력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과잉 기대나 교사의 전제적 지도,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 불안을 오랫동안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행동이 나타나므로 불안 의식은 빨리 발견하여 치료를 해야 하지만, 적당한 불안의식은 행동규범에 대한 사회화를 가져와, 아동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③ 분노

- 아동기에는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데, 자신에 대한 보존과 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원초적인 양상. 자기의 욕구충족의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자주 일으킨다.

- 원인: 진행 중인 활동의 방해, 자신 결점의 꾸짖음, 다른 아동과의 비교, 욕망의 금지, 힘에 겨운 작업을 할당할 때 등.

- 아동의 분노는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급적 자극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분노를 유발할 때에는 적절한 지도로 제거해주어야 한다.

④ 질투

- 질투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애정의 혼합형으로, 자신에게 향하던 관심이나 애정이 다른 대상에게 옮겨질 때 일어나는 행동이다. 학령기 아동의 질투는 아동이 집에 없는 동안 동생이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모두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학령기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학급의 다른 아동, 인기가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동에게 옮겨지기도 한다. 주로 질투의 표현은 싸움을 걸거나 놀리면서 표현하고, 간접적으로는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대체로 질투심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거나 지능이 높은 아동에게 많이 나타난다.

- 여자아이 > 남자아이

⑤ 애정

- 아동의 애정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달, 성격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침.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아동은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다.
- 학령기의 아동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생활 장소가 넓어져, 교사와 학급학생에 대한 애정이 나타난다. (예: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고 싶은 욕구 때문에 친구를 도와주거나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남.)
- 애정은 인간관계의 소산이므로 풍부한 애정은 안정감의 기반이 된다.

2. 아동화의 이해

1) 연구배경

- 어린이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미분화(未分化) 상태에 있다. (즉, 자신과 타인, 놀이와 일, 거짓과 진실, 현실과 꿈 등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으며, 솔직하고 순수하게 표현.)
- 1887년 볼로냐(Bologha)의 이탈리아 어린이 그림을 해석 출판한 카라도리치(Carrado Rucci)와 바네스(Barnes)는 아동화에서는 어린이의 흥미, 성격, 지능, 환경, 의욕 등 어린이의 심리 발달과 연관 있음을 연구하였는데, 미술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어린이의 마음속에 내재된 욕구나 갈등을 해소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아동화의 특성

① 아동 미술은 일정한 발달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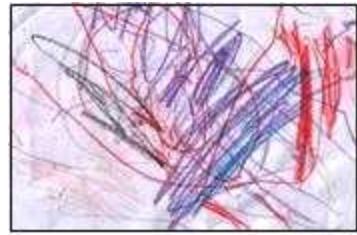
-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의 미술활동을 관찰한 결과,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각적인 미술 기법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며, 발달은 일반적으로 조작(난화)에서 상징으로 다시 사실로 발달해 가는 과정, 미분화에서 분화적인 표현으로 발달.

→ 로웬펠드(Victor Lowenfeld)의 ‘아동미술의 발달단계’

(1) 난화기(scribbling stage): 2~4세

: 미분화 상태의 표현으로 자기표현의 초기단계

착화(scribbling)의 단계로 방향감각 없이 상하좌우로 자유로이 긁적거려 놓는데, 이 시기는 무엇인가 그린다는 목적보다는 단지 손의 근육운동과 그 결과로 생긴 선들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 뿐이며, 활동을 통해 환경의 어떤 면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아동은 근육감각과 시각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감각운동을 연결시키며, 종이 위에 그려진 표시가 아동자신의 근육활동과 관계됨을 인식하게 된다. 이 시기는 부모와 교사의 격려 외에 더 좋은 자극이 없으면 간접은 아이의 운동감각 기능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2) 전도식기(preshematic): 4~7세

: 최초로 의도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시기. 자기 자신의 직접적 반영. 어른이 어린이를 이해하는 매개체가 된다. 2차원적인 그림을 그리며, 원시미술과 유사한 표현양식을 보이고 이집트 벽화에서 보이는 정면성의 법칙이 나타난다. 대상은 주로 사람이며 원은 머리로, 선은 다리로 표현한다. 색채를 구별하게 되고 감정과 정서에 따라 색을 선택한다. 그림의 주제가 ‘나’ 와 연관된 것이 좋다.

예) 나의 가족, 나의 꿈, 나의 소원 등



(3) 도식기(shematic): 7~9세

: 자기선이 나타난다. 접혀 그리기 기법, 투시 기법을 사용한다. 기저선이 나타나 바닥이나 땅을 나타낸다. 이 시기의 도식은 경험의 내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매우 개별적이라 동일한 도식이 없다. 중요한 부분을 과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생략하며 주관적인 인물과 공간개념을 표현한다. 그림의 확대, 강조, 축소, 생략의 현상이 일어난다. 창의성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시기다.



(4) 또래 집단기(gang age, 형태적 사실기): 9~11세

: 개인보다 집단의 힘이 있음을 알게 된다. 또래끼리 우정을 중요시한다. 성에 관심을 가진다. 사물을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리얼리즘의 시초 단계이다. 사실적 표현에 미숙한 아동들은 미

술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또래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정된 도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사물의 표현이 객관적이고 사람의 얼굴도 세부표현이 나타난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 색을 사용한다. 중첩과 기저선 사이에 공간을 인식하게 되며 위에서 본 모습을 표현한다.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갈등과 자아에 대한 지각과 자각을 하기 시작한다. 집단 활동에 적극적이며 협동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이 형성된다.

(5) 의사실기(pseudo-naturalistic): 11~13세

: 자기중심에서 외계 인식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사실적 표현 경향이 높아져 관찰묘사에 의존하게 된다. 묘사에 운동감이 많아지며 삼차원적 공간 표현이 가능해지고 명암, 음영 등을 표현한다. 아동화에서 보이는 독특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작품의 평가기준을 사실적 표현에 두게 된다. 그림이 잘 되거나 잘 안 되는 아동으로 점차 드러나게 된다. 시각화 현상으로 원근법을 알게 되며, 3차원적 표현을 구사한다.

(6) 결정기(사춘기): 13~17세

: 표현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진다. 환경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며 표현이 촉각형, 시각형, 중간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시각형은 외관과 비례, 명암, 배경, 원근 등을 중시한다. 촉각형은 내면정서의 표현, 색채나 공간표현이 주관적이다. 성인으로의 입문과정이며 자신의 행동이나 자기의 창조적 작품에 대하여 지각하게 되며 창조적인 작품에 대한 감각적인 활동이 주를 이룬다. 아동에 따라 그림 그리기를 계속하지 않거나 지지받지 못한 경우,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출처: 아동미술의 이해

② 아동은 내면의 생각과 정서, 감정, 상상력 등을 미술을 통해 표현한다.

- 아동은 미술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과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전체를 표현하고 반영한다.
- 심리학과 연결하여, 심리학의 주요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③ 아동의 미술표현에는 과장이나 축소표현이 나타난다.

- 아동은 자기중심적 표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형태는 과장하여 크게 나타내고, 그 밖의 것들은 축소하여 작게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④ 아동의 미술표현은 이야기 전개식이나 설명적인 경우가 많다.

- 아동은 미술표현을 할 때 그리는 대상과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림에 글을 함께 써서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대상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기도 하며,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전개를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내기도 함.

II. 아동의 색채표현과 분석

1. 아동의 색채표현

1) 색채표현의 특징

- 베티(Betty)는 “색채는 아동의 경험과 문화를 반영하며, 내적충동을 표현한다.”고 하며, 어린이는 누구나 자신의 세계 속에 색채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경험은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고, 주어진 환경에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 아동의 그림 속에서 그들의 정서 생활의 성질이나 그 표출의 심리 특히 잘 반영하는 것이 색채표현이다.
-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색채는 어린이의 당시의 정서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림에 표현된 색채는 다분히 개인적이다.

2) 색채방식의 특징

① 난색계열을 주로 사용하는 아동

-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감정적인 행동, 따뜻한 애정이나 관계, 같은 연령의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들의 두드러진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적이며, 다른 사람의 애정에 기대며, 놀이에서는 협동적이며, 잘 적응하고 있다는 말로 성격을 묘사할 수 있다.



② 한색계열을 주로 사용하는 아동

- 일반적으로 고도로 자기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나칠 정도로 순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 이들의 두드러진 행동은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며, 지적인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른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 어른들에게 의지하지도 않는 특성이 있다.



2. 아동의 색채와 성격분석

1) 빨강

- 빨강을 좋아하는 아동: 느낀 대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성격이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 같은 것은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 협동심이 있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다. 빨강을 써서 등근 형태의 물체를 표현하면 애정이나 기분이 좋은 상태이며, 수직이나 수평을 쭉 뻗어 그린 선이나 빨강을 덧칠한 경우는 자기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경우. 즉 애정에 찬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와, 격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상반된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 파랑

- 파랑을 좋아하는 아동은 적응능력이 뛰어나고, 항상 자신의 일에 양심적으로 전념한다.
- 다소 고집이 센 경향이 있으며, 항상 자기 일에 전념하거나 성실한 성격의 아동이 많다.
- 비교적 명랑한 성격의 남아들이 많음.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당하거나, 성실함을 강요당하는 아동의 그림에서 파란색이 많이 나타난다. 불안이나 공포심을 품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나며, 어른들의 규칙에 맞추려고 하며, 더 크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낸다.

3) 노랑

- 의존적인 성격의 아동이 많고, 정신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지체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노랑을 잘 쓰는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들과 대인관계가 좋으며, 인기가 있다.
- 검정색과 대조가 중요: 노랑과 검정을 함께 자주 쓰는 아동인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가 많다.

4) 보라

- 오래된 질병 또는 가족의 질병과 관련. 인물에서 턱밑이나 상반신을 보라색을 채색한 경우, 소아천식, 폐 관련 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배경을 전부 보라색으로 칠한 경우: 외고집, 불통, 심술, 자기중심적, 남과 잘 다투는 아동이 많다.

5) 초록

- 허약한 아동들이 즐겨 사용. 또는 피로한 오후에 그리는 경우 자주 나타남. (병에서 회복되어가는 과정) 온순하고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다.
- 빨강과 초록의 대비: 지적 관심의 표현,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상을 보고 아이가 고민하는 경우일 수 있다.

6) 갈색

- 의지력이 약하고, 의존심이 높으며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 많고, 자신의 행동과 손을 사용하는 데에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 어린이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놀이나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는 아동의 그림에서 많이 쓰이는 색이다. 짙은 고동색을 많이 쓰는 아동은 도벽을 가진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 화면중간의 밥상을 갈색으로 칠하거나, 집안의 벽을 갈색으로 칠하는 경우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를 의심해봐야 한다. 자신이 갈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경우, 극도의 애정부족이나, 물질적 불만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7) 검정

- 검정색을 많이 쓰는 자녀의 부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뉨: 자녀의 교육에 대해 지나친 적극성을 가진 부류와 어머니가 아동에게 자주 화를 내며 히스테릭한 정서적 상태를 보이는 부류로 나뉨.
- 아동에게 검정색은 가정의 불유쾌함을 드러내는 색으로 자주 사용됨.
- 화면의 일부를 전부 까맣게 칠하는 것은, 어머니의 히스테리에 대한 공포를 나타낸 확률이 높으며, 검은 구름은 어머니(주 양육자)가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3. 아동의 색채표현에 따른 사례분석

1) 빨강

한 7세 여자 어린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을 표현하였는데, 이 어린이는 아침에 일어나 유치원에 가는 길을 표현하였다. 해당 그림에는 도로와 버스를 온통 빨간색 색채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부모는 부부 맞벌이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자주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빨간색은 애정에 목말라 있는 어린이에게 잘 나타나는데, 불을 연상시키는 색채로 격한 심리와 관계가 있다. 특히 유치원에 가는 도로와 버스를 빨간색으로 칠한 것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관심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과 유치원에서 친구와의 애정 관계를 빨강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의 행동에서도 싸움을 걸거나 폭력을 행하는 공격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나며, 이는 애정에 대한 욕구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보라

보라색은 고귀, 우아, 신비, 영원 등을 상징하며, 귀족의 색이라고도 하지만, 보라색을 잘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억제된 불행한 심리상태와 연관이 깊다. 또한 보라색은 질병과 관련이 깊다. 8세 여자 어린이는 가족여행을 표현하면서 보라색 보트에 바다에서 가족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전경을 표현하였는데, 해당 아이는 수업 중에 자주 울음을 터트린다. 직장생활로 바쁜 엄마를 두었으며 울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고 있다. 보라색을 사용하는 어린이는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이 어린이는 상상력과 창조력이 부족하여 혼자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항상 다른 아이들 그림을 자주 따라 그리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 여행을 그런 그림에서 배가 보라색의 짙은 색채로 칠해진 것으로 보아, 평소 이 어린이는 불행하다고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갈색

갈색은 물질적 욕구, 공복, 식욕을 상징하고, 유아적 상태에 있고 싶어 하는 욕구 표현과 애정 부족인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한 9살 여자 어린이의 그림에는 저녁식사를 하는 가족들이 갈색 테이블에 모여 있고, 갈색의자 한 곳이 비어있는데, 이 아이는 의지력이 약하며, 자기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으로,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다. 가정환경으로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그림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서도 비어있는 의자를 통해 아버지의 부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 애정 부족과 심리적 갈등상태가 갈색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4) 검정

검정은 고독하고 공격적이며 공포 및 불안에서 압박 반응에서 자주 사용한다. 한 아이의 그림에서는 웃고 있는 가족들과 더불어 자신은 노란색 옷을 입고 아버지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으며, 전체적인 배경은 회색과 검은색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그림에서는 가족들의 표정은 웃고 있지만, 배경의 부조화로 인해 분위기는 우울하고 불안해 보인다. 여기서 아버지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는 권위적 부모로서 잘못된 적극성 교육관을 가지고 있거나, 히스테리적 성격을 가진 부모를 표현할 때 자주 나타난다. 이 어린이는 평소 감정의 표현이 부족하며, 주위의 간섭으로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를 보였다. 압박, 부모의 꾸지람 등에 따른 우울한 심리상태가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제 19차시. 색채심리 상담의 실제(청소년, 노인)

I . 청소년의 이해와 특성

1. 청소년

1) 청소년의 정의

- 어원적 정의: adolescent - 라틴어로 “성장하다(grow up)” 혹은 “성숙하다(come to maturity)”에서 유래되었다.
- 학문적 정의: ①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인생의 발달단계에 놓인 사람. ② 심리학에서는 14~22세까지 놓인 사람.
- 법적 정의: 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9세 미만인 자” ②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위기를 경험: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발달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기 시작.
- 자기중심적 사고: 과장된 자의식을 가지기도 하며, 자신이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함.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김.
- 도덕성의 발달: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면서 반대로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규범을 배척. 대인관계의 배려, 애착, 책임을 느낌.

3) 청소년기 발달이론

- 에릭슨(Erikson)의 생애 발달이론.
개인이 성장하는 환경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8단계의 과업을 ‘긍정 VS 부정’으로 제시하였다. 에릭슨의 발달이론 중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면 성취감과 근면함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가진다.

→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1단계. 신뢰 대 불신(Trust vs. Mistrust)

에릭슨은 신뢰(trust)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Erikson, 1968)”로 정의한다. 신뢰를 형성한 영아는 엄마가 자신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주고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낄 때 위로를 준다는 기대감을 형성한다. 아기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통제력을 발달시킨다. 엄마와 신뢰감을 형성한 아이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떴다 하더라도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지나친 불안이나 걱정을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필요할 때 부모가 자신에게 없을 것이라는 불신감(mistrust) 역시 이 시기에 발달된다. 물론 불신감은 신뢰감에 비해 부정적인 속성이며, 이후의 적응을 위해서는 불신감 대신 신뢰감을 적극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신감이라는 경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불신 역시 어느 정도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가 발달한다. 이는 단순히 영유아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불신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생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rikson, 1976, p.23).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의심(Autonomy vs. Shame and Doubt)

2단계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신체적 변화는 이들이 걷고, 말하고, 소위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2단계의 유아들은 환경에 대한 통제를 통해 어떠한 사건을 취하고 어떠한 사건을 놓아두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경험을 시작한다. 또 자신의 세상에 대한 통제를 표출하는 동시에 이를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 역시 통제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항문기의 ‘배변 훈련’이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의 의지와 사회 규제 간의 갈등이다(Crain, 2010).

이 시기의 갈등이 ‘자율성 대 수치와 회의’라 명명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율성이란 생물학적 성숙에 근거하여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대두된다. 반면 이러한 행동에 사회의 기대와 압력을 의식함으로써 수치와 회의가 생성된다. 이 두 번째 위기를 긍정적으로, 즉 자율성과 회의감을 적절히 경험하여 해결한다면 아동은 의지(will)를 발달시키게 되며, 이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기

능하는 구성원이 되는 단초 역할을 한다(Crain, 2010).

3단계. 주도성 대 죄의식(Initiative vs. Guilt)

에릭슨은 남근기의 아동이 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 내는’ 행동, 즉 목표를 형성하고 수행하고, 경쟁하는 소위 관입(intrusion)의 행동 양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관입의 노력을 기울이는가, 즉 주도성(initiative)은 이 시기 발달의 핵심 개념으로 대두된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계획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즉 어떤 행동에는 사회적 금기가 있고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는 죄의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죄의식은 결국 초자아로 내면화되고 자기 억제의 기능을 발달시킨다(Crain, 2010).

4단계. 근면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

이 시기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아동은 근면감(industry)의 획득, 즉 유능감에 대한 감정을 발달시키도록 만든다. 반면 이 경험이 실패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이 생긴다. 물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보다 나은 상태로 이행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나친 열등감은 분명 적응에 좋지는 않을 것이다(Erikson, 1964).

5단계.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Identity vs. Role Confusion)

청소년기 이후의 단계는 프로이트의 단계 중 성기기(genital stage)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프로이트 발달 단계의 최정점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생식기에 대한 프로이트의 언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요구와 생물학적 성숙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이에 따른 역동의 결과로 이 시기의 특수 발달 과제가 생긴다(Erikson, 1968). 청소년기의 문제는 단지 생물학적 문제에서만 유발되지는 않는다. 사회와 문화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갈등 역시 청소년기 때 두드러진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 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충되고 모호한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 문화적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기는 다양한 가능성의 제시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자신을 던지며, 실제로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내가 누구이고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 즉 자아 정체감(ego identity)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수많은 가능성과 불분명한 역할이라는 역할 혼미(role confusion)의 위기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기라는 것이다(Erikson, 1968).

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 초기의 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라 일컫는다. 청소년기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자기 몰두에 해당된다. 반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들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도 넓힐 필요가 있다. 즉, 성인 초기의 발달 과제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여 친밀감(intimacy)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Crain, 2010).

다른 모든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의 적절한 발달은 이후의 발달을 돋는다. 이 시기에 적절한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5단계에서 합리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의식적인 인물은 좋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대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여 형성되는 경험은 고립감(isolation)의 발달로 표현된다(Erikson, 1982).

이 단계의 발달 역시 친밀감과 고립감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다.

7단계. 생산성 대 자기 침체(Generativity vs. Stagnation)

성인 중기에 이르러 두 사람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그 관계는 두 사람을 넘어서도 적용되기 시작한다(Erikson, 1982). 즉,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가치를 전수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산성은 좁게 말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생산성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전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양육,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희생할 필요도 동시에 대두된다. 부모는 자신의 만족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호의(care)를 통해 생산성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자기 몰두, 공허, 지루함 등의 자기 침체(stagnation)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물론 대부분의 성인들은 일시적인 자기 침체기를 겪지만 이러한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는지는 중년기의 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8단계. 자아 통합 대 절망(Integrity vs. Despair)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에 대한 전형적인 관점은 이 시기가 쇠퇴기이고 부정적이며, 정적인 시기라고 보았다. 반면 에릭슨은 이 시기 역시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보았다. 이 시기의 갈등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면서 대두된다(Erikson, 1982).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후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감(integrity), 즉 자신이 이전 세대 및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일관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이해한다. 반면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혐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할 경우 이는 절망감(despair)이라는 부정적 특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출처: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2. 청소년 대상 색채치료

1) 대상과 상담목표

- 성인과 달리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억지로 끌려서 방문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청소년과의 첫 만남은 어떠한 문제이건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
- 상담사가 공감적 반응과 흥미를 보여주어야 한다.
- 상담목표를 함께 수립하되, 내담 청소년이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상담목표는 반드시 청소년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결과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청소년 색채심리상담사의 자세

- 내담 청소년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며, 색채치료 작업과정 안에서만 허용되는 규칙을 회기마다 검토해야 한다. 특히, 모든 작업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예외가 있다. (내담자의 안전, 타인의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때만 예외. ex: 타라소프 사건)

- 청소년들은 상담자의 모범행동을 관찰하고 배우기는 하나, 언제나 도움이 될 정도로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내담 청소년들의 작품촬영 및 보관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

II. 청소년의 색채표현과 분석

1. 청소년 색채표현 사례

1) 색채 동그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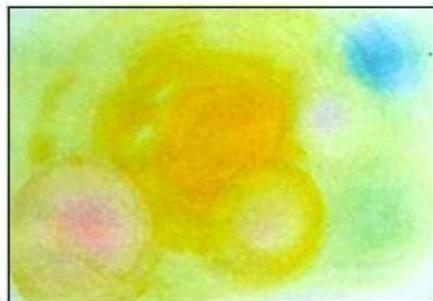
→ 18세, 여 - 첫 날

〈선으로 표현한 내 마음〉

이 그림을 그린 고등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1주 후



2주 후

‘어지러움’의 반대를 표현.

첫 번째 그림의 미래를 표현.

: 동그라미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간결해지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이 겪는 혼돈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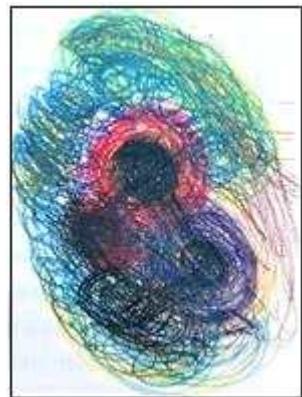
2) 감정표현 난화

→ 17세, 여

〈우울과 분노〉

처음에는 밝은색으로 칠하다가 점차 격하게 짙은 색으로 표현.

이 학생은 아빠가 중3 때까지는 학교과제를 세심하게 챙겨 주셨는데, 그것이 고맙지만 갑갑하고 싫었다. 하지만 최근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한편으로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양가감정을 빨강, 보라, 초록, 파랑으로 표현한 뒤에 걱정으로 뒤덮어 버렸다.



III. 노인의 이해와 특성

1. 노인

1) 노인의 정의

- 1951년 국제노년학회의 정의: 인간의 노화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적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
- 사회적 정의: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결핍이 있는 자
② 자아통합감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자
③ 생물학적 기관의 기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자
- ‘65세 이상으로 생리적·신체적·사회적 기능의 퇴화를 겪으며,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Barren)

2) 노인의 심리적 특징

- 신체적인 약화, 은퇴로 인한 빈곤, 사회와 심리적인 고립과 소외 경험으로 욕구 불만이 생기면서 노인 특유의 성향이 생성된다. 노인 특유의 성향은 내향적인 성향, 과거에 대한 회상,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우울 경향, 의존성 증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
- 노인의 심리적 욕구: 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길 원함. ② 무언가 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배우고 싶어 함. ③ 자녀 및 친구들과 정서적·감정적인 유대 관계

를 맺길 원함. ④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를 원함. ⑤ 자신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함.

3) 노년기 발달이론

-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노년기는 8단계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잘 적응해 왔다면 자아통합,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2. 노인대상 색채치료

1) 대상과 상담목표

- 창의적 활동을 하는 노인은 삶에 집중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메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체 목표로 정한다.

- Goya, Klee 와 같은 화가가 보인 노년기의 활동의 의미는 재능 뿐 아니라 위기상황에도 삶에 대한 창의적 태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예술에 대한 민감성, 창의성, 감동능력은 연령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담 노인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 노인의 색채치료의 의미: 다양한 인생행로를 지나온 노인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축적되었거나 잠재되어 있어, 이를 밖으로 표출시키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2) 노인 색채심리상담사의 자세

- 노인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알아채고, 중요시해야 하며(시선, 표정, 음색, 얼굴색, 손발의 움직임, 찡그림, 눈물 등), 노인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경청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돋는다.

-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재원들을 밝혀내고 이를 지원하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돋고,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삶의 가치와 기여점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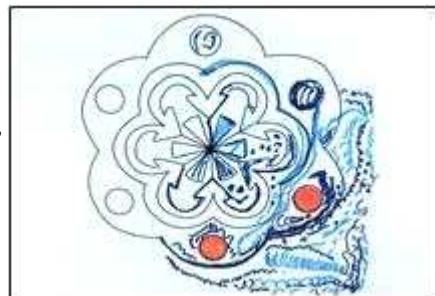
IV. 노인의 색채표현과 분석

1. 노인의 색채표현 사례

1) 만다라

→ 61세, 여 (치매)

치매로 인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왼쪽을 그리지 않은 우뇌 손상 환자의 특성’을 보여, 그림의 우측만 채색하였다. 이후 매일 만다라 채색을 3주 동안 집에서도 진행하였다.



3주 후 그림



5개월 후 그림

아무 말 없던 여성은 만다라 채색(좌) 후, “시원하고 싱싱하네.”라고 자신의 느낌을 처음으로 말하였다. 지속적으로 만다라 채색이 이루어지고 5개월 후 그림(우)은 전반적으로 채색이 고르게 되었다.

2) 파스텔 작업

→ 82세, 여(인지기능 저하)

〈초기회상〉

열 살쯤, 주인집에 뒷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왔으며, 한 남자가 나와 호랑이를 내쫓았으나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내용. 그림은 노랑과 주황, 핑크, 보라를 이용한 색 면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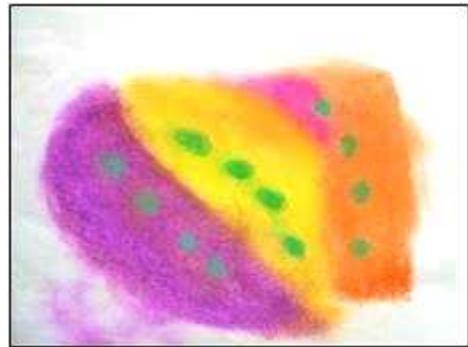
로 구성하고 그 위에 점을 찍어 호랑이 빨자국을 표현. 눈 오는 날 밤의 상황과 호랑이가 물러가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습식 작업

→ 77세, 남(청각장애 4급)

〈내 기분〉

“귀가 잘 안 들려서 마누라하고 싸워. 자식들이 놀러 와도 내가 잘 못 들으니까 말도 잘 안 시키고, 화날 때도 있지.” 중간의 붉은 색은 태양처럼 보인다고 하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감정을 이완하는 데에 습식 작업은 효과가 있다.



제 20차시. 색채심리 상담의 실제 (작품분석)

I . 예술가 작품에서의 색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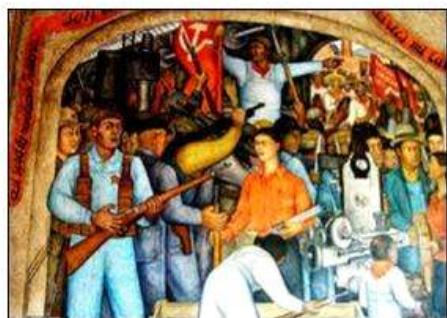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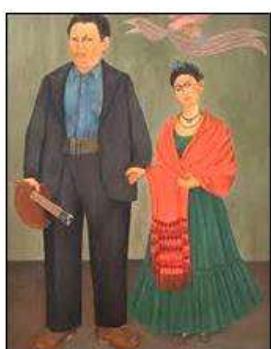
1.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de Rivera, 1907~1954)

1) 생애

- 1913년(6세): 소아마비에 걸려 9개월간 방에만 갇힌 채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오른쪽 다리에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다.
- 1921년(14세): 명문 국립 예비학교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기를 꿈꾸며 다양한 독서를 하고 첫 애인을 만난다. 서클 '카츄사즈'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공산주의에 빠진다.
- 1925년(18세): 프리다가 탄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서 척추가 3동강, 몸 전체 11군데 골절,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고, 쇠기둥이 골반을 뚫고 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
- 1928년(21세): 공산당에 입당. 공산당이 조직한 문화행사 및 정치 행사에 참여하면서,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게 된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여 걸을 수 있게 된다.



- 1929년(22세): 여성편력이 심했던 디에고와의 결혼을 주변 모두가 반대하였으나 21세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그들은 결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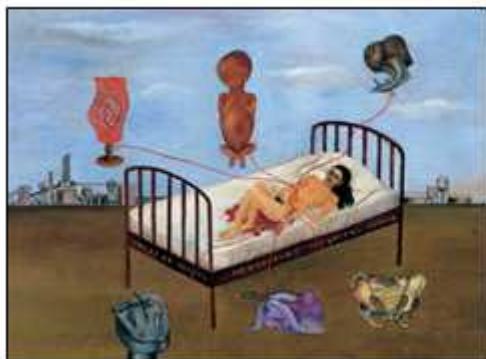


그녀가 그린 자신과 디에고 /

그들의 사진 /

디에고가 그린 민중벽화 가운데 자리 잡은 프리다

- 1930(23세): 첫 번째 임신을 하였으나 유산되고 이후 3차례나 유산하게 된다.
- 1938(31세):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칸딘스키, 피카소 등 당대의 저명한 화가들의 극찬을 받게 된다. 남미 화가로는 최초로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이 소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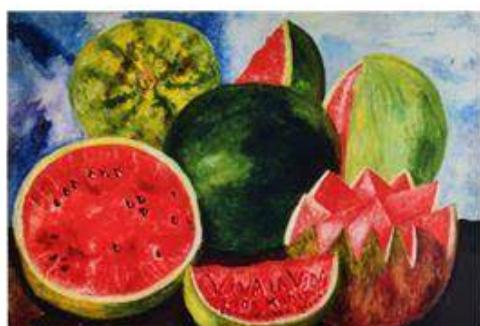


<페 있는 침대> 1932.



<두 명의 프리다> 1939.

- 1953(46세): 멕시코에서 프리다 칼로의 회고 전시회가 열렸으나 개막식 날 침대에 실린 채 참석하게 되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 1954(47세): 폐렴이 겹쳐 사망하게 되고 그녀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이 여행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Viva la vida" (인생이여 만세) – 마지막 작품

2) 프리다 칼로의 색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따뜻하고 선량한 빛,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f green: 나뭇잎들, 슬픔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ish green: 한층 더 광기어리고 미스터리한 느낌. 모든 유령이 휘감고 있는 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low: 광기, 질병, 두려움, 태양, 약간의 기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 아무것도 아닌 . | |





〈자화상〉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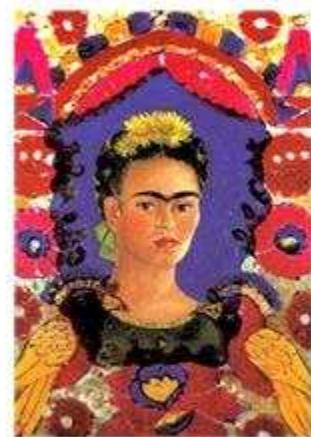
〈상처 입은 사슴〉 1946.



- dark green: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 brown: 흙으로 돌아감, 낙엽의 색.
- reddish purple: 아즈텍, 트라팔리
백년초 선인장에서 흐르는 오래된 핫빛,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생기 있는 색.
- red: 피, 태양.
- navy blue: 상냥하면서도 거리감 있는.



〈태양과 생명〉 1947



〈프레임〉 1938

- 프리다 칼로는 죽기까지 28년간 작품제작 활동을 하면서 143점의 작품을 완성하였고 그 중에서 삼분의 일이 넘는 55점의 자화상을 남겼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주제로 삶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극적인 삶을 작품 속에 담아내었고 그녀가 쓴 색채에서 그러한 감정과 정서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II. 일반인 작품에서의 색채분석

1. 사례(1)

→ 51세, 여성 <초록색 돌고래>

돌고래가 초록으로 나타나, 희망과 발전과 성장의 가치로 연상된다. 그림을 그린 여성은 돌고래와 밀착되어 혜엄을 치고 있는데, 돌고래로 상징화한 자신의 무의식과 접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사례(2)

→ 51세, 여성 <보라색 파도>

: 소용돌이는 그림상징에서 정신의 깊이를 묘사했다. 파도가 강한 바다에 있으므로, 이 그림을 그린 여성은 창의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무의식이 이끄는 강한 매력에 사로잡혀 있음을 상징하며, 바다는 자기 고유한 존재의 상징이다.



3. 사례(3)

→ 54세, 남성 <갈색 옷을 입은 수도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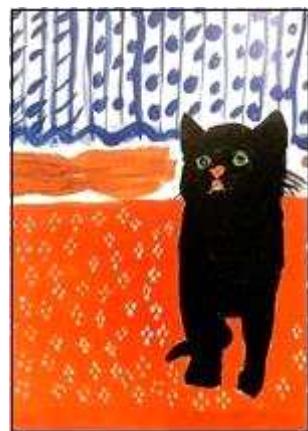
: 죽음이 임박한 암 환자인 남성은 꿈에서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어린이들을 안고 있는 갈색 수사복을 입은 수도사들을 보았다. 이 그림에서 갈색은 단념, 만족, 죽음에 대한 수긍을 상징. 생동감 넘치는 자신의 삶(노랑)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가야 하는 자신을 겸허히 표현하였다.



4. 사례(4)

→ 17세, 여 <검은 고양이>

: 열정 혹은 공격성의 붉은색으로 그려진 테이블보는 폭발하는 감정을 풀 수 있는 출구로 상징.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가지는 불안함을 검은 고양이로 표현하였다. 섬세함과 민감함이 있는 고양이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 눈을 뜨는 소녀 자신을 구현했다.



<참고문헌>

- 구미래(2000).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 국방일보(2015). 제2차 세계대전 시크릿 100선. 국방홍보원.
- 김석진(1999).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 김형희(2010). 색채경험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신자, 박윤미(2011).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담.
- 박종훈(2012).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본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자(2008).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현진(2008). 색의 상징성에 기초한 아동화의 색채심리 재해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향수, 주장관(2016). *아파트 풍수인테리어*. 서울: 이가출판사.
- 정여주(2001). *만다라와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정여주(2006). *노인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정여주(2014).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현주(2016). *쉽게 이해하는 색채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주리애(2014). *색즉소울*. 서울: 학지사.
- 최경숙(2000). *발달심리학: 아동·청소년기*. 서울: 교문사.
- 한국색채표준협회(2009). *공공디자인 색채 표준가이드*. 한국표준협회.

Bach, S.(1995). *Das Leben malt seine eigene Wahrheit*. Zurich: Daimon.

Bauer, C. (2007). *프리다 칼로 (Frida Kahlo)*(정연진 역). 서울: 예경.

Haller, K.(2019). *컬러의 힘 (The Little Book of Colour)*(안진이 역). 경기도: 월북.

Lambert, M.(2003). *색다른 색 이야기 (Colour Secrets)*(유영석 역). 서울: 나들목.

Pasrtoureau, M.(2000). *블루, 색의 역사 (Bleu: histoire d'une couleur)*(고봉만, 김연실 공역). 서울: 한길아트.

Riedel, I.(1999). *색의 신비 (Farben)*(정여주 역). 서울: 학지사.

Saradananda, S.(2016). *차크라의 힘 (Chakra Meditation)*(김재민 역). 서울: 판미동.

<http://weekly.khan.co.kr>